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15~16세기 明 四夷館 通事와
朝鮮 司譯院 譯官 양성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장 기

2021년 8월



15~16세기 明 四夷館 通事와 朝鮮 司譯院 譯官 양성 연구

지도교수 정 창 원

장 기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장기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全 暎 復



위

원

김 은 희



위

원

정 창 원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1년 8월



A study on Ming Si Yi House
Interpreters and Joseon Sayogwon
Interpreters of the 15th~16th century

Zhang Qi

(Supervised by professor Jung Chang-W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History

2021. 8.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초록〉

| | |
|--------------------------------|----|
| I . 머리말 | 1 |
| 1. 연구배경 | 2 |
| 2. 연구성과 검토 | 5 |
| 3. 연구내용과 방법 | 14 |
| II . 明 사이관의 통사 양성 | 17 |
| 1. 사이관의 설립과 운영 | 17 |
| 2. 교사와 교육생 총원 | 24 |
| 3. 학습교재와 평가 | 31 |
| III . 朝鮮 사역원의 역관 양성 | 42 |
| 1. 사역원의 설립과 운영 | 42 |
| 2. 교사와 교육생 총원 | 51 |
| 3. 학습교재와 평가 | 56 |
| IV . 明 통사와 朝鮮 역관의 양성 비교 | 71 |
| 1. 상대방 언어에 대한 비교 | 71 |
| 2. 통사와 역관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비교 | 74 |
| 3. 학습교재와 평가에 대한 비교 | 76 |

| | |
|----------------|----|
| V. 맺음말 | 78 |
| 참고문헌 | 80 |
| 그림과 표 차례 | 84 |
| 〈Abstract〉 | |

〈국문 초록〉

15~16세기 명나라와 조선은 통번역인재 양성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 통번역 인재양성을 위한 기구로 각각 '사이관(四夷館)'과 '사역원(司譯院)'을 설립하였다. 비록 이 두 기관의 이름이 서로 다르고 이 곳에서 양성하는 인재들의 호칭도 다르지만, 외교임무를 처리하고 외교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비교할 만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기관의 설립과 운영, 교사와 교육생 충원 및 학습교재와 평가를 중심으로 15~16세기 통사와 역관의 교육양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조선에 대한 명의 인식과 조선의 '사대교린(事大交隣)' 외교 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었는지, 당시에 기술적으로 여겨진 통사(通事)와 역관(譯官)의 위상은 어땠는지, 두 기관에서 사용된 교재는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통번역 인재에 대한 평가과정은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행연구 가운데 사이관과 사역원의 교육에 대한 비교연구가 있긴 있지만, 명과 조선이 상대방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식을 바탕으로 사이관과 사역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통사와 역관의 교육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볼 것이다.

2장에서는 기본문헌사료를 통해 사이관의 설립과 운영, 교사와 교육생 충원, 학습교재와 평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사이관 설립배경과 운영상황을 다룸으로 명이 사이관을 설치한 원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사이관의 역사연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교사와 역자생(譯字生) 충원을 다룸으로 명초 통사의 사회적 위상을 규명할 것이다. 셋째, 학습교재와 평가를 통해 명나라 통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서인 『화이역어』의 편찬, 내용구성 및 판본 등 그의 특징을 발견해보자고 한다. 또한 평소에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테스트와 마지막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졸업시험을 규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기본문헌사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역원의 설립과 운영, 교사와 교육생 충원, 학습교재와 평가를 소개하고 다루어볼 예정이다. 첫째, 사역원 설립과 운영 및 직제를 다룸으로써 조선이 사역원을 설치한 상황과 역사 연혁을 알아볼 수 있다. 더하여 사역원의 직제에 대한 서술을 통해 두 기관의 운영상황을 엿보고자 한다. 둘째, 교사와 생도 충원을 다룸으로 조선 초 역관의 사회적 위상을 규명할 것이다. 셋째, 학습교재와 평가를 다룸으로 조선시대에 나타난 다양한 종류 역학서의 종류와 발전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노걸대)』를 중심으로 사역원에서 사용된 교재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역관이 되기 위한 시험과 장학과 승진을 하도록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치른 시험도 규명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몇 가지 측면으로 사이관 통사와 사역원 역관의 양성상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주로 상대방 언어에 대한 비교, 통사와 역관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비교, 사용된 교재 상황에 대한 비교 및 통사와 역관이 되기 위한 평가에 대한 비교가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명과 조선의 외교정책에 따라 상대방 언어에 대한 중점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힐 것이다. 게다가 15~16세기 통번역인재의 사회적 위상은 어땠는지, 사용된 교재는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평가 방식과 내용은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몇 가지 방면들을 정리하고 비교함으로써 15~16세기 명의 통사와 조선의 역관 교육양상과 양성기관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시기 두 나라 간서로의 언어에 대한 인식도 어떻게 달랐음을 볼 수 있다.

키워드: 통사, 역관, 사이관, 사역원.

I. 머리말

오늘날 국제관계에 있어 정상회담을 벌이거나 외교사절단이 방문 할 때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통역가 혹은 통역관이라고 지칭한다. 국제관계 혹은 교역간에 있어 통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600년 전에도 실제로 이미 존재하였는데, 이 같은 부류의 전문가들을 명(明)에서는 통사(通事), 조선(朝鮮)에서는 역관(譯官)이라고 불렀다. 15~16세기 동북아 정세의 영향으로 인해 명나라든 조선이든 통사나 역관의 교육과 양성을 매우 중시해왔다. 그러므로 비슷한 시기에 통번역 인재양성을 위한 기구로 각각 사이관(四夷館)과 사역원(司譯院)이 설립되었다. 이 두 기관은 기본적으로 교육적 직능을 갖추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이에 더하여 외교적 직능 또한 보유하고 있었다. 비록 이 두 기관의 이름이 서로 다르고 이 곳에서 양성하는 인재들의 호칭도 달랐지만, 외교임무를 처리하고 외교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비교할만한 부분이 존재한다. 비교를 통해 이 두 기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요인에 따른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언어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비교적 포용하고 개방적인 편인데 반해 15~16세기의 양상은 지금과는 달랐다. 교사와 학생이 어떤 언어를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는 각 나라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어를 공부하는 방식도 외교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예를 들자면 사이관에서는 조선어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오히려 사역원은 언제나 한어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두 기관의 직능과 교육 상황에 대한 제반 정보들을 정리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명과 조선이 각각의 외교 정책에 따라 상대방 언어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15~16세기 상대방 언어에 대한 나타난 이런 특징은 조선에 대한 명의 인식과 조선의 '사대교린(事大交隣)'이라는 외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두 기관의 학생과 교사 충원양상에 대한 정리와 비교를 통해 15~16세기 통사와 역관의 사회지위와 충원에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다. 기술적으로 여겨진 그들은 문신과 양반들에게 배척을 당해왔고, 외국어에 능통한 현지인교사가 부족하였다는 공통점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학습교재와 교육평가에서 보면 수업의 중점과 인재양성 방향도 달랐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택된 교과서를 보면 사이관에서는 외국어¹⁾ 단어와 문장을 익히게 하는 것에 치중하였는데, 사역원에서는 회화, 경서, 법전과 관련된 많

1) 晁瑞, 「明代外語教育政策研究初探」, 『淮陰師範學院學報』 5, 淮陰師範學院文學院, 2017, 507쪽. 명나라가 외국어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의 것과 다른데, 중국어가 아닌 국가안전이나 무역과 관련이 있는 언어는 모두 외국어라고 여겼다.

은 다양한 교과서를 사용하였고 특히 회화능력을 매우 중시해왔다. 교육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이관에서 학제가 비교적 길고 번역과 통역이 따로 평가를 받았는데 비해 사역원은 통역인재를 위주로 양성하고 평가에 따른 장학, 승진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었다.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국가나 민족간 교류에는 상대국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통번역 업무는 국가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이관과 사역원은 바로 이런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이었다. 물론 이 두 기관에 대해 비교할만한 점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만 이 두 기관의 성격과 외국어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장면들을 정리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15~16세기 국제무대에서 활동하였던 명의 통사와 조선의 역관에 대한 교육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특히 명과 조선이 상대방 언어에 대해 가졌던 서로 다른 인식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배경

역사상 통역가와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역관(譯官)보다는 통사(通事)라는 단어가 먼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통사는 『주례(周禮)』에서 최초로 등장하는데, 정현(鄭玄)의 주석에 따르면 방국(邦國)과 방국 사이의 교류, 즉 상대국의 제후에게 예를 갖추어 방문하여 파견하는 제후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 세월이 흐름에 따라 통사의 개념에 변화가 생겼고 국가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각 민족들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통역을 맡는 사람을 통사로 인식하였다가, 이후에는 황제와 신하들 사이에서만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통사의 개념은 줄어들었다. 이어서 다른 국가나 민족간 정보를 교류기에 전달해 주는 사람을 가리켰으며 송, 요, 원, 명, 청에 이르러, 통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이름은 바로 통사였다.³⁾ 예를 들어, 『元史』의 기록에 따르면 통사는 주로 말을 전담하는 통역을 맡게 된 사람임을 알 수 있다.⁴⁾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통사는 15~16세기에 통역임을 수행하는 사람의 기본 호칭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⁵⁾

한반도의 경우 통역의 직능을 갖는 '통사'라는 호칭은 『속일본기(續日本紀)』에 처음 나타났다.⁶⁾ 기사에 따르면 신라는 혜공왕(惠恭王) 15년(779) 대통사

2) 『周禮·秋官·掌交』, “掌邦國之通事而結其交好.”; 鄭玄, 『周禮正義』, 권 73, “通事, 謂朝覲聘問也.”

3) 辛全民, 「通事的詞義變遷」, 『淄博師專學報』 2, 山東工商學院外國語學院, 2010, 53쪽.

4) 『元史』, 志第三十三, 選舉三. “譯史通事選識蒙古、回回文字, 通譯語正從七品流官..”이라는 기록에 따르면 통사는 몽고, 회회 글자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통역도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현대 통사는 민간에서 또 다른 뜻도 갖는다. 예를 들어, 지식이 풍부하고 시야가 넓은 사람을 가리킨다. (辛全民, 2010, 앞의 논문, 54, 55쪽).

(大通事) 한나마(韓奈麻) 김소충(金蘇忠) 등 3명을 일본에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⁷⁾ 여기서 언급된 '통사'는 일본사행에 수행했던 왜어(倭語) 통역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신라시대부터 왜어 역관을 두고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전개해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후기에 이르러,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원에 대한 통역업무를 담당할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몽고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통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통사가 단순하게 통역만 전담하는 것을 뛰어넘어 문서를 시정하고 답변하는 직무 또한 겸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⁸⁾ 조선시대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인접 국가와의 외교 및 교역과정에서 통역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을 '역관'이라고 지칭하였다. 물론 통사라는 관직도 여전히 존재했으나 그 직무는 더욱 다양해졌다. 예를 들면, 왕의 뜻을 전하거나, 시위(侍衛)를 관장하거나, 북경에 갈 때 황실의 물건을 매매하는 등의 사안들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역관을 곧 통사라고만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에는 통사와 역관이 따로 존재했고, 통사는 통역에만 종사하지 않았으며, 또한 반드시 역관이 가지는 직무만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⁹⁾

정리하자면 시대에 따라 통사의 직능은 달라질 수가 있었으나, 15~16세기로 치면 명나라 통사와 조선시대 역관이 가진 직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동시통역을 담당하는 사람과 같이 방문하러 온 외국사절의 말을 통역해 주거나 사절단을 따라가서 수시로 통역해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초반까지는 동북아가 대변동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런 배경에서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교류는 가속화되었고, 통사와 역관이 신속히 역사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원나라 말기에는 정치의 부패로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가 없었고 민간의 반란이 속출하였다. '홍건적의 난'을 기회로 평민출신인 주원장은 신속히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마침내 원나라의 통치를 종결시켜 명나라를 설립하였다. 명나라 건국 초기에는 휴양생식(休養生息)¹⁰⁾을 국책의 중점으로 삼음으로써

6) 고구려 때는 이미 '通事'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翰苑』과 『唐六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그 직능은 천자(天子)를 중심으로 말을 전달한 것이었음을 볼 수 있다. (張楚金, 『翰苑』, 高句麗條. "又有國子博士·太學博士·舍人·通事·典書客, 皆小兒, 以上爲之." 李林甫, 『唐六典』, 卷9, 卷25, "通事舍人, 卽秦之謁者...通事舍人, 掌朝見引納及辭謝者, 于殿廷通奏."; "若有口敕, 通事舍人承受傳聲於階下.").

7) 菅野眞道, 『續日本紀』, 36卷, "辛未, 新羅使獻方物.....壬申, 授新羅使薩金蘭正五品上. 副使級金巖正五品下. 大判官韓奈麻薩仲業, 少判官奈麻金貞樂, 大通事韓奈麻金蘇忠三人. 各從五品下."

8) 金炯秀, 「通事の職能에 대한 考察」, 『論文集』 6,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1987, 14쪽.

9) 朴成柱, 「朝鮮前期 對明 御前通事」, 『경주사학』 29, 경주사학회, 2009, 29쪽; 金炯秀, 1987, 앞의 논문, 23쪽.

10) 휴양생식이란 건국 초에 전쟁을 치르지 않고 새로운 정권이 자리를 잡아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력이 강해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발전되었다. 뒤이어 황제의 자리에 오른 영락제(永樂帝) 주채(朱棣)는 수도를 북경으로 천도함과 아울러 친히 군병을 거느리고 몽골의 잔여세력을 토벌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북동 여진 부족을 진압하고 군사행정기구인 '건주위(建州衛)'¹¹⁾까지 설치되었기에 15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한족 귀족집단이 중원의 통치권을 다시 수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영락제는 이 상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실행하였다. 중국과 외국의 문화와 경제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정화(鄭和)에게 명하여 1405년으로부터 일곱 차례나 남양(南洋)·인도·이란 등 30여개 나라를 향해하였다. 그 선대 규모가 유례없이 방대했고 그 향해 범위는 멀리 아프리카 동부에 이를 정도였다. 이를 통해, 남양과 서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실행하였던 전통적 방식의 외교관계였던 조공제도를 최고봉으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조공하러 온 나라가 점차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의사소통이었다.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이르는 시간동안 국제정세는 명(明)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건국 초기였던 조선 또한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당시 조선에게 있어 명나라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정치·군사 대국이자 넓은 영토와 풍부한 물산을 보유한 가장 중요한 경제교역의 대상국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조선이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유교의 중주국이자 과학기술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기도 하였다. 이런 국제질서의 변화로 조선은 대명(對明)외교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소통의 대상이었던 국가에 대한 언어적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어 통역사의 양성에 적극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대명 관계의 변화 외에도 조선은 몽골의 침입 우려, 일본과의 정식 국교 재개, 여진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세종 31년(1449)에는 새롭게 대두한 몽골 부족인 오이랏(瓦剌)이 명에 침입하여 명 영종(明 英宗)을 포로로 잡아 구금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한 여파로 인해 조선은 몽골의 침입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대비로 몽고어 통역사의 양성에도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일본 또한 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속에 편입됨에 따라 명나라를 주축으로 조공외교를 진행하였고, 중국에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조선과의 국교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15세기의 여진은 아직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부족단위로 농경과 목축에 종사하고 있었다. '교린(交隣)'의 원칙 하에서 조선은 여진에 조공을 통해 사은품을 보내는 동시에, 여진을 무마하기 위해 공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11) '建州衛'는 중국 명나라가 만주 남쪽에 살고 있는 여진족을 통할하기 위해 설치한 위(衛)였다.

이 있는 귀화인을 장려하고 관직을 제수하기도 하였다.¹²⁾ 따라서 일본과 여진과의 원만한 교섭을 위해서도 일본어와 여진어를 공부한 통역가의 양성이 필수적이었다.

다시 말해, 15~16세기의 명나라와 조선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국제교류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가 바로 의사소통의 문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사나 역관은 바로 이런 외교 관계 유지와 전개에 필수적인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외국의 사신과 수행원과의 접대를 통해 언어능력의 향상은 물론, 정보활동 등 기타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무역의 업무를, 문화적으로는 선진문물을 도입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14세기 말부터 15세기 초까지의 각국 외국어 교육은 실제 주변 국가나 민족과의 접촉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주변 국가나 민족과의 접촉에 필요한 통사나 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외국어 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2. 연구성과 검토

지난 세기 80년대로부터 중한 양국은 15~16세기에 다른 국가나 민족의 언어 공부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일부 연구는 이 시기에 통번역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다룬 것이다. 그 학교는 바로 명나라의 사이관과 조선시대의 사역원이다. 각각의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들은 주변 민족과의 통번역과 관련이 있는 직능을 수행하였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이 두 기관은 각기 자국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통번역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당시 동북아 외교무대에 많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 왔다.¹³⁾ 다음으로 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사이관, 사역원, 두 기관의 비교연구 세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四夷館의 대한 검토

명나라 사이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중국 학계에서 전개되어 왔으나 한국 학계에서는 사이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⁴⁾ 그 중 대부분은 사이관 설립과 교육에 대한 논술이다. 그 연구 내용은 크게 기관의 설

12) 백옥경, 『朝鮮前期譯官研究』, 韓國研究院, 2006, 34-40쪽.

13) 물론 통사나 역관은 전적으로 사이관이나 사역원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명나라 같은 경우는 사이관 말고 이민족이면서 한어에 능통한 자가 선발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최형섭, 「사이관(四夷館)을 통해 본 명대 전기 사회의 혼종성」, 『中國文學』 73, 한국중국어문학회, 2012, 124쪽). 조선은 건국 전후에 명나라와의 외교·정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중국어에 능통한 귀화 중국인을 통역과 관련된 일을 맡긴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박종연, 「조선 초기 귀화 중국어 통역관 연구 -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73, 영남중국어문학회, 2016, 382쪽).

14) 최형섭, 2012, 앞의 논문.

립상황, 학생과 교사의 충원, 교과서의 소개, 학습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내용은 거의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주변 민족들과 국가들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명 정부는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에서 통역과 번역에 통달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한 기관인 사이관을 창립하였다는 점이다.¹⁵⁾ 이 논문들의 내용과 구성에서 보면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 모두 기본 사료를 바탕으로 사이관의 설립상황, 학생과 교사의 충원, 교과서의 소개, 학습평가 등 측면들을 꼼꼼히 다루었다. 이 논문들을 통해 사이관은 주변 각 민족이나 국가들과 오가는 문서를 처리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전문적인 통번역인재 양성학교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 평가제도에 초점을 두고 다룬 연구는 두 건이 보이는데 하나는 사이관 설치배경에서 출발하여 당시 많아진 외교업무로 인해 엄격한 학생 평가제도가 생기게 되었음을 살펴본 것이고¹⁶⁾ 다른 하나는 학습방식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조학습에서 전문학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한 것이다.¹⁷⁾ 따라서 사이관에서는 전문적인 방법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훈련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 일부 연구는 학계에서 사이관에 대한 연구가 외국어 교육에만 국한되어 있어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기본연구를 바탕으로 사이관의 성격, 위치, 직능을 한층 더 상세히 규명하여 인원구성, 선발방식, 관리제도와 재정상황을 다룸으로 사이관의 운영을 규명해보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설립 초기 주변민족의 정보수집에 그 역할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이후 명 정부가 외교정책을 개방에서 보수로 방향을 바꿈에 따라 사이관의 역할은 줄어들게 되고 마침내 폐지되는 운명에 이르렀음도 설명하였다.¹⁸⁾ 이 논문을 볼 때 사이관의 교육직능을 제외하고 운영체제도 알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이관의 폐지에 대해서는 「명청시기의 四夷(譯)¹⁹⁾관」이라는 석사논문에서 사료를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²⁰⁾ 이 논문에서는 명 이전의 통역기관에서 출발하여 명 사이관의 통사의 교육과 관리를 중심으로 소개

15) 대표적인 논문은 王雄, 「明朝的四夷館及其對譯字生的培養」, 『民族研究』 2, 1987; 任萍, 「記我國最早的翻譯學校—明四夷館考察」, 『上海翻譯』 2, 浙江樹人大學語言學院, 2007; 張美平, 「教習譯寫番字,事雖輕而干系重—明代四夷館翻譯教學述略」, 『中國科技翻譯』 2, 浙江樹人大學語言學院, 2011; 周靜, 「我國最早翻譯館明四夷館組織制度研究」, 『蘭台世界』 12, 山東理工大學圖書館, 2013; 李紅梅, 「明代四夷館的設立與外語教學活動考辨」, 『蘭台世界』 15, 樂山職業技術學, 2015. 등 있다.

16) 韓霜, 「管窺明代四夷館中的學生評價體系與考核制度」, 『蘭台世界』 27, 西南財經大學天府學院, 2015.

17) 任萍, 「明代四夷館的學生管理模式考証」, 『浙江樹人大學學報』 1, 浙江樹人大學外國語學院, 2014.

18) 廖大珂, 孫魏, 「明代四夷館初探」, 『史林』 4, 廈門大學中國社會科學院, 2016.

19) 사이관은 명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에도 '夷'자를 '譯'으로 바꾸어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다. 즉 사이관은 두 왕조를 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 胡秋碧, 「明清時期的四夷(譯)館」, 廈門大學, 2008, 45쪽.

한 다음, 청 회동사역관(會同四譯館)²¹⁾의 직능과 관리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살펴 보았다. 하지만 청나라에 존재했던 '사역관(四譯館)'에서는 통사양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언급하지는 않으며, 게다가 관련 연구와 사료에도 사역관의 통사양성 상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를 고려할 때 두 왕조 동시에 존재했던 사이관은 명나라 때 통사 교육양성을 비교적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을 실행하고 전개해 나가는 반면, 청나라 시기에는 교육직능이 약화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 학계에서 사이관에 대한 직능, 교육, 운영 등 연구는 비교적 많은 것에 비해, 각 관(館)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사이관에서 언어별로 외교문서를 번역하고 해당 언어를 가르치는 분관이다. 15세기 초에 주변 민족이나 국가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위해 사이관에 8관이 설립되었다가 16세기에 이르러서는 10관으로 늘어났다. 10관이라에도 불구하고 달단관(韃靼館)과 여진관(女眞館)에 대한 다루어진 연구는 두 건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 모두는 오운고와(烏云高娃) 교수가 쓴 것이다. 하나는 사이관 관련 사료를 근거하여 달단관의 설치와 변천, 몽고어 교육, 외교문서 번역 등을 다룬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역원 여진어학(女眞語學)에 비교하면서 여진관의 교육상황을 고찰함으로써 여진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여진어 통사와 역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제기한 것이다.²²⁾ 이 두 관에서 통사양성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사이관에 대한 다른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그리고 두 관과 관련된 사료가 부족하고 해당 기록도 없다고²³⁾ 말해 주기 때문에 10관에 대한 운영과 교육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단지 한 가지 점이 발견되었는데, 달단관은 명나라와 여진과의 오가는 문서 중 몽고어 부분을 맡아 번역한 직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달단관에서 몽고어 번역 외에는 여진어 번역임무도 수행한 것이다. 그런 경우의 원인은 당시 명과 여진과의 오가는 문서 일부분은 몽고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⁴⁾

각 관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각 관의 번역임무와 사이관의 성격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소개되고 있다. 「명대사이관실태(明代四夷館新探)」에는 많은 기존의 연구들과 사료를 참고하여 사이관의 성격, 위치, 교육, 평가와 각 관의 번역임무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학생 층원의 변화과정과 유실원인을 논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아직 10관에 대한 운영

21) 사이관은 영락 5년(1406)부터 설치되고 건륭 13년(1748)에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회동관에 합병되어 회동사역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가 광서 29년(1903)에 폐지되었다.

22) 烏云高娃, 劉迎勝, 「明四夷館“韃靼館”研究」, 『中央民族大學學報』 4, 南京大學歷史系, 2002; 烏云高娃, 「明四夷館“女眞館”和朝鮮司譯院“女眞語學”」, 『中國史研究』 1,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2005.

23) 烏云高娃, 劉迎勝, 2002, 앞의 논문, 63쪽. 烏云高娃, 2005, 앞의 논문, 128쪽.

24) 烏云高娃, 劉迎勝, 2002, 앞의 논문, 67쪽.

과 구체적인 교육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각 관의 번역임무에 대해 균형이 잡히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²⁵⁾ 앞에서 소개했듯이 여진어 문서 번역도 맡아진 달단관은 비교적 바빴으나 여진관에는 오히려 백여 년간 아무 일도 없었다.

사료에는 사이관에 있는 10관 중에 '조선관(朝鮮館)'이 없다고 실려 있다. 하지만 조선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나와 있다. 이충휘(李忠輝)는 국내외 통사 직능 관련 사료를 통해 조선관은 사이관에 설치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 사이관에 조선관을 두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게다가 『遼東志』, 『朝鮮王朝實錄』 등 사료를 통해 명나라 조선어 통사의 교육양성은 홍려사(鴻臚寺)²⁶⁾에서 전개된 것으로 추정한다.²⁷⁾ 그 결론을 볼 때 사이관에서 조선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하듯이 사이관은 통사양성기관이었지만 명 초기에는 외교무대에서 활동한 통사가 다 사이관에서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나온 것은 아니다. 이충휘는 명나라 통사의 충원방식이 주로 지방에서 선발한 것과 사이관에서 영성한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²⁸⁾ 따라서 조선어 통사 같은 경우는 요동지방에서 직접 조선어에 능통한 사람을 통사로 임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원인으로 조선은 중국어를 적극적으로 익혔을 뿐만 아니라 오가는 문서도 한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 입장에서 굳이 상대의 언어를 안 배워도 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⁹⁾

선행연구 중에는 통사를 위해 썼던 교과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있다. 사이관에서 통사를 키우고 훈련하는 교과서는 『화이역어(華夷譯語)』라고 지칭한다. 지난 세기 80년대에 고대 중국 외국이나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연구, 번역 상황 및 국내외 출판하고 주장한 여러 가지 『화이역어』 판본을 소개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³⁰⁾ 한어로 음과 뜻을 표시한 명대 『화이역어』에는 주변 많은 민족 언어의 고사(古詞), 고음(古音)과 고의(古義)가 그대로 남아 있어 그 연구 가치를 높이 살 수 있다. 오운고와(烏云高娃) 교수는 일본 학자의 연구에 초점을 두어 『화이역어』의 판본과 일본어를 비롯한 각종 역어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며, 언어에 따라 그 연구 성과도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³¹⁾ 또한 국내외 많은 논문을 참고하여 명칭시기 번역과 교육을 위해

25)李文穎, 「明代四夷館新探」, 南京大學, 2017, 57쪽.

26) 『明史』 職官志 三. “鴻臚, 掌朝會、賓客、吉凶儀禮之事。凡國家大典禮、郊廟、祭祀、朝會、宴饗、經筵、冊封、進曆、進春、傳制、奏捷, 各供其事。”

27) 李忠輝, 「明代中央机构朝鮮通事設置考」,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6, 天津外國語大學高級翻譯學院, 2019; 李忠輝, 「『朝鮮館譯語』考論」, 『文獻』 6, 天津外國語大學高級翻譯學院, 2018.

28) 李忠輝, 2019, 앞의 논문, 36쪽.

29) 李忠輝, 2019, 앞의 논문, 35쪽.

30) 魏英邦, 「『華夷譯語』研究拾零」, 『青海社會科學』 2, 1982.

31) 烏云高娃, 「日本學者對明“四夷館”及『華夷譯語』的研究狀況」, 『中國史研究動態』 6, 南京大學歷史系, 2002.

편찬된 대역(對譯)사전인 『화이역어』에 대해 설명하며 국내외 판본 보존상황을 규명하고 있다³²⁾. 이 연구들을 통해, 『화이역어』의 판본변천, 내용구성과 편성특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화이역어』라는 이름은 교과서의 총칭이다. 해당 언어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회회관역어』, 『고창관역어』 등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사이관에서 일본관을 두지 않았으나 『일본관역어』에 대한 고찰이 보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관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추정하지 못하지만 명 말기에 『일본관역어』가 편찬되었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일본관역어』는 다른 판본과의 어휘차이성도 설명해준다.³³⁾ 언급할 만한 것은 이 논문에서도 사이관 설립 초기에 조선관을 두지 않은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나라 통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도 보인다. 해당 논문에서는 통사의 역사변천을 글의 본줄기로 삼아, 시기별로 통사의 형성, 발전, 인원구성, 민족성분 및 외교관계와 조공제도에서의 양향과 역할을 자세히 다루었다.³⁴⁾ 이 논문을 통해 명대 통사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사이관에서의 통사 양성은 번역과 통역으로 따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물론 사이관은 중국 역사상 첫 번째 공식교육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민족 언어에 통달하도록 통번역인재를 훈련하고 양성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학계에서도 사이관에 대한 연구가 점점 심화되고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단지 다뤘던 학술지 논문 대부분의 분량이 비교적 적어 아쉽다. 이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몇 가지 특징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은 사이관에 대한 설립과 운영상황, 학생과 교사의 충원양상, 사용된 교과서와 학습평가 등을 많이 다루었다. 하지만 각 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드물다. 게다가 사이관 설립 초기에 조선관과 일본관은 두지 않았고 조선어 통사에게 어떻게 양성했는지 알긴 어렵다. 그리고 사이관에서 구체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학생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즉 사이관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사료를 찾기가 어렵다.³⁵⁾

2) 司譯院에 대한 검토

한국 학계의 사역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으로 사역원 자체의 직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다룬 연구는 물론,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사역원에서의 역관교육을 중

32) 劉紅軍, 孫伯君, 「存世“華夷譯語”及其研究」, 『民族研究』 2, 沈陽大學民族古文獻研究室, 2008.

33) 任萍, 「明四夷館中日本館譯語編撰考」, 『日本學論壇』 2, 浙江樹人大學語言學院, 2007, 76쪽.

34) 林杏容, 「明代通事研究」, 暨南大學, 2006.

35) 張秀燕, 「中國歷史上最早的翻譯學校—明朝四夷館」, 『內蒙古農業大學學報』 6, 泉州師範學院外語學院, 2008, 325쪽.

심으로 다룬 연구까지 그 범위와 대상이 다양하다. 또한 조선의 각 시기별로 역관에 대해 다루었던 연구들은 거의 전반적으로 당시 외국어 교육 플랫폼이었던 사역원이라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역관 교육양성에 있어서 사역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 역관연구 성과 일부는 외국어 교육의 역사 변천에서부터 사역원의 직제, 교육, 평가, 교과서까지를 논의하였다.³⁶⁾ 이 연구에는 많은 원시자료가 들어 있어 참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는 사역원이 조선에서 어떻게 기구를 변화해왔는가와 또한 이 변화에 적용하기 위해 역학서(譯學書)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었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³⁷⁾ 조선시대에 사용된 외국어 교재를 일반적으로 역학서라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사역원에서 사용된 역학서에 대해 더 전반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앞의 연구들에서 사역원 외에 또 다른 '이문(吏文)' 교육양성 기구인 승문원(承文院)³⁸⁾이 언급된다는 것이다. 이문은 조선시대 중국과의 외교 문서 및 관청 공문서 등에 사용되던 독특한 한문의 문체(文體)다. 이문은 일반적으로 한문(漢文)으로 쓰이지만 일반적인 한문이 아니고 특별한 형식을 갖춘 관용공문(官用公文)이어서 전문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³⁹⁾ 사대교린의 외교문서를 관장하는 승문원에는 이문교육이 중요한 직능의 하나였고, 따라서 사역원처럼 완전한 교육체제도 갖추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사역원과는 달리 승문원에서는 현장에 통역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 외교문서를 번역하는 인재를 위주로 양성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문서번역을 중심으로 한 사이관이 양성하려는 인재와 더욱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이 밖에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사역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經國大典』, 『通文館志』를⁴⁰⁾ 참고하여 사역원의 운영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역과(譯科)를 비롯한 시험제도를 통해 어떻게 역관이 선발되고 관직에 진출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⁴¹⁾ 그리고 사역원의 다양한 관련 요소들을 모두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역원의 직제와 외교직능에 더 중점을 두어 해당 직무 중에서 역관

36) 林東錫, 「朝鮮時代 外國語 教育에 對한 一考」, 『學術誌』 33, 건국대학교, 1989.

37) 鄭光, 韓相權, 「司譯院과 司譯院 譯學書의 變遷 研究」, 『德成女大論文集』 14, 德成女子大學校, 1985.

38) 승문원은 조선 개국초에는 '應奉司' 또는 '文書應奉司'라 불리던 것이 태종 11년 6월에 '承文院'으로 개칭되었다. (『太宗實錄』 21권, 태종 11년, 6월 19일. "改文書應奉司爲承文院".) 하지만 영조, 정조 이후에는 이문교육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李觀洙, 「朝鮮朝의 吏文教育」, 『국어국문학회』 82, 국어국문학회, 1980, 126쪽).

39) 高京金, 「朝鮮時代培養漢語翻譯官의 特点小考」, 『時代教育』 1, 韓國外國語大學, 2015, 270쪽.

40) 통문관직은 조선시대 사역원의 내력과 고대로부터 외국과의 통교에 관한 사적 및 의절 등의 사실을 수록한 외교서로, 정치적 외교 업무와 경제적 통상 업무, 문화적 문물 교류에 절대적 기본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정승혜, 「『通文館志』와 司譯院 四學」, 『진단학보』 134, 진단학회, 2020, 363쪽).

41) 김유리, 「조선시대 사역원(司譯院)의 운영과 시험제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양성과 외교적 실무 처리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핀 연구도 소개되었다.⁴²⁾ 이 두 석사논문을 보면 사역원에 대한 직능과 교육을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또한 『通文館志』의 전체 구성을 개관하고, 『通文館志』에 나타난 사역원의 직제와 사학(四學), 역학서의 종류에 대하여 시도한 연구도 있다.⁴³⁾ 하지만 일부 연구는 이전 연구들이 사역원에 대한 편제, 교재, 평가 등 단편적이고 직접적인 연구들인데 반해,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수법에서 출발하여 사역원에서 실시되었던 중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명하여 오늘날의 중국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논하였다.⁴⁴⁾

최근에 중국 측도 『朝鮮王朝實錄』을 근거로 사역원의 중국어 교육제도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생도(生徒)채용 제도, 교육관리 제도와 생도승진 제도를 살펴봄으로 사역원의 학생선발제도가 풍부하고 완벽할 뿐만 아니라 꼼꼼하고 효과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⁴⁵⁾ 이 연구들을 통해 사역원의 성숙한 교육제도와 실용적인 교육방법을 및 현대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엿볼 수 있다.

조선전기 역관양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한 연구자로는 백옥경을 꼽을 수 있다.⁴⁶⁾ 그는 기존의 역관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와 과제를 인식하고 조선전기 역관에 관련된 양성제도의 변화와 정비와 추이는 물론, 생도 충원의 대상, 방식과 과정, 그리고 외교활동과 신분변화 동향 등을 꼼꼼하게 다루었다. 이 연구들을 통해 사역원의 운영과 역관양성 상황은 물론, 조선전기 역관들이 당시 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진실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전기 연구에는 역관 스스로에 의한 기록이 『朝鮮王朝實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고 역관의 직무와 활동에 대한 기록도 매우 분산적이며 단편적임을 설명하고 있다.⁴⁷⁾ 이 점을 고려해볼 때 『朝鮮王朝實錄』이나 『經國大典』 등 고대문헌을 더 잘 수집하고 정리하여 잘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역원은 당시 학습대상 언어에 있어서는 사이관과는 달리 '분관(分館)'으로 구별하지 않고, '과목'으로 나누었다. '한학(漢學)', '몽학(蒙學)', '왜학(倭學)', '여진학(女眞學)'이라는 과목을 합하여 '사학'이라 불렀다. 그 중 한학 즉 중국어 대한 연구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이는 외국어 중 가장 중시된 언어가 중국

42) 이효민, 「사역원의 직제와 외교기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2004.

43) 정승혜, 2020, 앞의 논문.

44) 기수진, 「조선조 사역원의 중국어 교육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4.

45) 金美玲, 「朝鮮司譯院漢語教學制度考」, 『科學經濟社會』 4, 南開大學文學院, 2019.

46) 조선전기 역관과 관련 연구들은 백옥경, 「朝鮮前期 譯官研究」, 梨花女子大學校, 2000; 백옥경, 「朝鮮前期譯官養成策과 制度의 整備」, 『역사문화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백옥경, 「朝鮮 前期 譯官의 職制에 대한 考察」, 『梨花史學研究』 1, 이화사학연구소, 2002; 백옥경, 「조선 전기 역관의 충원에 대한 고찰」, 『朝鮮時代史學報』 26, 조선시대사학회, 2003; 백옥경, 「朝鮮前期譯官研究」, 『韓國研究院』, 2006. 등 있다.

47) 백옥경, 2000, 앞의 논문, 9쪽.

어였기 때문이다. 사이관 각 관에 대한 연구에 균형이 잡히지 못한다고 하면 사역원은 더욱더 언제나 한 언어 즉 중국어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어 역관양성을 위한 교과서의 개발과 중국어 습득을 위한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있으며,⁴⁸⁾ 일부 논문에서는 문헌기록을 근거로 조선시대 중국어 역관 선발을 위한 출제서(出題書)의 범위와 역과 한학의 시제(試題) 및 평가 기준을 살펴보았다.⁴⁹⁾ 이 시제는 영조 대의 시제이었는데 역관들이 치른 시험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을 엿 볼 수 있다.

어떤 글에서는 사역원 역학서 중 가장 광범위하게 쓰인 것으로 판단되는 한학서 『노걸대(老乞大)』를 중심으로 조선의 외국어 교육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⁵⁰⁾ 또한 사역원에서 이루어진 중국어 교육을 통해 당시 중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고, 특히 구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채택된 『노걸대』를 비롯한 회화 교재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⁵¹⁾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한어 역학서 즉 중국어 회화 교재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들을 통해 조선시대에는 중국어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특히 역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재 내용상 구어 교재를 위주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바탕으로 중국 학계의 기존 조선과 명나라와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조선 초기 중국어 통역과 관련된 중국인들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조선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조선 초기 귀화한 중국인이 조선의 중국어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고찰한 연구도 눈에 띄었다.⁵²⁾ 이 논문을 통해 조선전기 교수 즉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충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사역원은 사이관처럼 외교임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외교인재를 양성하는 외국어 학교이기도 한다. 이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역원의 직제나 운영, 채택된 교과서, 학습평가제도 등에 대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전기 교사와 학생의 충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조선전기의 분산적인 사료와 관련 연구를 정리함으로써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선전기 범전에 사역원의 직제와 직능이나 시험제도 등이 비교적 자세히 실려 있는데 반해, 사이관과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보인다.⁵³⁾

48) 梁伍鎭, 「한국에서의 중국어 역관 양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중국언어연구』 11, 한국중국언어학회, 2000.

49) 梁伍鎭, 「朝鮮時代 中國語 譯官 선발을 위한 出題書와 評價 方式 = 論朝鮮時期選拔中國語譯官的出題書及評價方式」, 『中國語文論譯叢刊』 19, 중국어문논역학회, 2007.

50) 김성주, 「역학서 언해와 조선의 외국어 교육」, 『동악어문학』 58, 동악어문학회, 2012.

51) 장향실,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국제한국어교육』 4,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2018.

52) 박종연, 2016, 앞의 논문.

3) 四夷館과 司譯院의 비교 검토

사이관과 사역원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들은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다수 소개된 데 반해, 서로를 비교하면서 다룬 연구는 2005년도 전후로 소개된 두개의 연구 외에는 전무하다.

중국에서는 오운고와 교수가 14~18세기 동북아의 '역학(譯學)'기구 즉 명대의 사이관과 조선시대의 사역원을 성격, 임무, 학제, 교육내용 등을 비교하면서 고찰하였다.⁵⁴⁾ 이 글에서는 먼저 사이관의 설치와 위치, 그리고 청나라까지의 변천과 사역원의 설치와 직제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두 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대조하였다. 공통점으로는 기관의 성격이나 직능, 입학의 조건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차이점은 교육대상 언어와 교육 내용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대상이 다르다. 즉 사이관은 여러 가지의 언어(夷語)를 교육대상으로 삼았는데 사역원은 사학을 두었는데도 언제나 한학을 강조해온 것이다. 그리고 시험 방법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결론 부분의 논의에서는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축약하여 소개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언급한 논지에 설득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석사논문 한 건을 찾을 수 있는데, 주로 사이관과 사역원의 외교와 설치, 내부 구조, 교육체제를 비교적 자세하게 비교분석하였다.⁵⁵⁾ 이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에는 첫째, 두 기관은 그 성격에 있어 양국의 조공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 상당한 수준의 구조적인 체제와 교육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다만 사이관은 중국 최초의 언어 교육기구로 처음 나타난 기관이었다면⁵⁶⁾, 사역원은 이전 시기의 기관을 계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역원의 역관은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사이관의 통사는 통역 이외의 업무, 특히 정치와 외교실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⁵⁷⁾ 둘째, 그 교육방식에 있어서는 두 기관 모두 학생의 선발과 교사의 채용에 있어 공통점을 갖고 있었지만, 학생의 응시제도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 게다가 사역원이 한어 편향된 것에 비해, 사이관은 상대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균형 있게 실시했다는 점, 그리고 사역원에서는 주로 실용적인 구어를 강조한 교육이 이루어

53) 김유리, 2013, 앞의 논문, 12쪽.

54) 烏云高娃, 「14_18世紀東亞大陸的_譯學_机构」, 『黑龍江民族叢刊』 3, 中國社會科學院歷史所, 2003.

55) 潘心荷, 「通譯 養成機關인 朝鮮의 司譯院과 明나라 四夷館의 比較 研究」,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05.

56) 원세조 26년(1289) 회회국자학(回回國子學)이 설립된 것은 국가로부터 대규모로 통역인재를 양성한 최초의 예로 들 수 있으나 그 정책과 수업과정을 찾기는 힘들다. (張美平, 2011, 앞의 논문, 63쪽).

57) 사이관의 통사는 외교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통사와 사신간의 교체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지 않았다고 말해준다 (林杏容, 2006, 앞의 논문, 38쪽). 따라서 사이관의 통사도 통역에만 집중하여 활동하지 않고 사신들과 밀접한 이익관계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어진 반면, 사이관은 문서 번역을 위주로 한 교육을 강조하였다는 점 등을 밝혔다. 이 연구는 사이관과 사역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주로 두 기관의 직능, 학생과 교사의 선발과 관리, 그리고 사용된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시험제도 및 교과서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양성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두 기관이 설치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도 다루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두 기관이 무엇을 계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과 한국 학계에서는 사이관과 사역원에 대한 각각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여러 연구들은 각 기관의 운영과 설립, 학생과 교사의 충원, 교과서의 사용, 학습평가 제도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여 15~16세기 통사와 역관 교육양성을 비교적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구의 기원과 변천, 근무인원의 관리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방향성 제시도 심도 깊게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15~16세기 통사와 역관 및 그들을 양성하는 학교에 대해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두 기관의 직능에서 보면 그들은 당시 외교실무를 처리하는 기구이기도 하고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언어학교이기도 한다. 그리고 사역원의 역관은 문신이 없을 때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사이관의 통사도 통역 이외의 외교업무를 하고 사신들과의 이익관계를 밀접하게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이관은 중국 최초의 언어 교육기구로 처음 나타난 기관이었는데 사역원은 이전 시기의 기관을 계승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둘째, 두 기관의 학생과 교사 충원에서 보면 모두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집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있다. 유가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통사와 역관은 기술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더구나 초기에는 관리와 교육 체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학생과 교사의 정원과 구성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부 지원한 학생은 역어공부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않고 목적도 단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에는 두 기관 모두는 현지인교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셋째, 두 기관의 사용된 교재에서 보면 사이관에서는 『화이역어』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사역원에서는 다양한 교과서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화이역어』는 해당 외국어 어휘와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형식으로 편찬된 교과서인데 책이라기보다는 사전과 더 같다고 본다. 하지만 사역원에서는 회화서, 경

서, 운서 및 법전 등을 교재로 삼고 사용해왔다. 이렇게 보면 사이관은 문서 번역을 위주로 한 교육을 강조한 반면, 사역원에서는 주로 실용적인 구어와 전통 문화를 강조한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넷째, 두 기관의 학습평가에서 보면 학제와 평가방식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이관에는 과거에 속하지 않은 회고(會考)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제가 9년이였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역관을 공식적인 평가시험은 과거에 속한 잡과의 하나인 역과였고 학제는 과거와 같은 3년이였다. 그리고 평가방식을 통해 사이관에서는 번역과 통역은 따로 평가를 받았는데 사역원은 통역인재를 위주로 양성하고 평가를 뒤이어 장학, 진승체제가 잘 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학습대상 언어를 보면 종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두 기관에서 학습대상 언어의 수가 다르다. 사이관에서는 10개 언어를 가르쳤는데 사역원에서는 4개만 공부해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두 기관은 학습대상 언어에 대한 중점도 다르다. 사역원이 한어 편향된 것에 비해, 사이관은 상대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균형 있게 실시했기 때문이다.⁵⁸⁾ 특히 사이관에서는 조선관을 두고 조선어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사역원에서는 언제나 한어 교육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있었다는 점과 뚜렷한 대조가 된다.

사실상 사역원의 설립배경이나 채택된 교재나 학습평가 방식 등을 보면 조선시대에 중국어 교육과 중국어 역관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원시사료에서 명 전기 조선어 통사의 활동이 보이지만 조선어 통사양성과 관련된 기록을 찾긴 어렵다.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를 고려해볼 때도 15~16세기 명나라의 사이관에서 조선어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난 원인은 명이 조선에 대한 인식과 조선의 '사대교린'이라는 외교정책과 근본적인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사이관과 사역원 두 기관을 전반적으로 비교하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마저도 통사와 역관의 교육양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보다는 두 기관의 성격이나 직능 등 일부분만을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어, 두 교육기관의 설립상황과 학습평가제에 대한 비교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두 기관의 학생 충원과 교사 채용을 다루었으나 비교적 세부적인 특징들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또한 15~16세기 사용된 교재에 대한 특징과 종류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이관과 사역원에 대해 진일보한 비교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이관과 사역원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설립되어 그 성격과 직능이 비슷하며, 외교무대로 통역인재를 배출하는 것에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선행

58) 하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사이관의 10관중에서 달단관(韃鞢館)과 회회관(回回館)이 다른 관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최형섭, 2012, 앞의 논문, 125쪽).

연구의 비교 검토를 통해 15~16세기 두 기관의 성격과 교육양성에 대해 역시 몇 가지 비교할 만한 특징이 나타나 있음을 찾아낼 수 있었다. 더구나 여태까지 두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관계로 15~16세기 명과 조선의 통사와 역관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비교하면 양국의 통번역인재 양성에 있어서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는지 더욱더 입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15~16세기 통사와 역관의 양성에 있어서 두 기관이 한 역할과, 통사와 역관의 교육양성에 대한 전체적인 면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식을 바탕으로 사이관과 사역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통사와 역관의 교육상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기본문헌사료를 통해 사이관의 설립과 운영, 교사와 교육생 충원, 학습교재와 평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사이관 설립배경과 운영상황을 다룸으로 명이 사이관을 설치한 원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사이관의 역사 연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교사와 역자생(譯字生) 충원을 다룸으로 명초 통사의 사회적 위상을 규명할 것이다. 셋째, 학습교재와 평가를 통해 명나라 통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서인 『화이어어』의 편찬, 내용구성 및 판본 등 그의 특징을 발견해보자고 한다. 또한 평소에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테스트와 마지막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졸업시험을 규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기본문헌사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역원의 설립과 운영, 교사와 교육생 충원, 학습교재와 평가를 소개하고 다루어볼 예정이다. 첫째, 사역원 설립과 운영 및 직제를 다룸으로써 조선이 사역원을 설치한 상황과 역사 연혁을 알아볼 수 있다. 더하여 사역원의 직제에 대한 서술을 통해 두 기관의 운영상황을 엿보고자 한다. 둘째, 교사와 생도 충원을 다룸으로 조선초 역관의 사회적 위상을 규명할 것이다. 셋째, 학습교재와 평가를 다룸으로 조선시대에 나타난 다양한 종류 역학서의 종류와 발전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노걸대)』를 중심으로 사역원에서 사용된 교재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역관이 되기 위한 시험과 장학과 승진을 하도록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치른 시험도 규명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몇 가지 측면으로 사이관 통사와 사역원 역관의 양성상황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주로 상대방 언어에 대한 비교, 통사와 역관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비교, 사용된 교재 상황에 대한 비교 및 통사와 역관이 되기 위한 평가에 대한 비교가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명과 조선의 외교정책에 따라 상대방 언어에 대한 중점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힐 것이다. 게다가 15~16세기 통번역인재의 사회적 위상은 어땠는지, 사용된 교재는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평가 방식과 내용은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II. 明 사이관의 통사 양성

1. 사이관의 설립과 운영

명나라는 건국이후 정치를 안정시키면서 주변나라와 민족들에게 적극적으로 동북아의 주권을 선언하고 그들에게서 다시 강국의 자신감을 되찾고자 하였다. 게다가 명은 많은 국가들은 물론이고, 주변 각각 소수민족들과의 교류를 끊임없이 해왔다. 정치, 경제, 문화적인 교류가 강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한 인재들이 절박하게 필요하였을 것이다. 사이관은 바로 이러한 시대배경 하에 설립되었다. 구체적인 설립배경은 아래의 몇 가지 점에서 알아볼 수 있다.

첫째, 명이 동북아시아 각 나라들과 빈번하게 교류하기 위한 현실적인 요구는 사이관 설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명대 초에 주원장(朱元璋)을 비롯한 한족 지주 계급이 그의 통치를 유지하고 새로운 정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내 생산이 회복되고 정치질서가 안정되는 것을 무척 중시해왔다. 북서쪽 변경의 방어를 강화하고 몽골 잔여세력의 대두를 방지하면서, 주변 각 민족들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평화외교 정책을 채택하였다.

①주변에 있는 여러 이민족들은 모두 산과 바다에 가로막혀 외딴 곳에 있다. 그들의 땅을 얻더라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정복하더라도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주제넘게 우리 국경을 침입하는 것도 좋은 고민이고, 우리가 명분없이 먼저 토벌하는 것도 고민이다. 나는 후손들이 명의 국력이 강성에 의지하고 이유없이 군대를 동원하여 백성들을 쳐 죽일 까봐서 제일 걱정이다. 일시적인 승리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 지금 토벌하지 않는 많은 이민족의 명단을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보여주겠다...59)

위의 사료를 보면 건국 초에 주원장은 원나라가 타국과 전쟁을 벌여 실패한 교훈을 받아들여,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족을 중심으로 세운 명 정권은 주변 나라들이든 민족들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夷'로 삼아,60) 그리고 그들의 땅을 얻더라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고 백성들을 정복하더라도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따라서 강한 국력으로

59) 朱元璋, 『皇明祖訓』, 祖訓首章. “四方諸夷, 皆限山隔海, 僻在一隅. 得其地不足以供給, 得其民不足以使令. 若其自不揣量, 來擾我邊, 則彼爲不祥. 彼既不爲中國患, 而我興兵輕伐, 亦不祥也. 吾恐後世子孫, 倚中國富強, 貪一時戰功, 無故興兵, 致傷人命, 切記不可 今將不征諸夷國名, 開列於後 ...”

60) 중국사람들이 '이(夷)'에 대한 인식은 이미 서주(西周)부터 이루어졌다. 주나라의 입장에서는 서주의 수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혈연관계가 없는 민족들을 모두 '이'라고 여겼다 (付林鵬, 「四夷認知的形成與華夏觀念的確立」, 『北方論叢』 6, 湖北文學理論與批評研究中心, 2020, 23~24쪽).

터무니없이 군사를 동원해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간절히 당부하였다. 그리하여 1369년에 15개의 나라들을 토벌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였다. 즉 조선, 일본, 대유구(大琉球), 안남(安南), 소유구(小琉球), 진랍(眞臘), 섬라(暹羅), 점성(占城), 소문답랍(蘇門答臘), 서양(西洋), 조와(爪哇), 팽형(彭亨), 화면(花面), 삼불제(三佛齊), 발니(淳泥)가 있었다.⁶¹⁾ 이것은 인접 연해안 국가들을 무마하기도 하고 명초기에 해외국가들에 대한 평화적인 외교정책이도 한 것이다.

이러한 평화를 추국하는 외교 정책으로 인해, 명과 이웃나라들의 '조공무역(朝貢貿易)'을 중심으로 전개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로 수많은 비단, 도자기, 금과 은 등으로 다른 국가의 향료, 진주, 보석 및 노예 등을 바꾼 것이다. 게다가 명나라가 수행한 조공무역은 '후왕박래(厚往薄來)',⁶²⁾ 즉 국제교류에 있어서 적게 받고 후하게 베푸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손해볼 것이 없는 거래였고, 또한 조공품(朝貢品)에 면세의 혜택도 받을 것이었다. 사신들이 중국으로 가져온 물건은 그 가격에 따라 명 정부가 60%까지만 사들이고 나머지는 세금 없이 국내에 자유스럽게 유통할 수 있었다는 혜택이었다.⁶³⁾ 그러므로 홍무(洪武) 연간에 조공하러 온 국가와 조공 횟수는 점차 많아지고 있었다. 게다가 조공을 바치러 온 나라는 아래의 사료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표문이 있어야 하였다.

②이 해(1380년) 유구, 일본, 안남, 점성, 진랍, 조왜국에서 공물을 바치러 왔는데 일본은 표문이 없다는 이유로 물리쳤다.⁶⁴⁾

위의 『명사』에 남겨진 기사를 통해 조공하러 온 나라는 '표(表)'를 같이 바쳐야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홍무 13년(1380) 여러 나라에서 공물을 바치러 왔는데, 그 중 일본은 표문이 없어 거부당한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공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명은 주변민족과의 교류를 강화시켰는데 문제가 생겨났다. 당시 바친 표문들은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한자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⁶⁵⁾ 그리고 사신을 접대하는 현장에서도 통역을 해 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키려 하는 과정에서는 대상 언어에 능통한 인재의 양성은 필수적이었다.

또한 명초기에 여러 차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사신들을 보내 방문했고

61) 琉球는 오늘날 오키나와, 安南과 占城은 오늘날 베트남의 일부, 眞臘은 오늘날 캄보디아, 暹羅는 오늘날 태국, 西洋은 오늘날 인도의 일부, 彭亨은 오늘날 말레이시아의 일부, 花面은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일부, 三佛齊는 오늘날 말레반도, 淳泥는 오늘날 브루나이를 가리킨다.

62) 『禮記』, 中庸. "朝聘以時, 厚往而薄來, 所以懷諸侯也."

63) 『明太祖實錄』 卷45. "若附至蕃貨欲與中國貿易者, 官抽六分, 給價以償之, 仍除其稅."

64) 張廷玉, 『明史』, 卷18. "是年, 琉球, 日本, 安南, 占城, 眞臘, 爪哇入貢, 日本以無表却之".

65) 최형섭, 2012, 앞의 논문, 113쪽; 胡秋碧, 2008, 앞의 논문, 10쪽.

그 중 가장 중요한 방문으로 지적되는 것은 명 영락~선덕(永樂~宣德) 연간 정화(鄭和)에게 명하여 중국과 외국의 문화와 경제 교류를 촉진시키도록 일곱 차례나 남양·인도·이란 등 30여개 나라를 항해하도록 한 사실이었다. 정화가 서쪽 바다로 간 것은 세계항해사의 이정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은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나아가 아프리카와의 정치와 경제 교류에 많이 기여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연히 많은 통역인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⁶⁶⁾

둘째, 명과 주변 민족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 교류가 빈번하게 된 것은 사이관 설립의 국내조건이 되었다. 명나라는 건국 후에 무력으로 소수민족의 반란을 진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주변 민족들을 무마하는 외교적 행위도 매우 중시해왔다.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③태조가 말하기를: "오랑캐는 우리와 성품이 다르지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만약 충분히 무마하고 진심으로 대해주면서 예의와 이치를 가르쳐주면 그들이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나? 이것은 바로 이른바 '다스리지 않음으로 다스리다'는 말이야, 어찌서 군사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나?"⁶⁷⁾

홍무 원년 8월에 후광행성(湖廣行省)인 양경(楊璟)이 광서(廣西)에 시찰하고 왔는데, 그쪽 토착민이 미개하기 때문에 그들을 순조롭게 다스리기가 힘들어 무력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하지만 명태조가 그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기만 하면 무력으로 토벌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고, 중국에는 그들 스스로 항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런 유화적인 정책으로 인해, 명대에는 원대에 비해 민족관계가 개선되고 있었다. 명은 몽골, 위구르, 여진, 장(藏), 묘(苗) 등 소수민족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조공하러 온 사절단이 많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문서번역임무도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임무에 숙달된 인재가 필요하였다.

셋째, 사이관의 설립은 명성조 주체(朱棣)가 적극적으로 추진시킨 것과 많은 관련이 있었다. 가까스로 세운 왕조가 장시간 존속해 나가도록 주원장을 비롯한 통치자들은 휴양생식(休養生息)이라는 정책을 취하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외와의 교류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주체는 왕위에 오르자 '사이(四夷)'의 정보를 잘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쓰는 말과 글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가 절실히 필요했고 외국어 인재양성 교육에 매우 중시하였다. 아래의 사료를 통해 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66) 사료를 보면 정화 선대 중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통사는 마환(馬歡), 곽승례(郭崇禮) 및 하삼(哈三)이었음을 알 수 있다 (林杏容, 2006, 앞의 논문, 23쪽).

67) 『明太祖寶訓』 卷6. "太祖曰: "蠻夷之人性習雖殊, 然其好生惡死之心未嘗不同, 若撫之以安靜, 待之以誠意, 諭之以道理, 彼豈有不從化者哉? 此所謂以不治治之, 何事于兵也!"

④ 주변의 민족이나 국가들이 공물을 바치거나 진술할 때는 사정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적혀 있는 국서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번역해야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천천히 해도 되어 보이지만 사실 매우 급합니다. 그 일에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어 보이지만 실제로 중요합니다. 만약 이민족들이 사정을 진술하러 올 때 그들의 말이나 글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들과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반란을 불러 일으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려에 문황제가 일부러 사이관을 설립하였던 것입니다.⁶⁸⁾

명초기에 대학사(大學士)인 구준(邱浚)은 문황제(文皇帝)가 사이관을 설립한 목적을 강조하였다. 당시 주변의 민족이나 국가들이 공물을 바쳤을 때는 사정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적혀 있는 국서(國書)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명 정부가 잘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 국서를 중국어로 번역해야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주변민족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과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지 몰라 걱정이 되었다. 문황제는 이런 우려로 인해 통번역인재 양성기구인 사이관을 설치하였다. 이 구준(邱浚)이 언급한 설립 목적은 려유기(呂維祺)의 관점과 거의 일치한다. 그도 '應對九夷壯觀一統' 즉 주변 다른 민족을 원만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관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⁶⁹⁾

이밖에 만력(萬曆) 6년(1578) 사이관 감독업무를 맡았던 왕종재(王宗載)가 쓴 『四夷館考⁷⁰⁾』 서문에서도 명나라 후기 통치자가 외국어 공부에 대해 중요하게 여겼음을 볼 수 있다.

⑤명 왕조는 태조 高皇帝 때부터 뛰어난 무용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워 만국을 뒤덮게 되었다. 여러 뛰어난 황제가 연이어 나타나면서 문명이 널리 퍼져 배와 수레를 타고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藩國이라 칭하며 다투어 진귀한 보물을 바치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 조공을 바치러 오는 사방 오랑캐 나라의 성대함은 예로부터 이런 적이 드물었다. 외진 변경 지역의 오랑캐를 살펴보면 교화가 미치지 못하고 언어와 문자도 각각 다르다. 그러니 周代 사방 오랑캐의 사신을 접대 통역하던 象胥와 같은 관리가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대한 덕을 드날리고 오랑캐의 사정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사이관의 건립은 그 생각이 매우 원대한 것이다.⁷¹⁾

68) 邱浚, 『大學衍義補』 卷一四四. "其來朝貢及其陳說、辨訴、求索各用其國書, 必加翻譯然後知其意向之所在 蓋此一事似緩而實急, 似輕而實重, 一旦外夷有事上書來言其情, 使人人皆不知其所謂, 或知之而未盡, 則我所以應之者豈不至相矛盾哉? 非惟失遠情, 而或至啓邊釁者亦有之矣, 我文皇帝專設官以司之, 其慮遠哉".

69) 呂維祺, 『四譯館增定館則』 卷12.

70) 『四夷館考(사이관고)』는 학생의 참고서인데 오늘날의 영어전공 학생이 배우는 『英美概況』, 『中英中美關係史』 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張文德, 「王宗載及其『四夷館考』」, 『中國邊疆史地研究』 3, 南京大學歷史系, 2000, 92쪽).

명 왕조는 태조 고황제(高皇帝)대부터 뛰어난 무용(武勇)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워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아울렀다. 연이어 여러 뛰어난 황제가 나타나면서 문명이 널리 퍼져 배와 수레를 타고 찾아온 나라들은 교류를 원하며 스스로를 번국(藩國)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다투어 진귀한 보물을 바치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 조공을 통한 주변 국가와의 외교가 확대되는 바로는 예로부터 이런 적이 드물었다. 그런데 명나라는 외진 변경 지역의 민족과 나라들을 살펴보면 교화가 미치지 못하고 언어와 문자도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 주대(周代) 사방 민족의 사신을 접대 통역하던 상서(象胥)와 같은 관리가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성대한 덕을 드날리고 '이(夷)'의 사정을 전달할 수 없겠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왕종재는 사이관의 건립에 대한 명성조의 생각이 매우 원대한 것이라고 본다. 명 후기에 이르러, 민족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에 대한 통제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정세에 대한 파악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왕종재는 주변 각 민족이나 국가들의 편제 역사와 명과의 교제를 정리함으로 '지피지기'를 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주나라 상서(象胥)와 같은 관리가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덕을 드날리고 이(夷)의 사정을 전달할 수 없다는 우려로 명 정부가 사이관에 다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려고 하였다.⁷²⁾

이상에서 언급한 사료들과 이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사이관의 설립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명정부가 주변 민족과 나라들에 관심을 나타낸 주된 이유로는 주권의 선포와 국력의 과시로 추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쓰는 말을 알아듣고 적는 문서를 보고 이해해야 상대방의 정세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외교 정책을 잘 보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역사상 첫 번째로 되는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기관인 사이관이 설립되었다.

영락 5년(1405) 통번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명 정부는 사이관을 설립하였다. 그 주된 직능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들과의 오가는 문서를 번역하고 그들의 언어에 능통한 자를 가르치는 것이다. 아래 사이관 설립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자.

⑥사이관의 감독은 정4품인 太常寺少卿 1명이 맡아 번역 업무를 관장하였다. 永樂 5년(1407)부터 외국에서 조공을 바치러 올 때 특별히 蒙古, 女直, 西蕃, 西天, 回回, 百夷, 高昌, 緬甸 8관을 설치하고 譯字生과 通事를 두어, 통사는 처음에는 通政使司에 속해 있었고 언어와 문자를 통역하도록 했다. 正德 연간(1506-1521)에는

71) “國朝自高皇帝以神武肇基，奄有萬國。列聖繼作，文命覃敷。舟車所至，罔不稽首稱藩，獻琛恐後。王會之盛，蓋自昔罕侔矣。顧遐陬裔壤，聲教隔闕，語言文字，各成一家。典象胥者不有專業，何以宣聖德而達夷情。此四夷館之設，猷慮甚宏遠也”。(최형섭, 2012, 앞의 논문, 113, 114쪽에서 재인용). 이 서문의 원본은 못 찾았다.

72) 張文德, 2000, 앞의 논문, 99쪽.

八百館을 추가로 두었고, 八百國의 蘭者哥가 공물을 바쳤다. 萬曆연간(1573-1619)에는 다시 暹羅館을 증설하였다.⁷³⁾

위의 사료에는 사이관 설립의 연도 및 각 '館'의 증설상황이 담겨 있다. 영락 5년(1407) 외교업무 중의 번역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조공국(朝貢國)들과 원만한 무역과 교류를 완수하도록 해당 대상 언어에 맞게 8관이 설치되었다. 즉 몽고관(蒙古館), 여직관(女直館), 서번관(西蕃館), 서천관(西天館), 회회관(回回館), 백이관(百夷館), 고창관(高昌館), 면전관(緬甸館)이었다. 몽고관은 달단관이라고도 하였고 여직은 여진을 뜻한다. 서번은 오늘날의 티베트, 서천은 인도 지역을 가리킨다. 회회관에서는 당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남해 등 방대한 지역에서 사용되던 페르시아어를 취급하였다. 백이는 운남(雲南) 서남 지역에 거주했던 태족(傣族)을, 고창은 원대 위구르(畏兀兒), 명대에 화주(火州)라고 불렸던 위구르 지역을, 면전은 미얀마를 가리킨다. 정덕(正德)과 만력(萬曆)연간에 이르러서는 팔백관(八百館)과 섬라관(暹羅館)이 증설되고 10관으로 확대되었다. 팔백이란 지금의 태국 북부 치앙마리(淸邁)에 위치하고 있던 나라이다. 섬라는 오늘날 태국을 가리킨다. 게다가 이 설립상황의 기록을 통해서도 사이관 설립초기에 이미 통역과 번역을 따로따로 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관에는 조선관이 없었다는 것이다.⁷⁴⁾

청나라 건국 후에는 통번역인재를 양성하도록 명의 사이관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계속해서 사용해왔다. 그 직제와 직능이 존재했는데 각 관의 설치와 이름까지 약간 바뀌었다. 아래의 사료를 참고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자.

⑦順治 원년에, 회동사역관은 회동관과 사역관 두 관으로 분리되어 있다. 회동관은 예부에 속하고 …… 사역관은 한림원에 속해 있고 太常寺 漢少卿 한명에게 제독으로 맡겼다. 사역관에는 回回, 緬甸, 百夷, 西番, 高昌, 西天, 八百, 暹羅 8관으로 나뉘어 있고 거기서 멀리 조공하러 온 문서를 번역하도록 하였다.⁷⁵⁾

위의 기사에 의하면, 순치(順治) 원년에 이르러 청 정부의 외교기관은 각 나라의 사신들을 접대하는 회동관⁷⁶⁾과 외교임무를 처리하는 사이관 두 기구로 구

73) 張廷玉, 『明史』, 志第五十, 職官三. “提督四夷館. 少卿一人, 正四品掌譯書之事. 自永樂五年, 外國朝貢, 特設蒙古、女直、西番、西天、回回、百夷、高昌、緬甸八館, 置譯字生、通事, 通事初隸通政使司, 通譯語言文字. 正德中, 增設八百館. 八百國蘭者哥進貢. 萬曆中, 又增設暹羅館.”

74) 崔桂花, 「조선초기 漢語文政策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56쪽.

75) 趙爾巽, 『清史稿』, 志八十九. “順治元年, 會同四譯分設二館. 會同館隸禮部 …… 四譯館隸翰林院, 以太常寺漢少卿一人提督之. 分設回回, 緬甸, 百夷, 西番, 高昌, 西天, 八百, 暹羅八館. 以譯遠方朝貢文字”.

76) 『欽定大清會典則例』 卷九十五, 禮部, 主客清吏司, 賓館, 館舍. “順治初設會同館以待外國貢使.”

성되어 있었다. 사이관은 한림원(翰林院)에 속해 있고 다른 민족이나 국가들과 오가는 문서업무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이관' 세 글자 중의 '이'자가 '역'자로 바뀐 것이다. 중국 고대에 '이'자는 항상 중원을 중심으로의 주변 소수민족이나 국가들을 가리켜 폄하한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명나라 대에 '이'로 불렀다가, 이후 중국의 통치자가 된 청은 그 이름이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관'으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원래 사이관의 10관 중에는 여진과 몽골 두 관을 폐지시켰는데 다른 관이 그대로 유지되어 8관으로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름을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통치자가 된 만주족들은 자기가 쓰는 여진어를 '이어(夷語)'로 여기고 다른 소수민족 언어와 똑같이 취급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⁷⁷⁾ 모고관의 폐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 당시 몽골어를 구사할 줄 아는 만주사람들이 비교적 많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⁷⁸⁾ 이렇게 하여 사이관은 청나라에 계속해서 통번역인재의 양성과 외교업무의 처리에 책임을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교육기능이 사실상 이미 많이 약화되었다.

⑧지금 사역관을 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서 실제로 폐기가 된 것입니다. 차라리 제거하는 것은 더 낫습니다. …… 사역관을 예부 회동관에 합병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건륭 13년에, 사역관을 회동사역관이라는 이름으로 예부에 합병되었다. 원래의 8관은 서역과 백이 두 관으로 바뀌었다…….광서 29년에 폐지되었다.⁷⁹⁾

위의 두 사료에 의하면 사이관은 청나라 대에 계속 사용되었고 재정비도 하였으나 교육기능이 여전히 완전히 발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료들에서 언급했듯이 건륭 13년(1748)에 이르러, 사이관은 실제로 폐물이 되어버리고 사이관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부 회동관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통사양성과 외교업무는 한 부서인 '회동사역관'가 맡았다. 통번역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서 29년에 이르러 마침내 폐지되었고, 존재한지 거의 500년이 된 사이관은 역사무대에서 퇴장하였다.

사이관은 언제나 한림원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정통 6년(1441)에 한림원과 문연각(文淵閣)이 분리하여 따로 일을 한 후부터 점차 내각(內閣)이 한림원을

77) 韋紅萍, 「明清時期的東南亞語種人才培養」, 『東南亞縱橫』 7, 廣西民族大學國際教育學院越南語教研室, 2012, 50쪽; 胡秋碧, 2008, 앞의 논문, 14쪽. 하지만 일부 연구자는 만주사람들은 여진관 폐지의 원인은 일찍부터 여진문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烏云高娃, 劉迎勝, 2002, 앞의 논문, 63쪽).

78) 胡秋碧, 2008, 앞의 논문, 14쪽. 烏云高娃, 劉迎勝, 2002, 앞의 논문, 63쪽.

79) 『欽定大清會典則例』 卷九十五. “諭提督四譯館, 以今視之, 實爲廢冗閑曹, 无所事事, 不如裁之爲便 …… 准將四譯館歸并禮部會同館”. 趙爾巽, 『清史稿』, 志八十九. “乾隆十三年, 省四譯館入禮部, 更名會同四譯館, 改八館爲二, 曰西域, 曰百夷……光緒二十九年省”.

주관하기 시작하였다. 즉 명목적으로 사이관은 한림원 아래의 기구였으나 실제로는 내각이 관장한 것이었다.⁸⁰⁾ '구이(九夷)' 즉 한족 이외의 민족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사이관은 두 가지 기본 직능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통번역인재 양성, 그리고 조공 문서 검사와 번역이다.⁸¹⁾ 교육직능은 통번역인재에게 외국어를 가르친 것이고, 명나라의 통번역인재 대부분은 사이관에서 훈련을 받고 근무지에 나선 것이었다. 조공문서의 검사와 번역 같은 경우는 아래의 사료를 통해 볼 수 있다.

⑨ 각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 올 때 고칙(詔敕)이 있으면 고칙을 조사하고 감적(勘籍)이 있으면 감적(勘籍)을 조사한다.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토관(土官)이 조공하러 올 때도 감적(勘籍)을 조사해야 한다. 그들은 갈 때는 금으로 두른 칙유(敕諭)를 휴대하고 이것은 동부(銅符)와 비슷하다. 통역과 번역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사이관에 보내 처리한다. 이로 역자생과 통사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⁸²⁾

위의 기사에는 외국에서 조공하러 온 사신이 올 때마다 사이관이 해야 할 일이 실려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사신이 조공하러 오면 임의로 입국해서는 안 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입국할 수 있었고, 문자적인 심사나 번역은 사이관의 역자생이 맡았으며 통역과 접대는 통사가 맡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⑩ 회회관의 사신들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회회문자를 번역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이전에는 회회관은 항상 暹羅와 그 주변 나라의 표문을 대역하였다.⁸³⁾

그리고 위의 사료를 보면 만력 연간에 회회 사신들이 많이 왔다는 점, 더하여 회회 문서의 번역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온 사신이 가져온 표문도 번역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들로 판단할 때 문서번역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2. 교사와 교육생 충원

사이관에서 충원한 학생은 공부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 임무도 달라질 수 있었다. 그 임무는 바로 통역과 번역인데 통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통사'라고 부르고

80) 廖大珂, 孫魏, 2016, 앞의 논문, 82쪽.

81) 呂維祺, 『四譯館增定館則』 卷12. "本館世業番書, 職專習譯, 書寫敕諭, 辨驗來文, 應對九夷."

82) 張廷玉, 『明史』 志48, 職官一. "各國使人往來, 有詔敕則驗詔敕, 有勘籍則驗勘籍, 毋令闕入. 土官朝貢, 亦驗勘籍. 其返, 則以鏤金敕諭行之, 必與銅符相比. 凡審言事, 譯文字, 送迎館伴, 考稽四夷館譯字生、通事之能否, 而禁飭其交通漏泄."

83) 呂維祺, 『四譯館增定館則』 卷13. "回回館貢使煩繁, 文字難譯, 先年常令代譯暹羅諸國表文."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역자'라고 불렀다.⁸⁴⁾ 사이관은 문서 번역을 위주로 한 교육을 강조하였으나 통역인재 양성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⁸⁵⁾ 통사든 역사든 학생으로 충원할 때는 모두 '역자생'이라고 지칭하였다. 역자생의 선발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그 자격과 범위가 변화를 겪어왔는데 크게 국자감생(國子監監生), 관민자제(官民子弟), 세업자제(世業子弟)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 사료를 참고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 건국 초에 외국어를 공부한 사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태학에 있는 어리고 우수한 감생을 뽑아서 충원시키도록 하였다.

영락 연간에 舉人과 監生을 선발하여 주변민족들이 쓰는 말을 공부하게 하였다.

영락 초 禮部에 명하여 국자감생 蔣禮 등 38명을 선발하여 한림원에 예속시켜 번역을 배우도록 했다. 매달 쌀 1석을 지급하였고 과거 시험이 열리면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는데 지은 글을 번역했다. 과거에 합격하면 진사 출신으로 인정하였다.⁸⁶⁾

위의 세 기사는 한결같이 사이관 설립 초기에 역자생 충원의 상황이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처음에는 역어(譯語)를 공부하러 들어온 학생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리고 총명한 국자감생⁸⁷⁾을 선발하여 외국어 교육을 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락 초 예부에 명하여 국자감생 장례(蔣禮)를 비롯한 38명을 뽑아 한림원에 예속시켜 번역을 배우도록 했고, 매달 쌀 1석을 지급하였고 과거 시험이 열리면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는데 지은 글을 번역하고 과거에 합격하면 진사 출신으로 인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사들을 통해 사이관 설립 초에는 역자생의 충원 대상은 따로 없었고 과거를 치려는 국자감생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서오경에 비해 통번역을 더욱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영락제(永樂帝)는 번역인재의 신분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역자생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는 통번역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명대 긴 시기에 걸쳐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다. 번역을 겸한 국자감생은 역자생을 보충하였으나 폐단도 같이

84) 胡秋碧, 2008, 앞의 논문. 37쪽.

85) 물론 앞에서 검토했듯이 명나라 통사는 모두 다 사이관에서만 훈련을 받고 나온 것이 아니었다. 사이관 말고도 이민족이면서 한어에 능통한 자가 선발되는 경우도 있었고, 중앙으로부터 직접 선발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明世宗實錄』에 따르면 “考選精通夷語熟諳夷情者二員爲大通.”라고 기록되어 있다.

86) 呂維祺, 『四譯館增定館則』 卷2, “國初, 譯學缺人, 選太學年幼俊秀監生充之.”; 孫承澤, 『春明夢餘錄』 卷五十二, “永樂間嘗選舉人監生習四方譯書.”; 『明太宗實錄』 卷六十五, “癸酉, 命禮部選國子生蔣禮等三十八人, 隸翰林院, 習釋書, 人月給米一石, 遇開科, 令就試, 仍譯所作文字, 合格准出身”. 『春明夢餘錄』은 명말청초 손승택(孫承澤)은 쓴 것인데 명대 북경과 관련 사항이 기록되고 진장 제도를 연구하기에 좋은 교재다.

87) 국자감은 수(隋)나라에서 청(淸)나라까지 국가가 ‘舉人’·‘貢生’·‘監生’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지은 학교였다.

가져왔기 때문이다.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자.

⑫무릇 조금 어리고 총명한 자들이 바로 과거시험을 위해 연마하였으나 역어에는 능숙하지 않았다. 오로지 역어 공부는 과거에 급제하는 지름길로 여겼다.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려는 자가 많았다.⁸⁸⁾

위의 사료를 보면 역자생 중에 타고난 총명한 사람 대부분은 과거 시험에만 몰두하여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번역에 능통하지는 않았고, 게다가 그들은 사이관에 들어가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과거 시험에 참가하는 지름길로 삼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이관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영락제가 적극적으로 외국어에 집중하여 연마하도록 감생들을 격려했음에 불구하고 유가사상 영향을 많이 받은 그들은 역시 과거 시험으로 출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 대부분은 진사에 합격한 이후에도 사이관에 머물며 번역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요직으로 승진할 기회가 많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이관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 길을 선택하는 국자감생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당시에 대외 교류가 깊어짐에 따라 번역해야 할 문서나 서적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부족하였다.⁸⁹⁾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덕(宣德) 원년(1426)에 이르러서는 사이관에서 모집하는 학생의 범위가 일반 백성의 자제 즉 관민자제에게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아래의 사료와 같다.

⑬宣德 元년에 官民子弟를 선발하여 官원에게 가르치게 하고 學士는 과목을 심사하였다.⁹⁰⁾

국자감생에 비해 관민자제의 정통관념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더하여 순수하게 외국어 공부에 대한 개인의 학습의지라기보다는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관직을 얻는 것을 더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민자제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였다. 홍치(弘治) 3년(1490)에 관민자제의 비율을 각 관별로 보면 달단관에 25명, 고창관에 8명, 서번관에 15명, 서천관에 2명, 회회관에 10명, 백이관에 14명, 면전관에 8명이 있었다. 이 숫자는 국자감생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⁹¹⁾ 또한 사이관에 들어간 학생으로 하여금 역어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했고, 다른 길을 피하여 해당 전공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88) 孫承澤, 『春明夢餘錄』 卷五十二. “蓋資稍可進, 輒習學業, 而譯書不宓精, 徒藉爲科第之捷徑, 故爭趨者衆.”

89) 李紅梅, 2015, 앞의 논문, 107쪽.

90) 張廷玉, 『明史』, 志第五十, 職官. “宣德元年, 兼選官民子弟, 委官教肄, 學士稽考程課.”

91) 胡秋碧, 2008, 앞의 논문, 23쪽.

사이관은 전문적인 모델로 외국어 인재에 대한 양성을 전개해 나갔다.⁹²⁾ 그렇게 입학 자격은 완화되었으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부 좌시랑(禮部 左侍郎)이 올린 상소문이 『春明夢餘錄』에 기록되어 있다.

⑭최근에 관리, 군인, 장인, 요리사의 자제들이 교사에게 의탁하여 개인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며 멋대로 관리가 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쓰인 책들은 대부분 국경 지대의 문체와 관련되어 있어 마음대로 공부하게 놔두면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한림원에 조서를 내려 이후로는 사이관 각관에서 결원이 생기더라도 영락 연간의 예에 따라 나이가 어린 영특한 국자감생을 선발하여 사이관으로 보내 공부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교사들도 마음대로 제자들을 받아 개인 교습을 시키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추천하는 것을 금지토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⁹³⁾

위의 사료에는 영락 연간 이래로 관리, 군인, 장인, 요리사의 제자들이 교사에게 의탁하여 개인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한 현상이 형성되었고, 외국어로 쓰인 책들 대부분은 국경 지대의 문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부하게 놔두면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피할 수 없어 걱정도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우려는 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천순(天順) 연간의 상황을 보면 역자생 154명을 선발하여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마명(馬銘)이라는 교사가 불법적으로 수강생 136명을 따로 제자로 삼았기 때문이다.⁹⁴⁾ 따라서 이런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명 영종(明 英宗)은 각관에서 결원이 생기더라도 영락 연간의 예에 따라 나이가 어린 영특한 국자감생을 선발하여 사이관으로 보내 공부를 시키도록 하였다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교사들도 마음대로 제자들을 받아 개인 교습을 시키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분석했듯이 국자감생은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외국어 공부에 쏟지 못하였기 때문에 역자생의 충원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홍치 연간에 역자생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강화되고 정치적인 대우와 인식이 안 좋아지고 승진의 기회는 줄어들게 되면서 사이관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세업자제가 중심이 되었고, 국자감생과 관민자제는 일부만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⁹⁵⁾ 그러다가 가정(嘉靖) 45년(1566)에 이르러, 세업자제로만 충원시키

92) 任萍, 2014, 앞의 논문, 105쪽. (呂維祺等: 『續修四庫全書 749·四譯館增訂館則』, 上海古籍出版社 2002年, 531쪽. “弘治三年, 禮部題奏欽依, 四夷館子弟專習本等藝業, 不許假以習學爲由別圖出身.”)

93) 孫承澤, 『春明夢餘錄』 卷五十二. “近年以來, 官員, 軍民, 匠作, 廚役子弟投托教師, 私自習學, 濫求進用. 況番字文書多關邊務, 教習既濫不免透漏消息. 乞飭翰林院, 今后各館有缺, 仍照永樂間例, 選取年幼俊秀監生送館習學, 其教師不許擅留各家子弟私習及徇私保舉”.

94) 呂維祺, 『四譯館增定館則』 卷一. (天順三年四月, 禮部奏, 四夷館譯字官生見有一百五十四員名, 而教師馬銘又違例私收子弟一百三十六名, 以希進用.)

95) 최형섭, 2012, 앞의 논문, 120쪽.

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변화가 생긴 이유는 아래의 사료와 같다.

⑮역자생을 가정 16년(1537)에 모집한 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사고와 변화가 많아 살아있는 자가 겨우 1,2명뿐으로 世業이 전해지지 않고 외국어 번역이 다 사라질 지경입니다. …… 이제 내각에서 건의하기를 각 관에서 전적으로 세업자제들 가운데 자질과 나이가 적절한 자를 선발하여 한림원으로 보내 이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주장이 매우 타당합니다.⁹⁶⁾

가정 16년(1537)으로부터 30년을 걸쳐, 많은 사정이 생겼으므로 시험을 통해 선발한 역자생은 아직 사이관에 머물러 있는 자가 한두 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통번역업무는 후대에게 전해지지 못하여 사실상 폐지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관은 30년 가까이 신입생의 모집이 안 되어 역업(譯業)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사에게 믿을만한 학생 즉 세업자제를 추천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세업자제는 주로 사이관 교사의 자손을 말한다. 교사가 병이 심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없는 자손은 사이관에 들어가 역업을 계승하여 계속 공부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국가감생만큼 과거시험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관민자제보다는 외국어 공부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충원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45년부터 명말까지 유일한 역자생의 충원이 되었다. 사이관 학생 충원에 대해 다시 정리하자면 대체로 국가감생, 관민자제, 세업자제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명의 통치자들은 한족을 제외한 대륙의 여타 민족 즉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모두 '夷'로 여겼다. '夷'들이 쓰는 말은 다양했기 때문에 단시간에 유창하게 구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교사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되었다.⁹⁷⁾ 따라서 사이관 설립 후에는 바로 교사 채용에 착수하였다. 사이관의 교사 임용은 크게 주변 민족이나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는 방법과 외국어에 능통한 통사나 뛰어난 역자생을 선발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이관이 설립되었을 당시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자에 능통한 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사이관 교사는 대부분 외국에서 채용하였는데, 제자들 중에 나이가 어리고 영특한 학생을 선발하여 가르쳤다."⁹⁸⁾는

96) 孫承澤, 『春明夢餘錄』 卷五十二. "譯字生自嘉靖十六年考收之后, 迄今垂三十年, 中多事故更遷, 所存者僅餘一二. 世業无傳, 番譯具廢. …… 今該內閣具奏專取各館世業子弟資稟年歲相應者考選送院作養, 其議甚當".

97) 陳子龍, 『皇明經世文編』 卷之二百四十五. "夷種有東西南北之異, 而夷語有喉舌齒唇之分, 非可強解而驟通者, 必立師以教之."

98) 當是時爲館傳者多徵自外國, 簡吾子弟之幼穎者, 而受學焉. (胡秋碧, 2008, 앞의 논문, 25쪽에서 재인용.)

기록으로 보아 건국초기 사이관의 교사는 주로 외국인으로 충원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407년에 설치된 면전관의 경우를 살펴보자.

⑩미얀마에서 조공하러 온 当丙, 云清, 班思杰, 康刺改, 潘達速, 已扯盼 6명이었는데, 바로 교수로 삼아 죽을 때까지 사이관에 근무하였다.
孟香, 德馨과 미얀마 토박이는 홍치 17년에 光祿寺 署丞 교사로 선발되었다.⁹⁹⁾

위의 첫 번째 기사에서는 정통 연간(1436-1449)에 미얀마 사람인 당병(当丙)을 비롯한 6명이 사신으로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왔는데, 명 조정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은 천순 연간(1457-1464)까지 평생을 사이관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죽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두 번째 기사에서는 홍치 17년(1504)에 명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에서 온 세 사람을 교사로 선발하여 사이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다가 그들에게 종7품인 광록사(光祿寺) 서승(署丞)의 직함을 수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병 등 교사들은 모두 미얀마에서 와서 교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⑪홍치 10년(1497) 暹羅 사신이 공물을 바치러 왔을 때 당시 사이관에는 섬라 譯字官이 없었다. 대학사 徐溥(1428-1499) 등은 광동에 공문을 보내 섬라국 언어 문자에 능통한 자를 구하여 북경으로 보내 쓰임에 대비하기를 청하니 그 말에 따랐다.....정덕 10년(1515) 섬라국에서 표문과 함께 공물을 바쳤지만 사이관에 그 글자를 아는 자가 없었다. 대학사 梁儲(1453-1527) 등이 사신 1,2명을 선발 머물게 하여 사이관에 들어가 언어를 가르치게 할 것을 청하니 허락하였다.¹⁰⁰⁾

『明史』의 기록에 따르면 홍치 10년 섬라 사신이 공물을 바치러 왔을 때는 당시 사이관에 섬라 역자관(譯字官) 즉 번역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학사(大學士) 서부(徐溥) 등은 광동에 공문을 보내 섬라국 언어 문자에 능통한 자를 구하여 북경으로 보내 쓰임에 대비하기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때 적절한 인재를 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바로 뒤이어 정덕 10년(1515) 섬라국에서 표문과 함께 공물을 바쳤지만 사이관에 그 글자를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사 량저(梁儲) 등이 사신 한 두 명을 선발하고 머물게 하여 사이관에 들어가 언어를 가르치게 할 것을 청하였다. 그것으로 보아, 섬라국 언어 교사도 부족하고 외국인으로 임용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팔백국(八百

99) 『欽定古今圖書集成』, 方輿匯編, 職方典, 第1517卷. “緬甸人当丙, 云清, 班思杰, 康刺改, 潘達速, 已扯盼六名以來貢, 遂留教授. 后俱卒于官.” 呂維祺, 『四譯館增定館則』, 卷七. “孟香, 德馨, 緬甸土夷, 弘治十七年取光祿寺署丞, 教師.”

100) 張廷玉, 『明史』, 列傳第二百十二, 外國五. “弘治十年入貢. 時四夷館无暹羅譯字官, 閣臣徐溥等請移牒廣東, 訪取能通彼國言語文字者, 赴京備用, 從之. 正德四年.....十年進金叶表朝貢, 館中无識其字者. 閣臣梁儲等請選留其使一二人入館肄習, 報可”.

國)의 난자가(蘭者哥)도 사신으로 왔다가 중국에 머물며 팔백관의 교사로 언어를 가르쳤던 사람이다. 이처럼 사이관에 각 관이 설립되었을 초기에는 대부분 사신으로 온 외국인 가운데 몇 사람을 선발하여 교사로 채용하였다.¹⁰¹⁾ 그런데 대외무역의 발전에 따라 주변 연해 지방에 외국어와 한어에 모두 능통한 자가 속출하였다. 사이관에 어떤 민족 언어나 외국어를 잘 하는 인재가 부족하면 명 정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교사로 삼아 역자생을 가르치게 하였다. 아래의 사료와 같다.

⑩ 그리하여 陝西와 雲南을 지키는 관원들에게 명하여 韃靼, 西番, 高昌, 西天, 百夷가 쓰는 말에 능통한 겸 중국어에도 능통한 자를 선발하게 하였다..... 그들에게 관직을 수여하고 원래 사이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과 함께 가르치라고 요청한다. 반드시 역어가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¹⁰²⁾

위의 사료를 보면 대학사 이동양(李東陽)은 역학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섬서(陝西), 운남(雲南)에서 달단, 서번, 고창, 서천, 백이사람들이 쓰는 말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도 통한 자를 구하여 그들에게 관직을 수여하고 교사로 근무하라고 요청하였다고 알 수 있다. 하지만 명의 규칙에 따르면 주변지방이 추천하여 북경으로 보낸 교사는 전문시험에 통과해야 사이관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한다.¹⁰³⁾

외국인 교사와 우수한 소수민족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은 '방보(訪保)'라고 한다. 방보로 임용된 교사는 변경 지방정부의 담보와 추천이 필요하였다. 담보를 받은 사람이 임용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담보해 준 관원에게 처벌을 받을 것이었다. 방보를 통해 채용된 소수민족과 외국인 교사에게는 특별히 후대해 주었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와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공부(工部)가 맡았으며, 교사의 요리사를 배분하고 매일 음식을 차리는 것은 광록사(光祿寺)가 맡았다. 만약 먼 곳에서 오거나 결혼을 안 했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북경에 거주하는 여자와 결혼해도 되었다. 그 밖에 외국인 교사가 병사한다면 북경 근처에 있는 땅에 묻혀도 되고 그들의 자식이 교편을 잡아 계속해서 사이관에서 역어를 가르칠 수도 있었다.¹⁰⁴⁾ 이와 같은 좋은 대우로 인해 우수한 교사가 안심하게 수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이관이 설립되었을 초기에는 현지인 교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채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이관의 우수한 역자생이나 통번역

101) 최형섭, 2012, 앞의 논문, 117쪽.

102) 林堯俞, 『禮部志稿』 卷九十二. "仍乞勅陝西, 雲南鎮守等官訪取精曉韃靼, 西番, 高昌, 西天, 百夷言語文字, 兼通漢字文義之人 奏請量授官職与本館教師相兼教習, 務使譯學有傳."

103) 呂維祺, 『四譯館增定館則』 卷二. "訪取諳曉番譯人員, 赴部考驗, 授以官職, 送館教譯."

104) 廖大珂, 孫魏, 2016, 앞의 논문, 83쪽.

에 종사하고 있는 통사를 선발하여 교사로 임명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①9 각 관은 교사가 부족하기만 하면 본관에 오래된 역자생 중에서 역어가 뛰어나고 성품이 착한 자를 선발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내각에 보냅니다.¹⁰⁵⁾

위의 사료를 통해 만약 사이관에 교사가 부족하다면 역자생 중에서 역학에 능통하고 성품이 단장한 자를 선발하고 내각에 보내 시험을 치르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세등(穆世登), 유상정(劉尙禎), 한량(韓良議) 등이 바로 만력 32년에 달단관에 들어간 역자생이었다가 학업을 완성한 후 달단관에서 교사로 임용되었던 경우였다.¹⁰⁶⁾

②0 게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재능이 있는 자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왜 각 관의 인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외국어를 할 줄 알고 경험이 많은 통사 한 두 명을 뽑아 교사로 삼지 않을까? …… 만약 외국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안 된 자가 있다면 주변에서 함께 온 통사를 찾아뵙고 모르는 것을 잘 이해하도록 물어보는 것을 허락한다.¹⁰⁷⁾

가정 연간(1522~1566)에 이르러, 사이관의 교사는 통사 업무에 오래 종사한 자 중에서 뽑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무역활동에서 항상 이방인과 교류해왔기 때문에 통역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왔다. 그러므로 명 정부는 그들을 교사로 삼아 역어를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만약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를 당하게 되면 함께 일행 통사나 사신에게서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다시 말해, 명말에 이르러서 교사의 세대교체가 잘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사의 충원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 달했고 자급자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¹⁰⁸⁾

3. 학습교재와 평가

사이관의 교재는 『화이역어』라고 한다. 이 책은 사이관에 있는 각 관에서 잡자(雜字)와 래문(來文)을 가르치도록 편찬된 교과서다. 총 20여 언어버전이 있어서 각관은 자기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해당 지역별로 살

105) 呂維祺, 『四譯館增定館則』 卷五. “凡各館缺官教習, 于本館年深職官內選其譯學優長, 行止端慎者, 具呈內閣考試, 題請點用.”

106) 胡秋碧, 2008, 앞의 논문, 27쪽.

107) 陳子龍, 『皇明經世文編』, 卷之二百四十五. “而又積以歲月, 庶几可以漸入, 合无于各館中視人數多寡, 揀選年深, 通事了曉夷語者一二人, 立爲教師 …… 或其中有未能盡曉者, 遇有該邊原來伴送通事, 許各館教師備細詢訪, 務求通曉.”

108) 任萍, 2007, 앞의 논문, 54쪽.

펴보면 아시아 서남쪽, 남쪽, 서쪽, 중부 지역과 동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쓰는 언어였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20세기 중반에 국내외 현존하는 명대 사이관어 편찬된 『화이역어』는 총 11분류가 있는데, 『달단관역어(韃靼館譯語)』, 『여진역어(女眞譯語)』, 『서번관역어(西番館譯語)』, 『서천관역어(西天館譯語)』, 『회회관역어(回回館譯語)』, 『백역관역어(百譯館譯語)』, 『고창관잡자(高昌館雜字)』, 『면전관역어(緬甸館譯語)』, 『팔백관역어(八百館譯語)』, 『섬라관역어(暹羅館譯語)』과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이다. 많은 판본은 이미 사라지거나 해외로 가져갔다.¹⁰⁹⁾

역자생이 입학하게 되면 공부할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가 배운 국어, 수학이나 영어와 달랐다. 주로 잡자를 비롯한 번역능력을 향상시키는 과목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했듯이 명나라가 사이관을 설립한 주요 목적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들의 조공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잡자만 번역하는데 고칙(告敕)과 래문(來文) 공부를 안 한다면 급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되어, 세 종류를 함께 양성하게 하였다.¹¹⁰⁾ 그리하여 가정 21년(1542)부터 사이관의 주요 과목은 잡자, 래문과 고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잡자는 각 관에서 사용된 중국어와 외국어 일종의 대역어휘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래문은 공물을 바칠 때 주변이 올린 표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외국어와 한어가 병기되어 있다. 고칙은 황제로부터 받는 임용칙서인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¹¹¹⁾ 아래의 시사를 통해 『화이역어』의 편찬 상황을 알아보자.

②홍무 15년(1382) 翰林院侍講 火原潔 등에게 『화이역어』 편찬을 명하였다. 예전에 원 왕조는 원래 문자가 없었다. 황제가 명을 내려 高昌 문자를 빌어 몽고 문자를 제정하고 천하에 통용되도록 했다. 이에 火原潔과 한림원편수 馬懿亦黑 등에게 명하여 한어로 몽고어를 번역하도록 했다. 천문, 지리, 人事, 物類, 服食, 器用 등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없다. 또 『元秘史』를 참조하여 몽고 글자에 한자로 음을 적고 한어로 뜻을 풀이해 놓은 방법으로 편찬하고 진행하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북쪽 사막으로 왕래하는 사신들 모두가 그 사정을 알아볼 수 있다.¹¹²⁾

위 사료의 내용은 바로 『화이역어』 편찬의 역사적 배경이다. 명 태조는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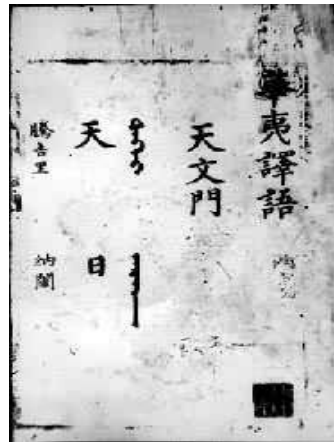
109) 劉紅軍, 孫伯君, 2008, 앞의 논문, 48쪽.

110) 呂維祺, 『四譯館增定館則』 卷14. “專攻翻譯雜字, 不及告敕, 來文, 恐非急務. 今后三年并行肆習.”

111) 烏云高娃, 2005, 앞의 논문, 129쪽.

112) 『明實錄太祖實錄』 卷之一百三十四. “命翰林院侍講火原潔等編類華夷譯語. 上以前元素无文字, 發号施令, 但借高昌之書, 制爲蒙古字以通天下之言. 至是乃命火原潔与編修馬沙亦黑等, 以華言譯其語, 凡天文, 地理, 人事, 物類, 服食, 器用靡不具載. 夏取元秘史參考, 紐切其字以諧其聲音. 既成, 詔刊行之. 自是使臣往夏朔漠, 皆能通達其情.”

권이 안정된 후 『원사(元史)』 편찬을 명하였다. 1년도 안 되어 완성된 『원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명 태조는 원 왕조가 남겨놓은 자료를 이용하여 역사 연구를 심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 자료들은 모두 몽고 문자¹¹³⁾로 기록되어 있어 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몽고어와 중국어를 모두 알고 있던 학자들¹¹⁴⁾에게 명하여 일종의 몽한 대조 사전인 『화이역어』를 편찬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 책은 중국 사전 역사상 처음 등장한 정규 몽한(蒙漢)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은 몽고 문자의 기원, 발전, 변화와 형상규칙에 근거하고, 『元朝秘史』를¹¹⁵⁾ 바탕으로, 몽고 글자에 한자로 음을 적고 한어로 뜻을 풀이해 놓은 방법을 사용하여 몽한 사전을 편찬하였다. 이 같은 번역방식은 바로 아래의 그림 <그림 1> 과 같이 중국어로 몽고 글자의 음과 뜻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1>

『화이역어』는 명 홍무 22년 발행된 몽고어와 한어를 대역한 사본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책의 이름, 분류, 몽고어 단어, 한자로 번역해 놓은 뜻과 한자로 표시한 발음이 되어 있다. 단어 검색의 방식에서 보면 오늘날의 사전처럼 부수나 시작하는 음으로 검색하지 않고 『원조비사』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17 분류로 나누고 그것들로 검색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17 분류는 다양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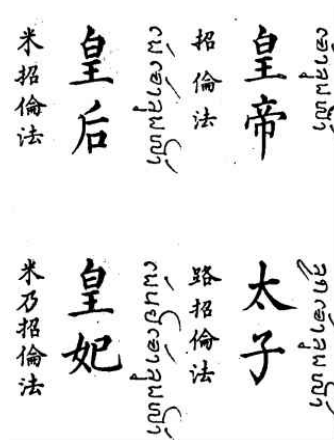
113) 몽고족은 원래 문자가 없이 위구르 문자, 고창 문자를 쓰고 있었다. 원 세조(元世祖)는 장족(藏族)인들에게 몽고 문자를 제정하도록 하여 1269년에 반포하였다. 이로부터 원 정부의 문건과 조서, 실록 등은 모두 몽고 문자로 작성되었다 (劉迎勝, 「宋元至清初我國外語教學史研究」, 『江海學刊』 3, 南京大學民族研究所, 1998, 113쪽).

114) 火原浩는 몽고어와 한어에 모두 능통했던 유명한 학자로 사이관이 설립되기 전 한림원에서 번역 업무를 맡아 처리했던 인물이다. 馬沙亦黑은 사이크 무하마드란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인 馬德魯丁은 홍무 2년 서역에서 중국으로 들어와 欽天監에서 근무했던 유명한 천문학자였다.

115) 원조비사(元朝秘史)는 즉 원나라 왕조의 비밀스러운 역사라는 뜻이다. '몽골비사(蒙古秘史)'라고도 불린다. 이 책에는 칭기즈칸의 평생에 대한 1차 사료가 실려 있다.

천문문(天文門), 지리문(地理門), 시령문(時令門), 화목문(花木門), 조수문(鳥獸門), 궁실문(宮室門), 기용문(器用門), 의복문(衣服門), 음식문(飲食門), 진보문(珍寶門), 인물문(人物門), 인사문(人事門), 성색문(聲色門), 수목문(數目門), 신체문(身體門), 방우문(方隅門), 통용문(通用門)이다. 게다가 각 분류에는 어휘 824개가 있는데, 가장 많은 어휘가 있는 분류는 '인사문'이고 가장 적은 어휘가 있는 분류는 '진보문'이다.

앞에서 소개했던 『화이역어』는 『몽골역어(蒙古譯語)』라고도 불린다. 당시 달단관 또는 몽골관에서 사용된 교재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사이관 관마다 모두 자기언어에 해당된 버전인 『화이역어』가 있다. 이 판본들에는 주로 잡자와 래문 두 가지로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북경도서관에 보관된 『고창관과(高昌館課)』는 바로 사이관에 속한 고창관이 번역하여 보관한 일종의 『화이역어』라고 판단한다.¹¹⁶⁾ 그의 잡자 <그림 2>와 래문 <그림 3>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2>

위 그림은 『고창관역어』의 잡자 부분 '인물문'의 내용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위구르 문자, 한자로 번역해 놓은 뜻과 한자로 표시한 발음이 되어 있다. 즉 '황제(皇帝)', '태자(太子)', '황후(皇后)', '황비(皇妃)'라는 한어로 해당 위구르 문자의 뜻을 풀어 적어놓고 위구르 단어에 해당하는 음도 한어로 적혀 있다. 앞의 몽한사전과 마찬가지로. 고창은 오늘날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투르판에서 5~7세기경에 번영한 나라이다. 그 잡자에 대한 편찬 과정은 먼저 고창이나 투르판 등 지역과 오가는 문서 중에서 자주 쓰는 한자 어휘를 뽑았으며, 그 다음에 한자를 위구르 문자로 번역하면서 한자로 음을 표시해 놓은 것이다. 단어마다 위구르 단어, 해당 한자 및 해당 한자음이 되어 있어 공부하는

116) 胡秋碧, 2008, 앞의 논문, 29쪽.

학생이 보면 일목요연하였을 것이다.117)



<그림 3>

위의 그림은 바로 『고창관역어』의 래문 부분 첫 페이지인데 고창과 오가는 문서인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은 위구르어로 써 놓고 왼쪽은 중국어로 번역하여 적어놓았다. 두 표를 보고 생각할 때 사이관에서의 교육 내용은 주로 단어와 문장에 대한 번역연습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화이역어』의 판본은 다양한데 국내에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홍무본(洪武本), 영락본(永樂本), 회동관본(會同館本), 회동사역관본(會同四譯館本)이 있다. 국외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화이역어』를 갑, 을, 병, 정 네 가지 판본으로 나누고 있다. 갑종본은 홍무본이고 을종본은 영락본이고 병종본은 회동관본이고 정종본은 회동사역관본이다. 또한 협의로 『화이역어』는 홍무본 즉 앞서 언급한 몽한사전을 가리키며 이것은 최초의 판본이다. 광의로 『화이역어』는 언어 대역사전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영락본, 회동관본, 회동사역관본이 포함되어 있다. 영락본 『화이역어』는 사이관이 설치된 후 각 관에서 번역교육을 위해 편찬한 역어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증보된 형태의 역어까지 총칭한다. 주로 해당 민족 문자와 한어로 표시된 음과 뜻으로 적어놓고 잡자와 래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회동관본 『화이역어』는 사이관이 아닌 회동관(會同館)¹¹⁸⁾에서 교육을 위해 편찬한 역어를 가리킨데, 영락본과는 달리 해당 민족문자 원문이 없다. 즉 한자로 음과 뜻을 풀고 적어놓는 것일 뿐이다. 회동사역관본은 청대 회동사역관에서 편찬된 여섯 서양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본을 가리킨다. 잡자만 있고 래문은 없다.¹¹⁹⁾

117) Pezilet Tuniyaz, 「『高昌館雜字』之翻譯方法研究」, 伊犁師範學院, 2016, 4쪽.

118) 명 회동관은 영락 초에 설치되고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조공하러 오도록 '四夷'를 접대하는 기구이다. 『大明會典』 卷143~145, 兵部, 二十八. "國初改南京公館爲會同館. 永樂初設會同館于北京..."

사이관에 조선관이 안 보이는데 『화이역어』 중 『조선관역어』가 있다. 이것은 회동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관역어』는 명나라 초기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주변국의 어휘들을 중국어로 번역 편찬한 『화이역어』에 수록된 조선어 어휘집이다. 이 조선어 사전은 대체로 주변국가에서 오는 사신들의 언어통역 및 영접을 위해 회동관에서 편찬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편찬 시기는 영락 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²⁰⁾

『화이역어』 편찬부터 수백 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국내외 언어학자의 관심을 받아 왔다. 격식은 딱딱하고 기계화되었으나 당시 대외무역을 순조롭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명과 주변 민족이나 나라들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조공무역이 활발해지는 상황에는 이러한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 문제가 덜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화이역어』의 원본은 많지 않아 귀중한 책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가치 또한 높다. 이 책은 고대 역사기록의 보충과 근거가 될 수 있다. 때로는 고대 문헌에 누락된 기록이 있거나 실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 때로는 잘못된 기록도 흔히 나타나 있다. 이때 『화이역어』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어휘와 오가는래 문은 사료를 보충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하여 고어의 연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한어로 표시된 외국어 발음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고어 맞춤법과 음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고어의 발음 연구에 참고가 된다.

사이관의 역자생이 배운 것은 각 민족이나 나라들의 언어였기 때문에 진정한 재능과 견실한 학식이 있어야 졸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른 학습 과정이 필요하였다. 명 정부는 수업 연한에 규정이 있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평가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어왔다. 이런 평가제도의 변화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뉘어 있다.

첫째, 사이관을 설립했던 초기에는 역자생을 평가하는 전문적인 시험이 없었고 그들에 대한 평가는 과거와 한데 섞였다. 아래의 사료와 같다.

②영락 초 禮部에 명하여 국자감생 蔣禮 등 38명을 선발하여 한림원에 예속시켜 번역을 배우도록 했다. 매달 쌀 1석을 지급하였고 과거 시험이 열리면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는데 지은 글을 번역했다. 과거에 합격하면 진사 출신으로 인정하였다.¹²¹⁾

119) 劉紅軍, 孫伯君, 2008, 앞의 논문, 51,52쪽.

120) 주성일,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에 나타난 근대한어(近代漢語) 운미(韻尾) 변화 —천문문(天文門)을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54, 한국중문학회, 2014, 359쪽. 하지만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에 대한 편찬 시간은 사료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국내외 주로 명 전기, 명 중기, 명 후기로 주장하고 있다 (李忠輝, 2018, 앞의 논문, 49쪽).

121) 『明太宗實錄』 卷六十五. “癸酉, 命禮部選國子生蔣禮等三十八人, 隸翰林院, 習釋書, 人月給米一石, 遇開科, 令就試, 仍譯所作文字, 合格准出身”.

『明太宗實錄』에 따르면 영락 초 예부에 명하여 국자감생 38명을 뽑아 한림원에 예속시켜 번역을 배우도록 했고, 매달 쌀 1석을 지급하였고 과거 시험이 열리면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는데 지은 글을 번역하여 과거에 합격하면 진사 출신으로 인정하였다고 알 수 있다. 게다가 공부시간에도 한계가 없고 외국어 수준의 높낮이와 상관없었다. 과거 시험만 통과하면 사이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에는 역자생의 학습에 대한 적극성을 격려하기 위해 선종 대에 사이관 학제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자.

㉓ 감생인 王瑄 등과 관민자제인 馬麟 등 각자 30명을 선발하여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하였다. 李誠과 丁奎 등에게 명하여 가르치게 하고 한림 학사에게 감독하게 하였다. 각 사람에게 월마다 쌀 한 석을 주고 매일 光祿寺가 밥을 주었다. 공부한지 1년이 된 자는 글을 잘 쓰면 冠帶라는 관직을 수여하지만 게으른 자는 벌을 받고 공부를 완전히 못한 자는 학업이 취소될 것이다.¹²²⁾

위의 기사를 통해 선덕 9년(1431)에 교사와 감독 인원을 마련하고 상벌 면에서도 규정을 정하고 그리고 학제는 1년으로 하도록 역자생의 평가 관리를 강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볼 때 사이관은 점차 과거에서 벗어나고 단독적인 학제와 평가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정통 원년(1436)에 이르러, 사이관의 학제는 2년으로 바뀌었으며 역자생의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시험인 회관고시(會官考試) 즉 회고(會考)가 생겼다. 아래의 사료를 참고하자.

㉔ 모두 관행에 따라 회관고사를 치러야 한다. 통과하면 관직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1등에게 冠帶를 수여하고 譯字官으로 임명할 것이다. 1등을 탄 사람은 이듬해 또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통과하면 관직을 수여할 것이다. 그리고 2등과 3등 및 새로운 학생은 이듬해 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고...¹²³⁾

위의 사료에 나오는 '회관고시'는 바로 역자생에게만 수행했던 시험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회고마다 성적에 따라 역자생을 세 가지 등으로 나누었는데 1등은 역자관이 되고 내년도 시험을 통과하면 벼슬을 수여해주었다. 2등과 3등의 학생들은 내년에 다시 시험을 쳐야 하였다. 이상의 사실에 미루어 볼 때 당시 학생의 입학부터 관직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명 정부가 학제와 평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역시 학습의 법칙에 맞는 조치였다. 언어

122) 『明實錄宣宗實錄』 卷之一百十二. “選監生王瑄等及官民子弟馬麟等各三十人以聞. 命指揮李誠、丁奎等教之, 翰林學士程督之, 八月支米一石, 光祿寺日給飯食, 習一年能書者與冠帶, 惰者罰之, 全不通者黜之.”

123) 『明實錄英宗實錄』 卷之二十三. “俱照例會官考試, 出身次爲三等. 上命一等者冠帶爲譯字官, 逾年再試, 得中授職; 其二等、三等及有新習者, 亦逾年再試...”

를 잘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루 이들의 짧은 시간만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²⁴⁾

셋째, 홍치 3년(1490)에는 학제와 평가 제도가 규정화되었다. 사이관의 학제는 9년으로, 총 회고 횟수가 3번이었다. 『明實錄孝宗實錄』에 회고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아래의 기사와 같다.

㉕사이관의 번역 평가방법이 정해집니다 역자생은 공부한지 3년이 되면 會官考試를 치를 수 있습니다. 통과하면 '식량자제(食糧子弟)'가 되고 매달 쌀 한 석을 준다. 또 3년이 지나면 이전의 회고에 참여할 수 있고 1등으로 통과하면 冠帶라는 관직을 수여하고 譯字官이 될 것입니다. 월마다 주는 쌀이 예전과 같습니다. 또 3년 후에 회고를 치르고 1등으로 통과하면 序班이라는 관직을 수여할 것입니다. 세 번 시험 중에는 첫 번째 시험에 떨어진다면 3년 후에 다시 치를 수 있게 하고 또 떨어지면 또 다시 3년이 되면 치를 수 있게 하지만 또 떨어지면 평민으로 되게 합니다.¹²⁵⁾

즉 역자생은 첫 번째 3년 회고를 통과하면 '식량자제(食糧子弟)'가 되고 매달 쌀 한 석을 준다. 또 3년 후에 두 번째 회고를 통과하면 '역자관(譯字官)'이 될 수 있고 매달 예전처럼 똑같이 준다. 또 3년 후의 마지막 회고를 통과하면 '서반(序班)'이라는 관직을 수여할 수 있었다. 서반은 중국 고대 문관인데 명나라에 처음 홍려사(鴻臚寺)에 두었다. 홍려사의 말단인 서반은 조공과 초대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또한 첫 번째 3년 회고에 대해 특별히 우대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번 통과하지 못하면 3년 후에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통과하지 못하면 6년 후에 시험을 치르는 기회를 주지만, 여기에서 다시 떨어져야 서민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즉 첫 번째 회고 3번에 모두 통과하지 못했으면 퇴관을 하고 평민으로 파면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반적으로 역자생이 입학한 후 9년에 3번 회고를 다 통과하면 공식적인 졸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2년인 학제에 비하면 9년이라는 시간은 많이 길었으나 전공을 잘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사이관의 평가제도도 점차 완벽해지고 있었다.

앞에서 봤던 9년 학제 평가제도는 『增訂館則』에 따르면 회고를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역자생은 3년마다 회고가 있었다. 이름은 '회고식량(會考食糧)', '회고관대(會考冠帶)', '회고수직(會考受職)'이라고 불렀다. 입학한지 3년만 되면 '회고식량'에 참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험을 치기 전에 반드시 역자생의 기강 상황을 확인해야 하였다. 3년 안에 3개월 동안 무단으로

124) 任萍, 2014. 앞의 논문, 106쪽.

125) 『明實錄孝宗實錄』 卷之三十八. "定四夷館翻譯考選之法.....三年后, 本院同本部會官考試, 中者爲食糧子弟, 月給米一石. 又歷三年后, 仍前會考, 中优等者, 与冠帶爲譯字官, 月米如旧. 又歷三年會考, 中优等者, 授以序班之職. 其初試不中者, 許俟三年再試, 再試不中者, 許俟六年再試, 三試不中者黜爲民."

결석했으면 이 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야 시험을 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학생이 반드시 3년 공부 기간을 다 채워야 '회고식량'에 참석할 자격이 있었다. 공부 기간에 대한 요구는 날짜까지 명확히 규정하였다. 만약에 병을 걸려서 3년을 채우지 못하면 '탐고(搭考)'의 신분으로 시험을 칠 수 있었다. '회고식량'을 통과하는 학생은 3년을 더 공부하고 '회고관대'를 쳤다. '회고관대'를 통과하는 학생은 역자관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쌀 한 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떨어지는 역자생은 서민으로 강등되었다. '회고수직'은 역자생이 3년을 더 공부한 다음에 참석하는 회고였다.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은 앞서 언급한 '서반'의 직위를 받을 수 있었다. 즉 학생이 9년의 공부를 마치고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관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가정 연간에 이르러, 아래의 사료와 같이 9년 학제가 바뀌었다.

㉔앞으로는 3년 공부가 끝나고 나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직접 일반인으로 파면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6년 후에 冠帶를 얻으려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冠帶榮身을 수여할 것이고, 9년 후에 관직을 수여하려는 시험에 떨어지면 학생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평생 부역도 면제합니다.¹²⁶⁾

원래 첫 번째 회고는 3년에 다 떨어져야 서민이 된다는 것과는 달리 가정 8년(1529)의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회고는 한번만 통과하지 못했으면 바로 서민으로 파면시킨다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그것으로 보아, 명 정부의 역자생에 대한 요구가 엄격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9년 공부를 마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관직을 수여할 수 있거나 원래 호적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평생 복역을 면제할 것이라는 점을 보면 역자생에게 대한 명 정부의 인간적인 관리도 엿볼 수 있다.

인간적인 관리가 나타난 것은 또 있는데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탐고(搭考)'라는 조치다. 아래의 기사와 같다.

㉕역자생이 공부한 지 9년이 가까이 될 때는 미리 搭歲貢考試를 신청할 수 있다. 모두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다. 시험에 통과하면 학제가 다 채워지면 예부에 알리고 관직을 수여할 것이다.¹²⁷⁾

『增訂館則』에 따르면 역자관이 9년 공부를 거의 다 채웠을 때는 먼저 탐고

126) 呂維祺等: 『續修四庫全書 749·四譯館增訂館則』, 上海古籍出版社 2002년, 600쪽. "合无今后習學三年, 考不中者徑黜爲民, 六年冠帶, 不中者給以冠帶榮身, 九年授職, 考不中者授以應得職事, 俱令回籍閑住, 免其終身差役."

127) 呂維祺, 『增訂館則』 卷一四. "譯字官有將近九年先期告搭歲貢考試者, 一体收考, 考中者候滿日送部具題授職."

를 치를 수 있었으며, 통과하면 주어진 공부 시간이 다 된 다음에 관직을 수여한다고 알 수 있다. 탐고는 각자 '탐고식량(搭考食糧)', '탐고관대(搭考冠帶)', '탐고수직(搭考受職)'이라고도 불렸다. 병들어서 3년을 못 채우는 자는 탐고식량이었다. 마찬가지로 6년과 9년을 못 채우는 자는 '탐고관대'와 '탐고수직'이라고 불렸다. 이런 조치한 이유는 명 정부가 응시자가 적을까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학생이 먼저 시험을 치르게 하고 공부 시간은 차후에 채우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의 효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인력 낭비도 피할 수 있었다.¹²⁸⁾

회고는 보통 우문(午門)(자금성의 남쪽 정문)에서 실시하였다. 한림원이 시험 문제를 내고 6부 관원과 도찰원(督察院) 당상관(堂上官) 등이 같이 시험장에 참석하고 감찰어사(監察御史)가 시험을 감독하고 금의위(錦衣衛)가 시험장을 감시하였으며, 경비가 아주 삼엄하고 성대하였다. 역자생은 회고를 준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월고(月考), 계고(季考)가 있었다.¹²⁹⁾ 게다가 시험 내용과 방식, 심사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월고는 매월 16일에 진행되었으며, 역자생들은 제도(提督)가 내주는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하였다. 시험 문제의 종류는 두 가지 언어를 대조해서 번역하는 것이었다.¹³⁰⁾ 평일의 시험 성적은 회고 성적의 참고로 제공하였다. 평일 성적 때문에 회고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졸업을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에게 모두 퇴관을 명령하는 것도 아니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 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질이 총명하고 슬기롭고 나이라도 적당하면 한림원과 상의하여 다시 시험을 칠 수 있는지를 결정하였다.

계고는 춘하추동 3개월마다 각각 한 번씩 치르는 시험이었으며, 시험 문제는 몇 일전에 내야 되고 각 관 역자생의 시험지가 달랐다. 시험지 위에 학생의 이름과 속하는 관명을 쓰고 나서 제출하였다. 감독 선생은 시험지를 밀봉하여 천(天), 지(地), 현(玄), 황(黃), 우(宇), 주(宙), 홍(洪), 황(荒), 일(日), 월(月)의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다. 시험이 끝나면 성적에 따라 3급으로 나뉘었다. 성적이 뛰어난 사람을 내각(內閣)에 보냈다.

사이관에서 모집한 학생들은 졸업하면 작업에 따라 '번역'과 '통역'으로 분리하여 보냈다. 번역은 주로 문자를 번역하는 일에 종사하며 사이관에 머물면서 외국어를 가르치거나, 지방에 파견되고 교습임무를 보조하게 하였다. 통역은 외교적인 활동이나 무역에서 통역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번역은 문자를 번역하는 능력을 강조하였으나 통역은 나라의 이미지와 관련이 많았기 때문에 통역능력을

128) 韓霜, 2015, 앞의 논문, 43쪽.

129) 林堯俞, 『禮部志稿』 卷九十二. "其各官生俱要嚴立期限, 勤督課業, 月有試, 季有考, 譯業精曉者方准留用, 不通者黜."

130) 林堯俞, 『禮部志稿』 卷九十二, 考選譯生條議. "臨考時, 雜取漢文三十字, 令譯番文."

이외에도 외모에 대한 기준이 높았다.¹³¹⁾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외모 요구가 없었고 번역능력으로만 진로를 정한다.¹³²⁾ 시험관들은 학생을 심사할 때도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였다. 이렇게 하여 번역과 통역에 대한 평가 방식은 약간 달랐다.

번역에 종사할 학생에 대한 평가는 앞서 언급했듯이 시험을 칠 때 한어 30글자 정도의 문장을 선택하여 번역 요구를 하였으나 통역의 심사는 언어의 통역능력에 치중하였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자.

⊗월마다 음력 1일과 15일에 교사는 생도들을 데려오고 배운 역서(譯書)를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뽑아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어로 말하게 한다. 외국에서 온 사람을 만나면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멋대로 외출해서는 안 된다.....提督官이 매 분기 말에 출석 기록을 상급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해당 분기에 잘 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삼는다.¹³³⁾

위의 기사는 통역에 대한 평가방식이다. 계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음력 1일과 15일에 교사가 학생으로 하여금 교과서를 주첨으로 뽑아 해당 외국어로 연설을 시켰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출석체크도 아주 엄격해 보인다. 외국 사신이 오는 경우에 학생은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단 외출을 해서는 안 되었으며, 출석 기록은 심사 참고로 상급 주관 부서에 제공되어야 하였다.

131) 任萍, 2007, 앞의 논문, 55쪽.

132) 林堯俞, 『禮部志稿』 卷九十二, “考選世業子弟, 以番文定其去取.”

133) 陳子龍, 『皇明經世文編』 卷之二百四十五, “每月朔望, 教師引領生徒, 將所習譯書抽試數字, 夷語演說一遍. 遇有夷人到館, 則卯入酉出, 時刻不許擅離.....提督官于季終將卯簿封呈本部, 以一季考, 兼論其勤怠.”

Ⅲ. 朝鮮 사역원의 역관 양성

1. 사역원의 설립과 운영

중국 최초의 외국어양성 학교인 사이관과는 달리 조선의 외국어 교육 전문기관인 사역원은 고려 후기에 이미 존재했던 통문관(通文館)에 그 뿌리를 두고 설립된 것이다.

㉔통문관(通文館). 충렬왕(忠烈王) 2년(1276)에 처음으로 이를 설치하였는데, 금내학관(禁內學官) 등 참외(參外)로서 나이 40이 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한어(漢語)를 익히도록 하였다 당시 역관[舌人]들이 미천한 출신들이 많아 말을 전할 때에 사실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간사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므로, 참문학사(參文學事) 김구(金丘)가 건의하여 이를 두었던 것이다. 뒤에 사역원(司譯院)을 두어 통역을 담당하게 하였다.¹³⁴⁾

위의 기사에는 고려시대 통문관의 설립 기록이 실려 있다. 통문관은 충렬왕(忠烈王) 2년(1276) 참문학사(參文學事) 김구(金丘)의 건의로 설치되는데, 당시 김구는 역관들의 간사한 행위 때문에 폐단이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통문관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당시 역관들의 대부분이 미천한 자들이라는 점을 폐단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통문관의 교육 대상을 금내학관(禁內學官)¹³⁵⁾의 참외(參外) 중 나이 40세 미만의 문신들로 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 통문관은 사역원으로 바꾸면서 비로소 역관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¹³⁶⁾

㉕고려 충렬왕 2년에 중국어를 공부하도록 처음으로 통문관(通文館)을 설치하였다 건국 초에 사역원을 설립하였고 주변에 여러 언어를 통역하도록 하였다.(出輿地勝覽).¹³⁷⁾

게다가 위의 『通文館志』 연혁 관계를 참고해보면 고려 충렬왕 2년 처음으로 통문관을 설치하고 한어를 익히게 하였는데, 조선에는 사역원이라는 이름으로

134) 鄭麟趾, 『高麗史』, 志第三十, 百官一, 通文館. “通文館. 忠烈王二年, 始置之, 令禁內學官等參外, 年未四十者, 習漢語 時, 舌人多起微賤, 傳語之間, 多不以實, 懷奸濟私, 參文學事金丘建議, 置之. 後置司譯院, 以掌譯語”.

135) 禁內學官은 고려시대 궁궐 안에 설치하였던 학문기관(學問機關)에 소속된 6개 학관의 총칭이다.

136) 백옥경, 2000, 앞의 논문, 139~140쪽.

137) 김지남, 『通文館志』, 卷一, 沿革 官制. “高麗忠烈王二年, 始置通文館習漢語, 國初置司譯院, 掌譯諸方言語(出輿地勝覽).”

사용하여 사역원을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기사를 통해 통문관이 그 연원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통문관이 포함되면 사역원은 갑오경장(甲午更張)¹³⁸⁾으로 폐지되기까지 600여 년간 계속 유지되었다.¹³⁹⁾

건국 초 사역원의 설립은 조선의 국책인 '사대교린¹⁴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국한지 얼마 안 된 조선은 자국의 안정을 기하면서, 대외적으로 정치적·문화적·경제적인 실익을 얻고자 명과의 우호적인 외교관계 수립이 필요하였다. 또한 극심했던 왜의 침입을 막고 만주일대 및 압록강·두만간 남쪽에까지 들어와 살던 여진족을 무마하기 위해 일본·여진과도 적절한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역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 『通文館志』 서문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③우리나라는 서쪽으로 요,연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일본과 이웃하고, 야인과 경계하였다. 기자조선 이래로 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그들과 교통과 왕래가 끊어지지 않았다. 고려에는 통문관이 있었고, 조선에는 사역원이 있는데, 두 기관으로 사대교린의 일을 담당해왔다. 따라서 수천 년 동안 조공과 접대에 능숙하고 나라의 염려를 없애 주었다.¹⁴¹⁾

이 서문에서 조선은 당시의 일본을 '섬 오랑캐', 여진족을 '야인'이라고 불렀다. 서쪽으로는 중국의 요·연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일본과 이웃하고, 북쪽으로는 여진과 경계하는데, 기자조선 이래로 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그들과 교통과 왕래가 끊어지지 않았다. 사대교린의 일은 고려에는 통문관이 맡았고, 조선에는 사역원이 오로지 맡아봤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조공과 접대에 능숙하고 나라의 근심을 없애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과의 통교에 관한 사적인 『通文館志』에 따르면 사역원의 설립 목적은 단 한 가지만 있는데 바로 사대교린의 일들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에게 명은 14세기말 15세기초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정치·군사 대국이었으며, 또한 땅이 넓고 물자가 풍부한 경제 대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역의

138) 조선조 26대 고종(高宗) 31(1894)년 조선정부가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통해, 재래의 문물제도를 버리고 근대적인 서양의 법식(法式)을 본받아 새 국가체제를 확립하려던 정책이다.

139) 정승혜, 「한국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2002, 292쪽.

140)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새로운 왕조를 세운 조선은 사상적 측면에서는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농억상(重農抑商) 정책을, 외교적 측면에서는 사대교린(事大交鄰) 정책을 내세웠다(高光一, 「朝鮮時代 中國語 教育 研究 : 譯官 養成 및 教材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2006, 6쪽의 각주14).

141) 김지남, 『通文館志』, 序. "我東西接遼燕, 南隣島夷, 比界野人, 粵箕子以來歷羅麗之世使命交通還往不絕及乎. 勝國有通文館, 本朝有司譯院, 專掌事大交隣之事, 上下數千年間, 朝聘應對有能, 以紓患".

대상국으로 인식되었다. 조선에 있어서 명은 조선 왕조의 지배이념이던 유교의 종주국이자 과학기술을 비롯한 문화의 선진국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가입하고, 중국이 요구하는 국제외교질서인 조공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런 국제적 관계를 잘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선은 중국어 역관의 양성을 매우 중시해왔다. 이런 점은 태조 3년 사역원 제조(提調) 설장수(契長壽)가 올린 건의에서도 잘 볼 수 있다.

③우리나라가 대대로 중국을 섬겨 언어와 문자를 익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까닭에 전하께서 국가를 창건할 당초부터 특히 본원을 설치하고 녹관(祿官)과 교관을 두어 생도를 가르치고, 중국의 언어와 음과 뜻이며, 글 짓는 방식까지 익히게 하여, 위로는 대국을 섬기는 성의를 다하고 아래로는 풍속을 바꾸는 실효를 얻게 하십니다.¹⁴²⁾

그는 조선이 대대로 '사대'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중국의 언어와 문자를 익히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사역원을 설치함으로써 위로는 사대의 성의를 다하고 아래로는 풍속을 바꾸는 실효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역원은 중국어를 중심으로 외국어 인재를 양성한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역원을 설치함으로써 중국말을 익히게 하였던 것이다.¹⁴³⁾ 이와 같은 사역원 설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조선 설립초로부터 100년 가까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사료와 같다.

③우리나라는 외진 바다 밖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음이 같지 않은데, 조빙(朝聘)·공헌(貢獻)으로 인하여 왕래(往來)가 빈번하므로 역학(譯學)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역원(司譯院)을 설치하여 그 일을 전담하게 했고....
..¹⁴⁴⁾

조선 성종 7년에 사헌부 대사헌(司憲府 大司憲) 윤계겸 등이 올린 상소(上疏)에 따르면 조선은 외딴 바다 밖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음성이 같지 않은데, 조공으로 인해 왕래가 빈번하여 역학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사역원을 설치하고 통번역 일들을 전담하게 하였다. 이 기사도 조선은 100년

142) 『太祖實錄』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國家世事中國，言語文字，不可不習。是以殿下肇國之初，特設本院，置祿官及教官，教授生徒，俾習中國言語、音訓、文字、體式，上以盡事大之誠，下以期易俗之効".

143) 『太祖實錄』 4권, 태조 2년 9월 19일. "사역원(司譯院)을 설치하고 중국말을 익히게 하였다."

144) 『成宗實錄』 67권, 성종 7년 5월 15일. "我國逸在海表，與中國語音殊異，而朝聘貢獻往來陸續，以爲譯學不可以不重。故設司譯院以專其事....."

가까이 지나도 먼저 명과의 교제를 위해 역학기관인 사역원을 설립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명나라로부터 받은 압박도 조선이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인재의 양성을 특별히 중시한 원인이 되었다. 아래의 사료를 참고하자.

㉔ 홍무 28년 柳珣을 사신으로 보내어 이듬해 신정을 축하하도록 했는데, 황제는 표문의 어휘가 오만하다고 하여 책망하였다 30년 겨울, 또 다시 표문이 잘못되었다고 나무라며 그 사신을 구속하게 하였다.¹⁴⁵⁾

홍무 28년에 조선이 유순(柳珣)을 사신으로 보내 이듬해 신정에 공물을 바치도록 했는데, 명태조는 표문(表文)의 어휘 표현이 너무 오만하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2년 후에 또 다시 표문이 잘못되었다고 나무라며 보낸 사신을 구금하였다. 이 사건들을 보면 명은 조선이 작성한 표문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엄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이 중국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㉕ 그대 나라에서 사신이 다시 올 때에는 중국어를 아는 사람을 보내고, 중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다.....¹⁴⁶⁾

위에 나오는 기록에 따르면 명이 조선에게 내려준 성지(聖旨)에는 이른바 '대국(大國)'의 오만한 태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명태조는 조선에서 사신이 다시 올 때에는 중국어를 아는 관료만 보내고, 중국어를 알지 못하는 관료는 올 필요가 없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조선은 명과의 사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굴욕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었다. 중국어에 능통한 관료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 요구는 통역의 책임과 임무를 조선 측에 많이 부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긴장관계에 처해 있던 조·명 관계로 보아, 이는 역시 명태조의 의도적인 처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본다.

또한 몽골의 침입 우려, 일본과의 정식 국교 재개, 여진과의 교류 활성화 등 세종 대까지 계속되는 외교 문제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역관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물론 이들 국가와의 교류는 중국과의 관계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이들과의 관계를 전혀 폐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역학과 역관의 중요성은 자주 강조되었다. '사대(事大)하는데 역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¹⁴⁷⁾ 인식이 모두에게 공유된 것

145) 張廷玉, 『明史』, 朝鮮列傳. "二十八年, 遣使柳珣賀明年正旦, 帝以表文語慢, 詰責之 三十年冬, 復以表涉譏訕, 拘其使."

146) 『太祖實錄』 11권, 태조 6년 3월 8일. "爾那里使臣再來時, 漢兒話省的著他來, 一發不省的不要來....."

147) 『世宗實錄』 45권, 세종 11년 9월 6일. "우리나라가 사대(事大)하는데 있어서 역학(譯學)보다 더 중한 것은 없습니다."

은 물론이고, 역관을 더욱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가운영에 필요한 문물수용과 대외관계 변화에 대응하고자 태조 2년(1393)에 고려시대에 설치된 통문관을 계승하여 역관양성 기관인 사역원이 설립하였다.¹⁴⁸⁾

수업 과목의 관리에 대해 사이관은 '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사역원은 '학'으로 구분해 관리가 이루어졌다. 10관에 비해 총 4개만 과정이었는데, 한학(漢學), 몽학(蒙學), 왜학(倭學), 여진학(女眞學)이라고 하였고, 합하여 '사학'이라고 불렀다. 즉 사역원에서 공부하는 언어는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여진어 네 종류였다. 1393년에 9월 19일에 사역원을 설치하고 중국어를 익힐 수 있는 중국어 과정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몽골어 과정은 기록에 확실히 나타나지 않으나, 중국어 과정이 설치된 적어도 이듬해(1394) 이전에 몽골어 과정이 개설되었던 보인다. 이는 설장수의 상소문 속에 한학과 함께 몽학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사실로 추정할 수 있다.

㉞교수의 정원은 3인으로 되고, 그 가운데 중국어를 2명으로 하고, 몽고어를 1명으로 하여 후하게 봉급을 줄 것입니다.¹⁴⁹⁾

위의 상소문을 보면 사역원에는 '교수(教授)' 즉 교사가 세 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중 중국어 교사 두 명, 몽골어 교사 한 명을 두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몽골어 교사를 두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즉 태조 3년(1394)에 몽골어 과정은 이미 개설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世宗實錄』의 기록을 통해 태종 15년(1415)에 왜학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㉟예조에서 아뢰기를, "지난 을미년 수교(受教)에, '왜학(倭學)을 설치하고 외방 향교(鄕校)의 생도와 양가(良家)의 자제들로 하여금 입학하게 하여, 사역원과 병합하여 몽학(蒙學)의 예에 따르라.' 하였다."¹⁵⁰⁾

여기서 '을미년(乙未年)'은 바로 1415년을 가리키며, 이 기사에는 1415년에 왜학을 설치하고 지방 학교의 학생과 양가자제(良家子弟)들로 하여금 사역원에 들어가게 하여, 몽학의 예에 따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어와 몽골어에 이어, 일본어 과정도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¹⁵¹⁾

148) 사역원은 조선 건국 당시에 바로 설치되지 않았고, 건국 후 1년 2개월 뒤인 태조 2년 9월 19일에야 설치되었다. 이 시점은 명이 사신을 입국금지 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역원은 조선이 명과의 관계가 막 악화되기 시작하던 때에 설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崔桂花, 2012, 앞의 논문, 64쪽).

149) 『太祖實錄』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額設教授三員內, 漢文二員、蒙古一員, 優給祿俸".

150) 『世宗實錄』 49권, 세종 12년 8월 29일. "禮曹啓: "去乙未年受教: '設倭學, 令外方鄕校生徒良家子弟入屬, 合于司譯院, 依蒙學例遷轉."

③예조에서 계하기를, “야인(野人)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대, 다만 향통사(鄉通事)로 하여금 말을 통역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함길도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여진어(女眞語)와 본국어에 능한 자 3인을 선택하여 사역원에 입학시켜 야인관 통사(野人館 通事)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⁵²⁾

그리고 위의 세종실록에 따르면 여진인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 다만 향통사(鄉通事)¹⁵³⁾로 하여금 말을 통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함길도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여진어와 본국어 즉 조선어에 능한 자 3명을 선택하여, 사역원에 입학시켜 여진어 통사로 삼도록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진학은 세종 8년(1426)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진학은 17세기 전반 중국에서 명을 대신하여 청나라가 들어가면서 현종 8년(1667)에 청학(淸學)으로 개칭되었다.¹⁵⁴⁾ 각 과목의 자리는 청나라가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한 이후에 한학, 청학, 왜학, 몽학 순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사역원의 성립에서부터 사학의 성립과정, 여진학이 청학으로 바뀌는 현상, 사역원 서열의 변화는 모두 조선을 둘러싼 해외 정세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한학이 사학의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사역원은 두 가지 직능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조선의 외교적 기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외국어를 교육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직능이다. 둘째는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 등을 맡아보는 일반 관청으로서의 직능이다. 사역원은 정3품아문(衙門)으로서 정3품에서 중9품에 이르는 여러 직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역원의 직제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③司譯院은 여러 나라의 언어를 통역하는 일을 맡는다. 都提調 1명, 提調 2명이 있고 教授와 訓導 이외는 체아직으로서 兩都目을 임기로 한다. 취재할 때 2등한 사람은 外任으로 보낸다.¹⁵⁵⁾

위의 『經國大典』에서는 사역원의 성격과 직제가 언급되었다. 사역원에서는

151) 그러나 태종 14년 11월 병신에 왜학통사 尹仁甫의 상서에 의하여 “命司譯院習日本語”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실지의 준비는 조금 앞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신항, 「한 일 양국역관에 대한 비교연구」, 『人文科學』 23,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34쪽의 각주 2).

152) 『世宗實錄』 33권, 세종 8년 9월 22일. “禮曹啓: “野人連續上來, 只令鄉通事傳語未便, 請咸吉道居人內, 擇其女眞及本國語俱能者三人, 屬於司譯院, 爲野人館通事.” 從之”.

153) 향통사는 외국과의 교류지를 중심으로 봉사자에 종사하게 했던 지방 통역인이었다. 그의 주요 임무는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접대를 맡는 것이었다 (백옥경, 2000, 앞의 논문, 54쪽).

154) 김지남, 『通文館志』 卷一, 연혁 관제조, “康熙丁未, 女眞學改稱淸學”.

155) 『經國大典』 卷一,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司譯院條. “掌譯諸方言語, 都提調一員, 提調二員, 教授訓導外遞兒, 兩都目取才居次者, 差外任”.

모든 외국어의 통역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도제조(都提調)는 한 명, 제조(提調)는 두 명이다. 도제조란 조선시대 6조에 속해 있는 아문·군영 등 중요 기관에 명예직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무에는 종사하지 않았으며, 제조란 각 사(司)·원(院)의 우두머리가 아닌 종1품, 또는 2품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겸직으로 임명되고, 그 관청의 일을 감독한 관직을 말한다. 그리고 교수(教授)와 훈도(訓導)도 있는데 그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직은 체아직(遞兒職)이다. 1년에 취재(取才) 시험에서 성적이 낮은 자는 지방관에 임명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사역원의 직제는 크게 '내직(內職)', '외임(外任)'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⁵⁶⁾

내직은 한성의 사역원 본원에서 근무하는 역관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특별 채용을 제외하고는 생도로부터 출발하여 사역원의 정규 교육을 이수한 후, 취재 및 역과와 같은 공식적인 시험 절차를 거쳐 관직에 임용될 수 있었다. 중앙 역관은 3개월마다 실시되는 취재에서 1등에 있어야만 관직에 임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외임 역관에 비해 실력도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처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외교 교섭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역원에 임용되어 외교관계의 실무를 담당 하였던 존재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經國大典』 사역원조에 의하면 도제조와 제조는 바로 내직에 속한다. 도제조는 정1품 관원이, 제조는 2품 이상의 관원이 겸임하여 사역원의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였다.¹⁵⁷⁾ 사역원의 제조는 세종 5년(1423) 3명으로 규정되었다가¹⁵⁸⁾ 약간의 변화를 거치면서 2명 체제로 정비되었다. 도제조·제조는 원칙적으로 2품 이상의 문신이 겸직하는 것이라 하였기 때문에 역관은 사역원의 제조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역관이 임용되는 경우도 나타나 있는데 태조 3년(1394) 설장수의 상소문에 그는 제조로 활동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¹⁵⁹⁾ 게다가 세종 15년(1433)에 역관 김시우(金時遇)가 역학 제조로 임용된 것을 비롯하여,¹⁶⁰⁾ 세종 20년(1438)에 김을현(金乙玄)이 사역원 제조였는가 하면,¹⁶¹⁾ 성종 17년(1486)에는 장유화(張有華)를 사역원 제조로 삼으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¹⁶²⁾ 물론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원칙에 어

156) 역관은 근무지 혹은 활동 지역에 따라 크게 한양에서 활동하는 중앙 역관과 지방에서 활동하는 외임 역관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백옥경, 2002, 앞의 논문, 132쪽).

157) 『經國大典』 卷一,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承文院條. "正一品稱都提調, 二品以上稱提調....."

158) 『世宗實錄』 19권, 세종 5년 3월 24일.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는 3명....."

159) 『太祖實錄』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 설장수(偈長壽) 등이 글을 올려서 말하였다....."

160) 『世宗實錄』 59권, 세종 15년 1월 18일. "김시우(金時遇)가 사역원 제조(提調)가 되자....."

161) 『世宗實錄』 83권, 세종 20년 11월 4일. "예조 판서 민의생(閔義生)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김을현(金乙玄)이 역시 제조가 되었으므로....."

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신들의 반발을 사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성종대 황중(黃中)을 사역원 제조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문신들에 의해 미친한 가계(家系) 출신이라 통역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사역원제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의 불법적인 행동을 폭로하고 사역원 제조에서 교체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¹⁶³⁾ 그러나 이와 같이 사역원 제조에 역관들이 임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반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앞에 나온 교수와 훈도도 내직에 속한다. 그들은 생도교육을 담당하는 중요성 때문에 일찍부터 실직(實職)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실직은 임기를 30개월이나 90개월로 하는 오랫동안 재임될 수 있는 관직이다. 교수와 훈도는 각각 임기가 900일로 규정되어 있었고, 매년 양도목(兩都目)¹⁶⁴⁾마다 교체해야 하는 체아직(遞兒職)보다는 훨씬 우대받는 직책이었다. 조선초기에는 중국어에 능통한 현지인 교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귀화인을 한어훈도(漢語訓道)로 삼는 것으로 이 필요를 만족시켰다. 이런 인물들은 서사영(徐世英), 장현(張顯) 등이 있었다.¹⁶⁵⁾ 몽학 같은 경우에는 태종 10년에 몽고어 훈도를 두고 몽학 생도를 충원하는 데 힘썼다.¹⁶⁶⁾ 태조 대에 이르러서는 사학 중 한학 교수 2명, 한학 훈도 4명을 두고, 몽학, 왜학과 여진학 훈도 각 2명을 뒀으므로 교수와 훈도의 수를 고정시켰다.¹⁶⁷⁾

마지막으로, 체아직도 내직에 속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내직에는 교육을 담당한 교수와 훈도만이 실직이고 나머지는 임시직인 체아직이었다고 한다. 체아직은 그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는 명예직인데 일정한 녹봉도 없고 1년에 4회 시험을 쳐서 그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녹봉을 주는 것이었다.¹⁶⁸⁾ 이러한 실직이 아닌 체아직은 세종 초년에 정비되었는데 역관에게 주어지는 관직은 교수와

162) 『成宗實錄』 188권, 성종 17년 2월 5일. “강이관(講肄官)은 모두 사족(士族)의 자제(子弟)인데, 만약 장유화(張有華) 등을 제조로 삼는다면 강이관이 반드시 수치로 여겨 마음을 다 해서 학업을 연마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163) 『成宗實錄』 169권, 성종 15년 8월 8일. “황중(黃中)이 이제 사역원 제조가 되어 범을 어긴 일이 많이 있고, 아래 관원을 침노하여 만족할 줄 모르고 거뒀들이며, 또 강이관(講肄官)이 된 자는 거의 다 의관(衣冠)의 자제인데 황중이 거만하게 대우하므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황중은 이름이 제조이기는 하나 역학(譯學)에 대하여 무식해서 아는 것이 없으므로 가르치는 것은 없고 한갓 탐욕을 부릴 뿐이니, 청컨대 제조를 개정하소서.”

164) 도목은 吏曹·兵曹에서 행하는 인사행정이다. 1년에 한 번 행하는 것은 單都目, 두 번 행하는 것을 兩都目, 네 번 행하는 것을 四都目이라고 하였다.

165) 『世宗實錄』 卷63, 세종 16년 1월 4일. “한어훈도(漢語訓導)에 사정(司正) 서사영(徐士英)과 장현(張顯) 등을 추가 임명할 것이며..... 서사영과 장현은 본시 중국인이었다.”

166) 『太宗實錄』 19권, 태종 10년 1월 14일. “몽어(蒙語) 훈도관(訓導官)을 두고, 전 봉어(奉御) 주언(周彦)과 전 중랑장(中郎將) 송희명(宋希明)으로 이를 삼았다.”

167) 『世祖實錄』 38권, 세조 12년 1월 15일. “한학(漢學)은 교수 둘, 훈도 넷을 두고 몽학(蒙學)·왜학(倭學)·여진학(女眞學)은 훈도 각각 둘씩을 두었다.”

168) 『磻溪隨錄』 卷十六 職官之制. “遞兒, 無定祿而四時考講, 以其分數, 遞相高下付祿, 謂之遞兒.” (高光一, 2006, 앞의 논문, 13쪽 각주32에서 재인용).

훈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체아직으로 규정되었다고 하였다. 체아직으로 활동하는 역관에게는 주어진 토지가 급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대우였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평생에 고생을 하며 학업에 전념하는 최대의 목표는 오로지 북경에만 가려는 것이었다.¹⁶⁹⁾ 사절단에 수행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역원의 내직은 겸직인 도제조 1명과 제조 2명이 포함되면 총 32명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교수와 훈도 외에는 다른 관직들도 있다. 다음의 <표 1> 와 같다.

<표 1> 『經國大典』에 기록된 사역원의 내직 상황

| 품계 | 관직 | 인원 수 | 비고 |
|-----|------|------|--------------|
| 정3품 | 정 | 1 | |
| 종3품 | 부정 | 1 | |
| 종4품 | 침정 | 1 | |
| 종5품 | 판관 | 2 | |
| 종6품 | 주부 | 1 | |
| 종6품 | 한학교수 | 4 | 2명은 문신이 겸한다. |
| 종7품 | 직장 | 2 | |
| 종8품 | 봉사 | 3 | |
| 정9품 | 부봉사 | 2 | |
| 정9품 | 한학훈도 | 4 | |
| 정9품 | 몽학훈도 | 2 | |
| 정9품 | 왜학훈도 | 2 | |
| 정9품 | 여진훈도 | 2 | |
| 종9품 | 참봉 | 2 | |

외임은 사역원 관원으로서 변방 국경 지대나 외국 사신 왕래의 주요 지점에서 접대나 안내의 임무를 맡은 자들이다. 외임 역관으로 불리는 이들은 크게 역학훈도(譯學訓道)와 역학겸군관(譯學兼軍官)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교수와 훈도 이외의 체아로서 양도목 취재 때의 성적이 낮은 자를 외임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점차로 외임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여 보내게 되었다. 외임 역관은 『經國大典』 반포 당시에는 겨우 5명뿐으로 되어 있었다.

- ④ 경상도: 왜학훈도 2인 (부산포, 제포) → 종9품
- 황해도: 역학훈도 1인 (황주) → 종9품
- 평안도: 역학훈도 2인 (평양, 의주) → 종9품¹⁷⁰⁾

169) 『譯官上言謄錄』, 孝宗7년 10월 17일. "역관들 가운데 업무 향상을 희망하는 자들은 오로지 북경에만 가려고 하는데....."

170) 『經國大典』, 吏典, 外官職. "慶尙道 : 倭學訓導 二員 (釜山浦, 薺浦) → 從九品 黃海道 : 譯學

위에서 보이는 왜학훈도 두 명은 지금의 부산 근처의 일본과의 왕래와 접촉한 지역에 두었으며, 황해도와 평안도에 두었던 역학훈도는 한학훈도(漢學訓道)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거기서 중국어 훈도 총 세 명을 둔 이유는 무엇보다도 평양과 의주가 명나라 사신이 왕래하는 중요한 지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후에는 역학훈도 외에 역학검군관이 직종까지 두는 등 많은 양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역학훈도는 종9품으로 30개월이 임기였다. 중앙의 관직 대다수가 체아직인 것과는 달리 약 3년을 근무할 수 있었다.¹⁷¹⁾ 그리고 그들은 사역원의 원적에 기록되어 있어, 근무가 끝나면 사역원에 다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다.¹⁷²⁾ 역학검군관은 주로 여진과 일본의 교류지에 파견되었으며, 특히 주요 사신 경유지가 아닌 지역에 파견된 외임 역관이였다. 이들은 외국과의 정례적인 교섭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파견된 검군관은 역학훈도보다는 지위나 대우 면에서 훨씬 더 열악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의 임무는 여진과 접경지대에서 여진인의 접대를, 제주에서는 표류한 일본선박의 정보를 알아보기를 담당하였다.

2. 교사와 교육생 충원

사역원에는 관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숙박하는 방 즉 생도방(生徒房)을 설치하여 역관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선후기에 시험을 치러야 입학할 수 있다는 까다로운 조건에 비해¹⁷³⁾ 조선전기에 있어서 생도들의 입학방법과 기준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료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초기 학생충원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는데 크게 양가자제(良家子弟), 천첩자손(賤妾子孫), 향교생도(鄕校生徒),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④육학(六學)을 설치하고 양가(良家)의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익히게 했으니, 첫째는 병학(兵學), 둘째는 율학(律學), 셋째는 자학(字學), 넷째는 역학(譯學), 다섯째는 의학(醫學), 여섯째는 산학(算學)이었다.

서울의 부와 각 도의 계수관(界首官)으로 하여금 양민의 자제 중 15세 이하의 자질이 명민한 자를 해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올리게 할 것.¹⁷⁴⁾

『太祖實錄』의 두 기사에 따르면 태조 2년에 역학을 포함한 6학의 설치하였

訓導 一員 (黃州)→ 從九品 平安道 : 譯學訓導 二員 (平壤, 義州)→ 從九品”.

171) 백옥경, 2002, 앞의 논문, 141쪽.

172) 김지남, 『通文館志』, 卷一 外任條. “名在原籍, 分差外方, 而瓜遞後, 還仕本院.”

173) 김지남, 『通文館志』, 卷一 入屬.

174) 『太祖實錄』 4권, 태조 2년 10월 27일. “設六學, 令良家子弟肄習. 一兵學, 二律學, 三字學, 四譯學, 五醫學, 六算學”; 『太祖實錄』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令在京五部及各道界首府州, 擇良家子弟十五歲以下天資明敏者, 歲貢一人.”

을 때는 양가자제로 하여금 역학을 익히게 하였으며, 태조 3년에 사역원의 운영 방안에서도 양가자제를 입학시키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양가자제는 양반 관료층을 포함하고 천인에 대비되는 광의의 양인을 가리킨다.¹⁷⁵⁾ 조선 초기에는 양가자제 중에서 15세 이하의 자질이 명민한 자원자들을 우선으로 충원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천인을 제외한 양인 이상에게 역관으로의 충원이 개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양인 전체를 교육대상으로 하여 유능한 역관을 충원하고, 특히 언어 교육의 특성상 어린나이의 총명한 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역관의 양성효과를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였다.¹⁷⁶⁾ 양가자제는 사역원에 입학했으면 국가로부터 음식과 옷의 제공, 친척들의 군역의 면제,¹⁷⁷⁾ 가족의 서울에서의 생활비 지급¹⁷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역학생도로 입학하게 되면 관직 진출에서도 훨씬 유리할 수 있었다. 생도들은 취재를 통해 7품까지의 관직에 진출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역과를 통해 6품 이상의 고위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⁷⁹⁾ 이렇게 초기에는 사역원 학생에 대한 대우가 좋았기 때문에 성종 대에 이르러, 사역원에 입학하려는 사람이 많았고 학업에 능통한 사람도 많았다.¹⁸⁰⁾

하지만 연소충민 양가자제를 역학생도로 설정한 뒤에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지원한 자들이 매우 드물다고 하였다.¹⁸¹⁾ 조선시대에 기술관으로 여겨진 역관은 유교적인 소양을 갖추거나 문무관과 차별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시 대부분 양가자제들은 역관이 되는 것을 싫어하였다. 따라서 앞서 나온 '서울의 5부와 각 도의 계수관(界首官)¹⁸²⁾으로 하여금 기준에 충족하는 양가자제를 선발하여 보내도록' 조치함으로써 학생충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양가자제 외에 천첩자손(賤妾子孫)도 역관의 충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천첩자손은 서얼(庶孽)이라고도 한다. 그들은 본래 사족(士族)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천한 모계로 인해 사족의 대우와 지위를 누리지 못하였다.¹⁸³⁾ 아래의 기사를 보자.

175) 백옥경, 2003, 앞의 논문, 각주 10.

176) 백옥경, 2006, 앞의 책, 56쪽.

177) 『成宗實錄』 98권, 성종 9년 11월 21일. "생도(生徒) 등은 거의 모두 외지(外地)에 사는 사람이므로, 이보다 앞서서 동거하는 아버지와 형과 동생에게는 모두 부역을 감해 주었고, 친척이 없는 자에게는 별도로 봉족(奉足)을 주었으며, 또 의복까지 주었습니다."

178) 『世宗實錄』 63권, 세종 16년 1월 4일. "역학생도(譯學生徒) 중에 외방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당번한 감사의 예에 의하여 완전히 그 본가를 돌보아 주고, 또 서울에서의 생활비를 제공해 줄 것이다."

179) 백옥경, 2003, 앞의 논문, 5쪽.

180) 『成宗實錄』 98권, 성종 9년 11월 21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되기를 원하여 인제가 많이 배출되었었는데..."

181) 『太祖實錄』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이것을 배울 생도는 자원하는 자가 드무니..."

182) 계수관은 고려와 조선 초기에 있었던 지방제도의 한 형태로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대응 혹은 그 곳의 수령을 지칭을 말한다.

183) 백옥경, 2003, 앞의 논문, 13쪽.

④천첩(賤妾)의 맏아들·맏손자가 승중(承重)한 사람과, 적실(嫡室)에서 비록 아들이 있더라도 양첩의 중자(衆子)·중손(衆孫)에게는 사율원(司律院)·사역원(司譯院)·서운관(書雲觀)·전의감(典醫監)·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에 입속(入屬)하게 하였다.¹⁸⁴⁾

위의 세종 28년 10월의 기사에 따르면 천첩의 맏아들과 맏손자와 양첩의 둘째 아들은 사역원 입학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천첩자손과 양첩자손이 조정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다.

④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전에 본조(本曹)에서 내의원(內醫院)·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사역원(司譯院)·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은 곧 국가의 가장 요긴한 업무이기에 마땅히 소속된 사람을 흥기시켜 전문(專業)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제 천첩(賤妾)의 자손들도 입학하게 하고 있어서, 그 동료들이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그 소임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취지에 방해가 되는 듯합니다. 위항의 삼사(三司)는 정3품(正三品)의 아문(衙門)으로서 동반(東班)의 열(列)에 들어있는 곳인데,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은 매우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천첩(賤妾)의 자손은 제외하고 양첩(良妾)의 자손만을 허락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¹⁸⁵⁾

성종 대에 이르러, 천첩자손의 입학에는 심한 반대가 있었다. 위의 예조의 상소문을 통해 국가의 가장 요긴한 업무기관 중의 하나인 사역원에는 천첩의 자손들도 입학하게 하고 있어, 그 동료들이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며, 양인과 천인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은 매우 마땅치 않기 때문에 천첩의 자손은 제외하고 양첩의 자손만을 입학하게 한다는 주장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후에는 천인들이 사역원에 입학하지 못하게 하였다.¹⁸⁶⁾ 앞에서 소개했던 두 가지 생도충원 기준을 제외하고는 향교생도(鄕校生徒)도 역관의 충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④왜학(倭學)을 설치하고 외방 향교(鄕校)의 생도와 양가(良家)의 자제들로 하여금

184) 『世宗實錄』 114권, 세종 28년 10월 19일. “賤妾長子孫承重者及嫡室雖有子, 良妾衆子孫, 許於司律院司譯院書雲觀典醫監濟生院惠民局入屬”.

185) 『成宗實錄』 139권, 성종 13년 3월 11일. “禮曹啓: “前此本曹據內醫院、典醫監、惠民署上言啓曰: ‘司譯院、觀象監、典醫監, 則國家最緊之務, 須令興屬, 而專業, 今使賤妾子許屬, 故其僚羞與爲伍, 不樂其任, 有妨國家獎勸之意. 上項三司, 則以正三品衙門, 廁於東班之列, 而良賤相混, 至甚不當. 自今除賤妾子, 只令良妾子許屬何如?’”

186) 『成宗實錄』 139권, 성종 13년 3월 11일. “그러기에 전에 아뢰었던 것과 같이 위의 삼사에 대하여는 다만 양첩의 자손들만을 입학하게 하였다.....”

입학하게 하여, 사역원과 병합하여 몽학(蒙學)의 예에 따르라고 하였다.

경기(京畿)·충청도(忠淸道)의 향교 생도(鄕校生徒) 중에 영리한 자와 향리(鄕吏)의 3정1자(三丁一子) 중에 문리(文理)를 잘 깨칠 만한 자로서, 경기에서는 3인을, 충청도에서는 4인을 가려 보내어 실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87)

세종 12년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 을미년(1415)에 왜학을 설치할 때 외방 향교의 생도의 자제들로 하여금 입학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종 7년에 몽학 생도가 10명으로 입학해야 하는데, 당시 근무하는 자는 3명밖에 없었다. 또한 입학하기를 구하는 자도 없으니 점차 몽학이 폐쇄될까 염려가 되었다. 따라서 경기도·충청도의 향교생도 중에 똑똑한 자와 향리(鄕吏) 중에 문과와 이공과를 잘 하는 자로서, 경기에서는 3명을, 충청도에서는 4명을 가려 보내어 공부하라고 건의하였다. 향교생도는 향리 출신인데 그들은 조선시대에 지방관 아래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던 하급 관리를 말한다. 향리가 문무과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은 역과를 통하여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였다.188)

정부는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역학생도의 다른 모습도 보였다. 예를 들어, 균역을 면하려는 자들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역관으로 활동하던 자들 중에는 상인으로 불리거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역관들은 양반 지배층에게서 꺼림을 더욱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실제로 역관의 충원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초기에 한어를 비롯한 몽고어·왜어·여진어 교관을 두어,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훈도(訓道)라고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들은 내직과 외임에 모두 종사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사역원에서 공부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역어를 담당하는 훈도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이관과 마찬가지로 조선 초기에 교육제도 정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으므로 역어에 능통하고 가르침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문헌에 훈도에 대한 직제의 기록이 나와 있으나 훈도에 대한 선발 기록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도 사료와 연구의 정리를 통해 그들의 충원 방식은 문신과 귀화인 두 가지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④문관훈도(文官訓導)를 사역원에 두었다. 정부에서 아뢰었다. "사역원 학생은 중국어의 음만 공부하므로, 의미나 이치 같은 것은 전혀 통하여 깨닫지 못하니, 이제부

187) 『世宗實錄』 49권, 세종 12년 8월 29일. "設倭學, 令外方鄕校生徒良家子弟入屬, 合于司譯院, 依蒙學例遷轉." 『成宗實錄』 73권, 성종 7년 11월 18일. "令京畿、忠淸道鄕校生徒中穎悟者及鄕吏三丁一子中通曉文理者, 京畿三人, 忠淸道四人, 擇送肄習何如?"

188) 백옥경, 2003, 앞의 논문, 11쪽.

터는 문신으로 훈도관(訓導官)을 삼아 우리나라의 음을 함께 써서 의미와 이치를 가르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¹⁸⁹⁾

위의 사료는 문관을 훈도로 사역원에 두는 상소문이다. 당시 사역원 학생은 한자와 중국어 발음만 공부해왔기 때문에 경학과 성리학(性理學)에 밝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문신으로 훈도를 삼아 모국어의 음을 함께 써서 경학과 성리학을 가르치라고 요청하였다. 그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문신은 역관의 충원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¹⁹⁰⁾

문신 외에는 초기에 귀화인을 훈도로 삼아, 역학을 가르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조선은 개국을 전후로 명나라와의 외교·정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귀화인을 통역관으로 많이 임명하였다. 당시 조선의 통역관은 명나라와의 정치 경제적 교류에 필요한 충분한 언어적 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했고, 수적으로도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¹⁹¹⁾

당시 귀화한 중국인 통역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활동한 위구르인 설장수가 있다.¹⁹²⁾ 그는 명과의 외교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태조 3년 사역원 제조로 사역원 설립에 관여하면서 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였다. 그가 올린 사역원 운영 계획서는 교수와 생도의 자격, 상벌, 시험, 관직 승진 규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포괄하고 있었으며, 이때 세워진 사역원의 운영 기틀은 조선 전기 내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¹⁹³⁾ 또한 설장수는 중국어로 『소학(小學)』을 해석하고 이름을 『직해소학(直解小學)』이라고 하여 이를 사역원의 교재로 후세에 전하였다.¹⁹⁴⁾ 설장수 이외에도 야인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도망쳐 나온 중국인 서사영(徐世英)과 장현(張顯)이 귀화하여 한어훈도로 중국어를 가르쳤다. 그 내용은 아래의 사료와 같다.

㉔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해 온 중국사람 서사영(徐仕英)이 말하기를, “일찍이 개원

189) 『太宗實錄』 25권, 태종 13년 6월 8일. “置文官訓導于司譯院. 政府啓: “司譯院學生, 唯傳習漢音, 若義理則全不通曉. 自今以文臣爲訓導官, 兼用本國語音, 教訓義理.” 從之”.

190)李建衡, 「朝鮮王朝의 譯學教育」, 『論文集』 16, 대구교육대학교, 1980, 245쪽.

191) 박종연, 2016, 앞의 논문, 7쪽.

192) 『太祖實錄』 10권, 태조 5년 11월 23일. “관삼사사(判三司事) 설장수(偁長壽)에게 계림(鷄林)을 관향(貫鄉)으로 삼게 해 주었다. 설장수는 회골(回鶻) 사람이다.” 『定宗實錄』 2권, 정종 1년 10월 19일. “관삼사사(判三司事) 설장수(偁長壽)가 죽었다. 휘(諱)는 장수(長壽)요, 자(字)는 천민(天民)이었다. 그 선조는 회골(回鶻) 고창(高昌) 사람이었다. 지정(至正) 기해년에 아버지 백료손(伯遼遜)이 가족을 이끌고 우리나라로 피난하여 오니, 공민왕(恭愍王)이 옛 지인이라 하여 전택(田宅)을 주고 부원군(富原君)으로 봉하였다.”

193) 백옥경, 「여말 선조 설장수의 정치활동과 현실인식」, 『朝鮮時代史學報』 46, 조선시대사학회, 2008, 396쪽.

194) 『世宗實錄』 93권, 세종 23년 8월 11일. “관삼사사(判三司事) 설장수(偁長壽)가 화어(華語)로써 소학(小學)을 해석하고 이름은 직해(直解)라 하여 후세에 전(傳)하였사운데...”

(開元)에 살았으나 본래 원근간의 족친도 없으니, 성심으로 이 나라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정부에 내리어 의논하기를 명하였더니, 좌의정 황희(黃喜)·우의정 맹사성(孟思誠) 등이 의논하기를, “사영(仕英)이 길주(吉州)에 이르러서 먼저 들어와 사는 중국사람 장현(張顯)의 아들을 만나 보아, 이미 현이 벼슬을 받아 사역원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영만을 그의 나라로 풀어 보내기는 불편한 일이고, 또 그가 한문 글자를 조금 알므로 앞으로 소용될 만한 사람이니, 자원에 의하여 머물러 두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195)

위의 기록을 보면 서사영의 사촌형인 장현이 먼저 조선으로 귀화하여 사역원에서 한어훈도로 근무하고 있었고, 서사영도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머물면서 한어훈도로서 중국어를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인 귀화인 외에 다른 민족의 인재도 귀화하여 역관양성 임무에 종사하게 하기도 하였다.

④“여진(女眞) 문자(文字)를 이해하는 자가 불과 1, 2명이어서 장차 황폐하게 되겠으니, 시조인(侍朝人) 및 함길도의 여진인 자제 중에서 여진 문자를 이해하는 자 4, 5명을 추려 뽑아서 사역원에 소속시켜 훈도(訓導)로 삼으시고, 겸하여 통사로 임명하도록 하소서.” 196)

위의 『世宗實錄』 세종 16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여진 문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었기에 함길도의 여진인 제자 중에서 여진 문자를 이해하는 자 4, 5명을 뽑아 사역원에 입학시켜 훈도로 삼고, 겸하여 통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학습교재와 평가

조선시대에 사용된 외국어 교재를 일반적으로 역학서라고 한다. 임진왜란 전인 조선초기에는 주로 해당 외국어의 어린이용 교과서 등을 수입하여 외국어 교재로 사용하였고, 임진왜란 후에는 비로소 훈민정음으로 발음을 달고 그 뜻을 푸는 언해서(諺解書)들이 간행되기 시작한다. 언해서는 한문에 한글 음을 단 음과 한문을 한글로 풀어서 쓴 책을 말한다. 이들은 중국어 교재인 한학서, 몽고어 교재인 몽학서, 여진어 교재인 청학서, 일본어 교재인 왜학서로 나뉜다. 사역원 사학의 역학서는 각각 독특한 특징이 있다. 한학에서는 사서와 오경을 중심으로

195) 『世宗實錄』 36권, 세종 9년 6월 9일. “被擄逃來漢人 徐仕英言: “曾住開元, 本無遠近族親, 誠願留住.” 命下議之. 左議政黃喜、右議政孟思誠等議: “仕英到吉州, 見先來漢人 張顯子息, 已知顯受職, 留仕司譯院, 獨解送仕英未便. 又稍解文字, 將爲可用, 依自願留之爲便”.

196) 『世宗實錄』 64권, 세종 16년 6월 25일. “解女眞文字者, 不過一二人, 將爲廢絕. 侍朝人及咸吉道, 女眞子弟中解女眞文字者, 選揀四五人, 屬於司譯院, 定爲訓導, 兼差通事之任”.

사서 종류가 포함되었고, 그리고 실용회화서가 점차 중요한 역학서로 호감을 받기 시작하였다. 몽학은 몽고어로 번역된 중국의 사서와 몽고의 위인전이 눈에 띄게 많았다. 게다가 훈몽(訓蒙) 교과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훈몽은 어린이나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침을 뜻한다. 왜학에서도 회화서가 이용되었다가 왜학역관의 임무를 내용으로 한 교과서가 채택되었다. 여진학은 여진인의 훈몽 교과서에 의존했는데 지혜 있는 어린이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것이 많고, 병서가 다른 서적에 비해 매우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¹⁹⁷⁾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선 초기의 교재들은 주로 해당국에서 수입한 어린이용 교재가 많았고, 기초 회화서 및 어휘사전 등도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은 중국어가 중심이 된다. 원나라로부터 북경에서 통용되던 한어는 당시 오늘날의 영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쓴 언어였으며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에는 이 언어로 외부의 문물을 수용해왔다. 따라서 사역원에서 한학이 다른 과목과 비교하여 제도적으로 월등하게 중시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經國大典』과 『通文館志』를¹⁹⁸⁾ 참고하여 조선 초기에 주로 사용된 한학서들을 회화서, 어휘사전, 운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선 초기의 한학서

| 종류 | 서명 | 간행연대 |
|------|----------------|-------------|
| 회화서 | 노걸대老乞大 | 고려말(원대) |
| | 박통사朴通事 | 1346년경 |
| | 직해소학直解小學 | ? |
| | (산개)노걸대(刪改)老乞大 | 1483(성종 14) |
| | (산개)박통사(刪改)朴通事 | 1483(성종 14) |
| |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 | 1517년 이전 |
| |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 | 1517년 이전 |
| 어휘사전 | 역어지남譯語指南 | 1478(성종 9) |
| | 노박집람老朴集覽 | 1517년 이전 |
| 운서 |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 1455년 |

정리를 통해 『노걸대』와 『박통사』는 회화서로 많이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본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화이역어』와 같은 어휘사전도 보인다. 그 중 『역어지남(譯語指南)』이라는 책인데 현재 실물을 찾아볼 수는 없다. 하지만 기록에 남겨진 조선시대 최초의 한어 어휘집이라고 할 수 있다.¹⁹⁹⁾ 또한 『朝鮮王朝實錄』에서 언급된 조선 초기의 중국어 역학서는 시대별로 정리

197) 정광,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김영사, 2014, 127~129쪽.

198) 『經國大典』 권3, 禮典, 諸科, 譯科初試, 譯科覆試, 取才, 獎勵 참조. 김지남, 『通文館志』 권2, 科擧, 卷八, 什物 참조.

199) 鄭丞惠, 「한국에서의 한어(漢語) 교육과 교재의 역사적 개관」, 『국어사연구』 4, 국어사학회, 2004, 158쪽.

해 보면 다음 <표 3> 과 같다.

<표 3> 『朝鮮王朝實錄』의 역학서 기술(조선 전기)

| 시기 | 서목 |
|--------------|------------------------------------|
| 성종 1년(1470) |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직해소학直解小學 |
| 성종 2년(1471) |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직해소학直解小學, 四書사서 |
| 성종 7년(1471) | 노걸대老乞大 |
| 성종 9년(1478) |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직해소학直解小學, 譯어지남譯語指南 |
| 성종 11년(1480) |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
| 성종 14년(1483) |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직해소학直解小學 |
| 성종 20년(1489) |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직해소학直解小學 |
| 성종 23년(1492) |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
| 성종 24년(1493) |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四書사서, 譯어지남譯語指南 |
| 중종 19년(1524) | 노걸대老乞大 |
| 중종 32년(1537) |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직해소학直解小學 |
| 중종 36년(1541) |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
| 선조 29년(1596) |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보면 조선 전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교재는 『노걸대』이고, 그 다음이 『박통사』, 『직해소학』의 순서인데, 이들은 사역원에서 자주 사용된 한학 역학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학(大學), 중용(中庸), 논어(論語), 맹자(孟子)라는 사서도 사용되었다. 주로 사용되었던 책별로 그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直解小學』

이 책은 『소학(小學)]을 한어 구어체로 풀이한 것으로서 한어 교육과 시험용 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소학』은 중국 송(宋)의 유자징(劉子澄)이 어린 아동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의 예의, 수양을 위한 격언, 효자의 사적 등을 내용으로 편찬한 책인데, 조선 초기부터 모든 유학 교육기관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칠 만큼 유학의 기초서이다.²⁰⁰⁾ 이 책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저자는 중국 귀화인 설장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장수는 원나라 말기인 1359년에 고려에 와서 정착하였는데 사역원 제조로서 사역원의 설치와 운영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 그가 『직해소학』을 편찬한 것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④ 판삼사사(判三司事) 설장수(偈長壽)가 졸(卒)하였다. 휘(諱)는 장수(長壽)요, 자(字)는 천민(天民)이었다. 그 선조는 회골(回鵠) 고창(高昌) 사람이었다. 지정(至正) 기해년에 아버지 백료손(伯遼遜)이 가족을 이끌고 우리 나라로 피난하여 오니.....병으로 죽으니, 나이는 59세였다..... 명나라 북경에 입조한 것이 여덟 번인

200) 장향실, 2018, 앞의 논문, 16쪽.

데, 여러 번 상을 받았다. 찬술(撰述)한 『직해소학(直解小學)』이 세상에 간행되었고, 또 시고(詩藁) 두어 질(帙)이 있다.²⁰¹⁾

이 기록에 의하면 설장수는 조선조 초기인 정종 원년에 59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생전에 사신으로 중국에 여러 차례 다녀왔으며 그가 『직해소학』을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직해소학』은 당시 한어를 교육하는 중요한 교재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증명하는 문헌 기록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㉔만일 이 글을 가지고 자제를 교훈하게 되면 곧 중국의 음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요동인들이 『소학직해(小學直解)』를 보고 감탄하여 다른 서적(書籍)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²⁰²⁾

이것은 세종이 파견한 사신은 요동에 갔을 때 『직해소학』에 대한 반응을 기록한 것이다. 중국인은 이 책으로 제자들을 가르친다면 곧 한어와 다른 것이 없다고 했고, 또 요동 사람들 중에는 이 책을 보고 칭찬하며 다른 책과 바뀌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 사료는 『직해소학』에 사용된 어휘는 당시 중국인이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구어에 접근하여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증명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직해소학』은 현재 전해지지 않아 그 면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소학』을 원대 한어로 풀이한 문헌으로서의 『직해소학』은 원대 말기에 편찬된 『효경직해(孝經直解)』와 유사한 형태로 편찬된 것으로 추정한다.²⁰³⁾

2) 『老乞大』와 『朴通事』

이 두 책은 가장 오래 동안 사용되어 온 한어 회화 교과서로서 대화체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원본을 언제 누가 편찬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이를 밝힌 자료가 없는데, 14세기 중엽에 집필된 것으로 보았다.²⁰⁴⁾ 『노걸대』와 『박통사』는 중국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실용회화 교과서로 편찬되었던 만큼 중국의 생활 문화와 사회 풍속 및 교역 등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고려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언제나 역학서로 사용되어왔고 그들을 대신하여 쓸 수 있는 책이 거의 없었다.²⁰⁵⁾ 『노걸대』와 『박통사』는 문체와 어휘 그리고 내용이 유

201) 『定宗實錄』 2권, 정종 1년 10월 19일. “判三司事俊長壽卒. 諱長壽, 字天民, 其先回鶻 高昌人. 至正己亥, 父伯遼遜挈家避地于我國...以疾卒, 年五十九...朝京師者八, 屢蒙嘉賞. 所撰『直解小學』行于世, 且有詩藁數帙.”

202) 『世宗實錄』 64권, 세종 16년 4월 2일. “若將此書, 教訓子弟, 卽與華音無異.....遼東人等, 見『小學直解』嘆美, 欲以他書換之者多矣.”

203) 梁伍鎮, 2000, 앞의 논문, 11쪽.

204) 정광, 2014, 앞의 책, 184~188쪽.

205) 이득춘, 「중세의 한국어교육과 교재 : 朝鮮王朝의 外語教育和 華語學習」, 『이중언어학』 25, 이중언어학회, 2004, 9쪽.

사하다. 두 책에서는 같은 표현이 서로 중복되어 나타나며 동일한 상용구가 서로 달리 인용되어 쓰인다. 그 뿐만 아니라 『노걸대』와 『박통사』는 모두 한어의 강독 교재이므로 적절한 길이로 잘라서 나누었다. 『노걸대』는 교육할 내용을 적절한 길이로 각 과를 나누어 배열하였으나 『박통사』는 각 과의 주제에 따라 분량이 다르다. 유사한 관용구, 동일한 속담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노걸대』와 『박통사』가 한어 교육에서 초급, 중급 교재로 연결되어 단계적으로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노걸대』는 중국어 회화 학습서로서 중국으로 물건을 팔러 가는 고려 상인이 도중에 중국 상인을 만나서 동행하면서 여행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다. 여정, 매매, 계약, 의약, 숙박, 식음, 연회 등에 관한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실용 회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노걸대』는 역대 조선임금들의 역학 교육에 대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여러 차례 간행되거나 수정되었고²⁰⁶⁾ 그 간행 연대에 따라 한어만의 『노걸대』는 대체로 첫째 (원간) 『노걸대』, 둘째 (산개) 『노걸대』, 셋째 『노걸대신석』, 넷째 『중간노걸대』의 네 종류가 있고, 반영된 언어에도 차이가 있다. 『노걸대신석』은 영조 37년(1761)에 김창조(金昌祚)와 변헌(卞獻) 등이 산개본을 수정한 것으로 권두에 '노걸대신해(老乞大新釋)'가 있다. 『중간노걸대』는 『노걸대』를 개수·중간한 책으로, 정조대에 사역원에서 이수 등이 봉명에 의하여 중간하였다. 이 두 버전은 논외로 한다. 그 밖에 언해본으로는 (번역) 『노걸대』가 있다. 우선, (원간) 『노걸대』는 『노걸대』의 원간본이거나 그의 복각본, 또는 목판본으로 원대 북경어(北京語)로 되었으며 고려 말에 편찬되어 성종조에 수정되기 이전의 한어 『노걸대』를 말한다. (산개) 『노걸대』는 성종 14년(1483)에 중국인 갈귀(葛貴)가 원간본을 수정한 것이다. 그 수정 동기는 성종 11년 이창신(李昌臣)의 계청에서 알 수 있다. 아래의 사료와 참고하자.

⑤시독관(侍讀官) 이창신(李昌臣)이 아뢰기를:.....즉시 지금의 말로 두어 구절을 고치니, 모두 해독(解讀)할 수 있었습니다. 청컨대 한어(漢語)에 능한 자로 하여금 모두 고치게 하소서.....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속히 간행하고, 또 한어에 능한 자를 선발하여 『노걸대』와 『박통사』를 산개(刪改)하라고 하였다."

임금이 영접도감낭청(迎接都監郎廳) 방귀화(房貴和)에게 명하여, 두목(頭目) 갈귀(葛貴)에게 가서 『노걸대(老乞大)』와 『박통사(朴通事)』를 수정하게 하였는데.
..207)

206) 『世宗實錄』 20권, 세종 5년 6월 23일.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전한서(前漢書)』, 『후한서(後漢書)』, 『직해효경(直解孝經)』 등의 서적이, 판본이 없으므로 인하여 배우는 자가 전사하여 낭독하게 되니, 주자소(鑄字所)에 명하여 인출(印出)하게 하소서."

207) 『成宗實錄』 122권, 성종 11년 10월 19일. "侍讀官李昌臣啓曰:.....即以時語改數節, 皆可解讀. 請令能漢語者, 盡改之.....上曰: "其速刊行, 且選其能漢語者, 刪改『老乞大』, 『朴通事』." : 『成宗實錄』 158권, 성종 14년 9월 20일. "命迎接都監郎廳房貴和, 從頭目葛貴, 校

위의 첫 기사는 (원간) 『노걸대』가 원나라의 말이라서 당시의 중국말과는 매우 다르고 이해가 안 되었으며 따라서 모두 해독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는 이창신(李昌臣)의 요청이다. 성종은 이 요청에 따라서 한어에 능한 자를 선발하여 『노걸대』와 『박통사』를 산개하라는 명을 내렸다. 따라서 다음 기사에는 이에 의거하여 중국인 방귀화(房貴和) 등이 『노걸대』와 『박통사』를 수정하기 시작하였으며, 3년 후에 갈귀(葛貴)가 『노박』 원본의 불분명한 부분을 삭제하고 또 당시 한어로 개정하여 사여원에서 간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산개본은 원대 북경어로 된 『노걸대』를 명대 한어로 수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버전의 차이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원간) 『노걸대』와 (산개) 『노걸대』의 차이²⁰⁸⁾

| 대화 내용 | (원간) 『노걸대』 | (산개) 『노걸대』 |
|-------------------------|-------------|-------------|
| 형씨, 당신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 伴當, 恁從那裏來? | 大哥, 你從那裏來? |
| 나는 고려로부터 옵니다. | 俺從高麗王京來. | 我從高麗王京來. |
| 이제 어디로 갑니까? | 如今那裏去? | 如今那裏去? |
| 나는 북경으로 갑니다. | 俺往大都去. | 我往北京去. |
| 당신 언제 서울에서 떠났습니까? | 恁幾時離了王京? | 你幾時離了王京? |
| 나는 이 달 초하룻날 서울에서 떠났습니다. | 俺這月初一日離了王京. | 我這月初一日離了王京. |

위에 두 버전의 차이에 대한 비교를 통해 (원간) 『노걸대』에 비하여 (산개) 『노걸대』에 인칭대명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伴當’ 대신 ‘大哥’, ‘俺’ 대신 ‘我’, ‘恁’ 대신 ‘你’를 사용한 것이다.

(번역) 『노걸대』의 경우, 이것은 종종 때 최세진(崔世珍)이 전래의 한문본 『노걸대』를 언해한 중국어 학습서이다. 최세진은 조선시대의 가장 뛰어난 어문학자로 국어와 중국어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국어학 발전에 기여했던 인물이다. 조선 시대에 중국과 주고받던 문서에 쓰던 특수한 관용 공문의 용어나 문체를 가리키는 이문과 한어에 능통했다. 예빈시 부정(禮賓寺 副正) 등의 벼슬을 거치는 동안 중국어 학습서를 비롯하여 번역서, 운서 등을 저술했다. 그의 저술들은 국어와 중국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이 (번역) 『노걸대』는 서문·발문·간기가 없으나, 최세진의 『사성통해(四聲通解)』서를 통해 그 편찬과 간행을 엿볼 수 있다.

⑤무릇 처음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노걸대와 박통사를 익혀야 한다. 그것을 언어 공부의 계단으로 삼는다..하지만 이 두 책의 해석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²⁰⁹⁾

正 『老乞大』, 『朴通事』”.
208) 鄭丞惠, 2004, 앞의 논문, 142~143쪽에서 재인용.

위의 사료에 따르면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은 먼저 『노박』 이 두 책을 배우는 것이 첫 단계이지만 이 두 책의 해석이 잘못된 곳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것으로 보아, 『사성통해』는 위의 『노박』의 번역, 즉 정음으로 발음을 적을 때에 두 책의 잘못이 많이 발견되어 새로운 발음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이를 위해 먼저의 운서를 수정하여 『사성통해』를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번역) 『노박』의 편찬과 간행이 적어도 1517년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서명이 책에는 '노걸대'라고만 되어 있으나 원본인 『노걸대』와 1670년의 『노걸대언해』와 구별하여 '(번역) 『노걸대』'라고 부르고 있다.²¹⁰⁾ (번역) 『노걸대』는 『노걸대』의 가장 이른 언해서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역학서언해이기도 한다. 그 번역을 신는 방식은 원문을 짧은 구절로 나누어 원문의 한자마다 중국어의 음을 『사성통고(四聲通考)』²¹¹⁾와 당시 중국어의 음에 따라 두 가지 주음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자 하나하나의 한어 발음을 정음으로 전사하는 것으로 한자의 좌우에 발음을 붙였는데 하나는 운서의 발음이었고 하나는 실제 발음으로 한 것이다.²¹²⁾ 이 방식은 (번역) 『박통사』에 그대로 채택되었는데, 과를 구분하는 방법만 추가되어 후대 한학서의 번역에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그 양상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번역) 『노걸대』

『노걸대』는 크게 상편과 하편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상편은 고려 개성(開城)에서 중국 북경까지 가는 길을, 하편은 북경에서의 상거래를 그 주된 내

209) 崔世珍, 『四聲通解』序. “夫始肄華語者, 先讀老乞大朴通事, 以爲學語之階梯, ……然其二書訓解承認傳僞…”

210)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2521>.

211) 이 책은 조선 세종 때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이 너무 광대하여 보기에 불편하므로 간편하게 엮은 책이다.

212) 정광, 2014, 앞의 책, 270쪽.

용으로 하고 있다. 즉, 『노걸대』의 전체 줄거리는 3-4명의 고려 상인들이 중국 상인과 동행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북경에 가서 팔고, 고려로 가져올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회화체로 구성하였다. 저자는 중국을 여행하면서 부딪치는 여러 장면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사용할 대화를 익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여관에 묵는 법, 민박하는 법, 물건을 사고파는 법, 계약서를 쓰는 법, 중국의 화폐를 사용하는 법 등 장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 설정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은 아니고 중국으로 가는 여정에 맞추어서 전개시킨 것으로 보인다.²¹³⁾

『노걸대』가 가지고 있는 구성상에서의 특징과 교재로서의 가치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전체가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소설과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루함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둘째,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전형적인 장면과 특수한 장면을 배치하여, 상황에 따른 표현력의 일반적인 능력 함양과 함께 의외로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따른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노걸대』는 언어의 의사 소통기능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적 측면에서도 훌륭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걸대』는 무역 중국어 교재로서의 선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이 교재에서는 가공 무역의 각 과정과 구입·판매 가격 및 이익금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거래에서의 협상 방법이나 경험 등을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박통사』도 『노걸대』와 같이 고려 말에 편찬되어 늦어도 조선 초기에는 간행한 (원간) 『박통사』가 있고 앞서 소개했듯이 이를 성종조에 중국인 갈귀가 수정한 (산개) 『박통사』도 있다. 『노걸대』와 마찬가지로 『박통사』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원간) 『박통사』와 (산개) 『박통사』 외에는 한문본으로 『박통사신석』(1765, 영조 41), 언해본으로는 (번역) 『박통사』 외에 『박통사언해』(1677, 숙종 3), 『박통사신석언해』(1765)가 있다.

『박통사』는 모두 106개 절로 이루어졌는데, 『노걸대』가 주로 여행과정에서 필요한 표현 방법과 교역에 중점을 두었다면 『박통사』는 대부분 매절마다 중국을 무대로 하는 한 장면의 독립된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 또한 방대하다. 『노걸대』가 일상용 초급회화라면 『박통사』는 풍습, 세태, 오락, 종교, 매매, 문서 등 중국의 사회적 풍속과 생활문화를 골고루 반영하는 이른바 고급회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언어학적 측면의 가치 외에 원말명초 중국의 사회적 특징과 생활 문화에 대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213) 高光一, 2006, 앞의 논문, 27쪽.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원간) 『박통사』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산개) 『박통사』와 (번역) 『박통사』는 편찬 배경과 과정이 『노걸대』와 비슷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논외로 한다.

3) 『洪武正韻譯訓』

『홍무정운역훈』은 오랫동안 인멸된 것으로만 알려졌으나 1970년대 발견되어 학계에 알려지면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홍무정운역훈』은 중국에서 명태조 홍무 8년에 만들어진 『홍무정운(洪武正韻)』이란 중국 운서를 번역하여 그 음을 정음으로 표기하여 편찬된 최초의 운서이다. 『홍무정운』을 선택하여 이를 번역한 이유로는 책의 서에서도 기술되어 있다. 아래의 사료를 참고하자.

⑤심약(沈約)이 운보(韻譜)를 저술하면서부터 남방(南方)의 소리가 섞여 식자들이 괴롭혔으나 아직 바로잡아 고친 자가 없었다. 넓게 생각하건대 명나라 태조황제께서 그렇게 잘못되고 순서를 잃은 것을 걱정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신하에게 명하여 중원지역의 정음(正音)으로 통일하여 『洪武正韻』을 제정하니 실로 이는 천하만국의 근본이었다.²¹⁴⁾

이 책의 서를 보면 저자는 명태조가 문신들로 하여금 편찬하도록 한 『홍무정운』의 가치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책은 중국의 어느 운서보다 최근에 발간된 운서로서 중국어 학습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이 책의 체계와 음계의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 책의 편찬에는 신숙주(申叔舟)를 비롯한 집현전(集賢殿) 관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신숙주 등은 편찬 작업을 위해 수차례 요동으로 직접 가서 발음에 대해 질문하는 등 10여년의 노력 끝에 완성한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²¹⁵⁾ 총 16권 8책이었으나 14권 7책만이 남아 있다.

『홍무정운역훈』은 두 가지 면에서 운서로서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 운서를 번역, 그 음을 정음으로 표기하여 편찬된 최초의 운서라는 점이다. 즉 이전의 운서와는 달리 중국어의 음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현실에 맞는 음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운서의 편찬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어 학습서를 편찬하는 등 운서를 중국어 교육에 이용하였다. 즉 이 운서는 세조 연간 사역원에서 한어 교육용으로 쓰이게 되었으며²¹⁶⁾, 문과 초시의 과목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²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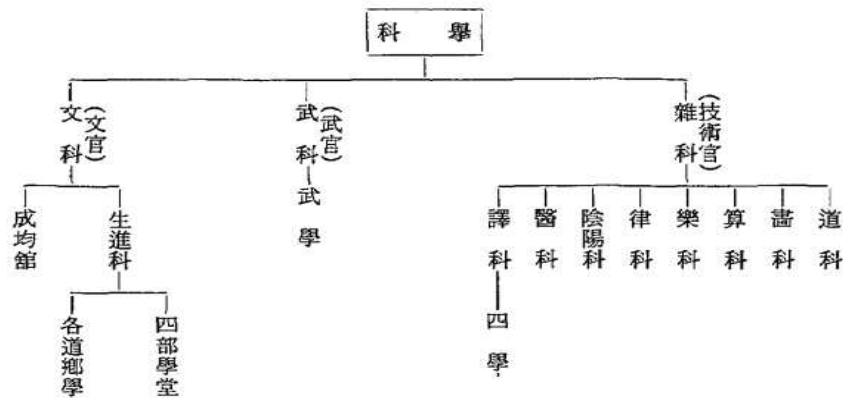
214) 『洪武正韻譯訓』序. “自沈約著譜, 雜以南音有識病之, 而歷代未有釐正之者, 洪惟皇明太祖高皇帝, 愍其乖舛失倫, 命儒臣, 一以中原雅音, 定爲洪武正韻, 實是天下萬國所宗.”

215) 『世宗實錄』 107권, 세종 27년 1월 7일. “집현전 부수찬(副修撰) 신숙주(申叔舟)와 성균관 주부(注簿) 성삼문(成三問)과 행사용(行司勇) 손수산(孫壽山)을 요동에 보내서 운서(韻書)를 질문하여 오게 하였다.”

216) 『世祖實錄』 3권, 세조 2년 2월 9일. “본조(本曹)는 의정부(議政府), 사역원(司譯院)

사역원에서는 역관이 되기 위한 역과(譯科)가 있었다. 역관들이 역과를 통해 정 3품까지 승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함으로 일종의 역관 우대의 방법이였다.²¹⁸⁾ 그리고 장학 또는 각종 자격과 관직을 얻고 끊임없는 언어훈련을 하기 위한 시험도 있었다. 대체로 크게 고강(考講), 원시(院試), 취재(取才) 시험이 나뉠 수 있다.

역과는 조선시대 잡과(雜科)의 한분야로 실시되었는데 조선왕조의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관 충원을 목적으로 국초부터 실시되어왔다. 다시 말해서, 모든 역관들이 마지막으로 치러야 하는 외국어 실력의 평가가 역과이다. 설명해야 할 것은 앞서 언급한 사이관의 회고는 과거에 속해 있지 않으나 역과는 과거의 일부였던 것이다. 아래 <그림 5> 와 같다.



<그림 5>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와 역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과거에는 문과(文科), 무과(武科)와 주로 중인들이 시험을 치르는 기술적 잡과(雜科)가 있다. 문과의 1등은 종6품 품계를 받고, 잡과에는 7품 이하의 전·현직관리들이 응시할 수 있었는데²¹⁹⁾ 잡과인 역과에서 1등을 하게 되면 문과보다 두 단계 종7품 품계를 받는다. 문(文)을 중시하는 관료중심의 조선에서는 전문 기술직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

提調)와 더불어 다소 젊은 문신(文臣)과 의관자제(衣冠子弟)를 선정하여 원액(元額)에 충당하고 한음(漢音)과 문자 모양을 익히려 하니, 청컨대 『증입언문(增入諺文)』, 『홍무정운(洪武正韻)』을 으뜸으로 삼아 배우게 하소서.”

217) 『世祖實錄』 20권, 세조 6년 5월 28일.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선왕(先王)께서 직접 지으신 책이요, 『동국정운(東國正韻)』·『홍무정운(洪武正韻)』도 모두 선왕께서 편찬하신 책이요, 이문(吏文)도 또 사대(事大)에 절실히 필요하니, 청컨대 지금부터 문과 초시에서 세 책을 강(講)하고...그대로 따랐다.”

218) 역관의 승진은 정 3품 당하관까지 제한되었으나 조선전기에는 이러한 제약에도 몇몇 역관이 당상관까지 올라갔다. 당상관은 정 2품 이상으로 조선 최고의 지배층으로서, 그들을 중심으로 정치가 주도되었다. (김남희, 「통역의 역사 개관 II: 조선전기」, 『통번역학연구』 16,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2, 35쪽.)

219) 『太祖實錄』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7품 이하의 사람으로서 『사서(四書)』와 『소학』·이문(吏文)·한어·몽고어에 통하는 사람은 다 응시하게 하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과 합격은 역관의 고위직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였다.

과거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인데 과거제도 하의 역과도 그 대로 진행해왔다.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와 대증광시(大增廣試)에서 만 시취되었고 다른 별시는 없었다. 식년시는 삼년에 한번 치르는 시험으로서, 매 식년(子·卯·午·酉年)에 보는 시험이다. 식년시에는 생원·진사시의 초시·복시, 문·무과의 초시·복시·전시, 잡과의 초시·복시가 실시되었다. 증광시는 새 왕이 즉위한 원년에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증광시는 태종 원년(1401)에 태종이 즉위할 때 처음 실시되었고, 고종 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뒤에는 국가경사가 있을 때나 왕실의 경사가 겹칠 때도 실시하였다. 대증광시는 조선시대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실시하던 과거였는데, 본래 국가에 큰 경사가 있거나 여러 경사가 겹쳤을 때 특설하던 과거시험을 증광(增廣)이라고 하였는데, 대증광은 그 중에서도 경사가 가장 많을 경우 실시한 시험이었다.

역과는 사역원에서 치러지는데, 1차 시험인 초시(初試)의 경우 사역원이 단독으로 주관하고,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듬해 초에 볼 수 있는 복시(復試)의 경우는 예조와 사역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하지만 초기의 역과는 초시와 복시의 구별 없이 1회만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였다. 태종 17년에 인재를 정밀하게 가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적되자 초시와 복시의 원칙이 정해지게 되었다. 아래의 사료와 같다.

㉓이제부터는 각학(各學)의 제조(提調)로 하여금 본사(本司)로 나아가 그 관원(官員)과 더불어 먼저 그 재주를 시험하고, 입학할만한 자는 본액(本額)의 배(倍)를 뽑아 예조에 알려야 응시하게 하였다.²²⁰⁾

위의 사료를 보면 그 정해진 원칙을 알 수 있다. 즉 역과 제조가 사역원의 관원과 함께 먼저 수험생의 능력을 시험하여 본래 뽑아야 할 인원의 2배를 선발하여 예조에 전한 뒤, 시험에 응시하게 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經國大典』에 나타나 있는 역과 초시와 복시의 시취액수는 다음 <표 5> 과 같다.

<표 5> 역과 초시·복시 시취액수²²¹⁾

| 주관하는 관청 | 학과명 | 초시 | 복시 |
|---------|-----|----|----|
|---------|-----|----|----|

220) 『太宗實錄』 33권, 태종 17년 윤5월 14일. “自今宜令各學提調, 就於本司, 與其官員先試其才堪赴學者, 倍於本額, 傳報禮曹, 乃令赴試.”

221) 『經國大典』 권3, 禮典 諸科條 참조. 하지만 각 도에서 실시된 향시(鄉試) 액수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학뿐으로 역과 초시인 향시는 사역원이 있는 평안·황해도에서 관찰사가 실시하였다.

| | | | |
|-----|-----|----|----|
| 사역원 | 한학 | 23 | 13 |
| | 몽학 | 4 | 2 |
| | 왜학 | 4 | 2 |
| | 여진학 | 4 | 2 |

초시의 경우 사역원에서 한학 23인, 몽학 4인, 왜학 4인, 여진학 4인이 선발되었고 복시에서는 한학 13인, 몽학·왜학·여진학 각 2인을 선발하는데 예조가 사역원 제조와 함께 수험생의 이름을 적어 시취하였다. 총 19인을 선발하여 초시의 약 1/3을 차지하였다. 게다가 다른 학과에 비하면 한학 생도가 더욱더 많이 선발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건국부터 역시 중국어를 매우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었고, 규정인원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규정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⑤만일 제1과에 합격되는 자가 없으면 제2과·제3과만 뽑고, 또 제2과에 합격하는 자가 없으면 제3과만 뽑으며, 정액에 구애되지 말아야 한다.²²²⁾

개국 초 역과의 규정에서부터 1등의 합격자가 없으면 2,3등만 취하고 2등도 없으면 3등만을 취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이후에도 때때로 이 규정이 확정되어 있었다. 『文宗實錄』의 기록에 근거하여 여진학 생도 같은 경우는 학업에 능통하지 못하여 점수가 부족하면 뽑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²²³⁾

시험방법은 주로 강서(講書), 사자(寫字)와 역어(譯語)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강서는 책을 보면서 중국어로 읽고 그 뜻을 새기는 임문(臨文) 또는 임강(臨講)의 방법과, 책을 보지 않고 중국어로 일고 새기는 배강(背講)의 방법이 있다. 책을 보지 않고 외우는 배송(背誦)의 방법도 있었다. 따라서 임문이나 임강보다는 배강은 어렵고, 또 그보다 배송은 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자는 더욱 어려워져 출제된 역학서의 해당 부분을 배송할 수 있도록 암기한 다음, 그것을 다시 해당국의 문자로 베껴 써야 하는 방법이다. 역어의 방법은 『大典通編』에 따르면 한학을 비롯한 사역원의 사학이 모두 『經國大典』을 임문하여 번역하였다.²²⁴⁾

조선전기에 초시와 복시의 과목은 대체로 같았으며, 시험 과목과 해당 시험방법은 『經國大典』에 실려 있는 다음 <표 6> 와 같다.

222) 『太祖實錄』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若無堪中第一科者, 只取第二科三科, 又無堪中第二科者, 只取第三科, 不拘定數.”
 223) 『文宗實錄』 7권, 문종 1년 4월 7일. “여진학 생도(女眞學生徒)는 왜학(倭學)의 예에 따라 식년(式年)마다 역과(譯科)에서 1명을 뽑고, 만약 학업이 정통하지 못하여 점수가 부족하면 뽑지 말도록 하소서.”
 224) 『大典通編』, 禮典, 諸科, 譯科初試, 譯語. “漢學·蒙學·倭學·女眞學, 並齎經國大典. 臨文.”

〈표 6〉 역과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 시험 방법 학과명 | 講書(강서) | | 寫字(사자) | 譯語(역어) |
|--------------|--------|------------------------------------|--|-----------|
| | 입강 | 배강 | | |
| 한학 | 四書 | 老乞大 朴通事 直解小學 ²²⁵⁾ | | 『經國大典』 번역 |
| 몽학 | | | 王可汗(왕가한) 守成事鑑(수성사감) 御史箴(어사잠) 老乞大(노걸대) 등 | |
| 왜학 | | | 伊路波(이로파) 書格(서격) 童子教(동자교) 老乞大(노걸대) 등 | |
| 여진학 | | | 千字(천자) 天兵書(천병서) 小兒論(소아론) 八歲兒(팔세아) 등 | |

위의 표를 통해 역어 시험은 사학에서 모두 『經國大典』 번역으로 치른 것으로 알 수 있다. 게다가 한학에서는 강서 시험을 치르고 사자 시험을 안 치렀다. 반면, 몽학, 왜학, 여진학에서는 사자 시험을 치르고 강서 시험을 안 치렀다. 한학에서 사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입강하도록 하였다. 『노걸대』, 『박통사』, 『직해소학』이라는 본업서는 배강하도록 하였으나 50세가 넘는 사람에게는 본업서를 입강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²²⁶⁾ 이것은 연로한 자에 대한 배려였던 것이다. 또한 몽학은 『왕가한(王可汗)』을 비롯한 16종의 몽학서를 사자하게 했고 왜학은 『이로파(伊路波)』를 비롯한 14종의 왜학서를, 여진학은 『천자(千字)』를 비롯한 15종의 여진학서를 사자하게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노걸대'란 서명에 주목하게 된다. 앞에서 회화 학습서로 집필된 (한어) '노걸대'를 소개했는데 사실 (몽어) '노걸대', (왜어) '노걸대'와 (청어) '노걸대'도 간행되었다. 몽고어, 일본어와 만주어로 번역하여 간행한 것을 보니 회화서인 『노걸대』는 인기가 아주 많았다.

채점은 성적은 『經國大典』 강서 조에 실려 있다. 다음 기사와 같다.

225) 처음에는 『直解小學』을 썼으나 중간에 『五倫全備』로 대신하였다 (정광, 2014, 앞의 책, 143쪽).

226) 김지남, 『通文館志』 卷二, 院試 條. "當等取才所講兩冊中從願講, 而年五十臨文..."

㉔통(通) 2점, 략(略) 1점, 조(粗) 0.5점으로 되어 있고 사자와 역어도 같다.

원문을 읽고 풀이하는 데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강론이 고르게 통달하지 못하지만 대체로 한 장도 대강의 뜻을 잃지 않았으면 '조'이다.

구절을 읽고 해석함이 분명하지만 그 전체의 뜻을 꿰뚫어보지 못했으면 '략'이다.

강서의 구절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완전하고 익숙하면서 그 뜻을 꿰뚫어보며 변설에 의심되는 것이 없으면 '통'이다.²²⁷⁾

『經國大典』 강서 조에 따르면 성적은 통(通) 2점, 략(略) 1점, 조(粗) 0.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많은 자를 선발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자와 역어도 같았다. 강서의 구절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완전하고 익숙하면서 그 뜻을 꿰뚫어보며 변설에 의심되는 것이 없으면 통이다. 구절을 읽고 해석함이 분명하지만 그 전체의 뜻을 꿰뚫어보지 못했으면 략이다. 원문을 읽고 풀이하는 데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강론이 고르게 통달하지 못하지만 대체로 한 장도 대강의 뜻을 잃지 않았으면 조이다. 이 기사를 통해 시험 평가의 기준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역과 한학의 강서 역어와 몽·왜·여진의 사자 역어의 채점도 통·략·조의 분수에 의하여 채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과의 합격자들은 합격을 인증하는 패(牌)와 상응하는 관품을 받았다. 패는 초기 사역원의 인신이 찍힌 홍패(紅牌)에서 백패(白牌)로 변화하였다.²²⁸⁾ 관품은 개국 초 1등에게 종7품의 출신을 주고, 2등에게는 종8품, 3등에게는 종9품 출신을 주었다. 하지만 역과 합격자는 곧바로 관리로 임명되지 않고 오늘날 수습사원과 같은 권지(權知)로 일을 하게 되었다.²²⁹⁾ 그리고 원래 관품이 있다면 1등은 2등급의 관품을, 2등과 3등은 1등급을 더 올려주었다.²³⁰⁾ 또한 역관이 되기 위한 역과 외에도 장학 또는 각종 자격과 관직을 얻고 끊임없는 언어훈련을 하기 위한 시험도 있었다. 대체로 크게 고강(考講), 원시(院試), 취재(取才) 시험이 나뉠 수 있다.

고강은 부경의 자격이나 위직을 주기 위한 서도고강(書徒考講)과 장학을 위한 이육고강(二六考講)으로 나뉘어 있다. 서도고강은 사계삭(四季朔), 즉 사철의 마

227) 『經國大典』 권3, 禮典 諸科條 講書 참조. “通二分, 略一分, 粗半分. 寫字·譯語同. 句讀·訓釋, 皆不差誤, 講論雖未該通, 不失一章大旨者, 爲粗; 句讀·訓釋, 皆分明, 雖通大旨, 未至融貫者, 爲略; 句讀·訓釋, 皆精熟融貫, 旨趣辨說無疑者, 爲通.”

228) 김지남, 『通文館志』 卷二, 科擧 속 條. “放榜 {禮曹奉教賜白牌 翌詣關謝恩}.” 백패는 조선시대 소과(小科: 생원과 進士)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던 증서. 흰 종이에 관명(官名)·성명·과별(科別: 생원·진사·잡과 등) 성적등급이 적혀 있는데, 이 백패는 잡과(雜科)·이과(吏科)에 합격한 자에게도 주었으며, 대과(大科)에 합격하면 홍패(紅牌)를 주었다 (정승혜, 2002, 앞의 논문, 296쪽의 각주 20).

229) 『經國大典』 권1, 吏典 諸科條 雜科入格者 참조. “譯科一等, 授從七品, 二等, 從八品階, 三等, 從九品階.....並差本衙門權知.”

230) 백옥경, 2006, 앞의 책, 102~103쪽.

지막 달인 3월, 6월, 9월, 12월마다 실시한다. 『노걸대』, 『박통사』는 배강 과목으로 치르고 사서는 임강 과목으로 치렀다. 이육고강은 각 직급에 따라 매 월 2일, 12일, 22일과 6일, 16일, 26일에 시험을 보는 것이다. 배강, 임강, 사자 등의 방법으로 시험을 보았다.²³¹⁾

원시는 회화시험이었는데 외교 실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자보다 언어가 더욱 필요하였기 때문에 먼저 보는 것이었다. 시험방법으로는 생도들이 2명씩 짝을 지어 중국어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²³²⁾ 원시는 봄과 가을,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1년에 4번 실시하며, 원시의 시험 과목 및 방법은 봄과 가을이 같고, 여름과 겨울이 같다. 시험에서 매번 성적이 높은 1분반을 얻은 자는 모든 취재에 나갈 수 있었으며 성적이 같을 때에는 회화시험성적이 좋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²³³⁾ 원시는 취재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의의가 있었으므로 일종의 예비시험의 성격을 갖는다.

취재는 인재를 뽑기 위하여 실시하는 특별 채용시험이었는데 체아직과 부경(赴京)에 참여하여 수행할 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역관은 관직을 얻기 위해서는 취재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고, 생도의 경우에는 취재를 통하면 역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위 관직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제도 중 잡과의 하나인 역과를 통과해야 하였다. 역관들을 선발하는 취재는 체아직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통 녹취재(祿取才), 위직취재(衛職取才), 부경취재(赴京取才)로 나눈다.

녹취재는 1년에 4회 정도 실시하였다. 필수과목과 교양과목이 있었으며, 시기에 따라 시험 과목도 달라졌다. 위직취재는 군직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 시험도 1년에 4회 시행하였는데, 사계절의 첫 달 1일에 각 전공어로 익힌 역학서 가운데 한 권을 택하여 강독시키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부경취재는 1년 중 봄과 여름에 2회 실시하였다. 일단 응시자격을 얻는 원시(院試)에 합격한 자들에게 전공 서적을 배강하는 시험을 보게 하였다.

231) 김지남, 『通文館志』 卷2, 勸獎 書徒考講: 二六考講.

232) 김지남, 『通文館志』 卷2, 勸獎, 院試. "每二人作耦講論華語. 謂之院試."

233) 『通文館志』, 勸獎, 院試. "院試.....得分一半以上者許赴諸取才, 而取才分數同者以院試分數爲先叙用."

IV. 明 통사와 朝鮮 역관의 양성 비교

1. 상대방 언어에 대한 비교

전술한 장에서 서술한 사이관과 사역원의 설립상황의 비교를 통해 두 기관의 성격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기관은 외교임을 처리하고 외국어를 가르치는 두 가지 직능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두 기관이 존재한 시간을 보면 두 기관은 14세기초부터 19세기말까지 500년 정도 존재해왔음을 알 수 있다. 사이관은 중국 첫 번째로 되는 전문적인 외국어교육 기관이었는데 명과 청 두 왕조 동시에 존재해왔고, 시대에 따라 기구 개혁에 대한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사역원은 이전 시기의 기관을 계승했고 500년 동안 왕조의 교체없이 계속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학습대상 언어에 있어서는 비교적 큰 차이점이 보인다. 그것은 바로 사이관에서는 조선어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역원은 언제나 한어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가 된 원인은 명이 조선에 대한 인식과 조선이 당시 추구했던 전통적인 외교 정책 및 외교적 질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우선, 사이관에서 조선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즉 사이관에 조선관을 두지 않았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관 설립 과정에서는 조선관의 설치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청나라에 이르러, 직능을 그대로 받아들여 회동관에 합병되어 '회동사역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가 폐쇄될 때까지도 사이관에서의 조선어 교육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淸會典』에서 '조선역학(朝鮮譯學)'에 대한 사료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㉞ 건륭 16년에 회동사역관에서 조선역학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하오기(下五旗)의 기마다 조선제자 4명을 선발하여 관에 보내 열심히 공부시켰다. 역어에 능통한 통관(通官) 두 명을 뽑아 가르치게 하였다.만약 오래 공부했는데도 역어에 능숙하지 못한다면 오던 기(旗)로 다시 보내고 다른 자를 선발하겠다.²³⁴⁾

위의 사료는 건륭 16년(1751)에 회동사역관에 '조선역학'이 설치된 기사이다. 하오기(下五旗)²³⁵⁾에서 온 조선자제 총 20명을 뽑아서 학생으로 하여금 조

234) 『欽定大清會典則例』 (四庫全書本) 卷095. "十六年奏準嗣後, 在會同四譯館設立朝鮮譯學, 於下五旗朝鮮子弟內各咨取四人, 令在館用心學習, 於見在諳曉譯語通官內選擇二人教習.....如學習日久不能諳曉者, 發回該旗別行咨取."

235) 만주팔기(滿洲八旗)는 상삼기와 하오기로 나뉜다. 황제가 직접 상삼기를 거느렸고 諸王, 貝勒, 貝子가 하오기를 거느렸다.

선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하였다. 교사는 조선어에 능통한 통사 두 명이 임명되었고 조선어 구어를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만약 오래 배워도 능숙하지 못하면 왔던 기(旗)로 보내고 같은 기에서 다른 학생을 선발하여 보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를 보면 회동사역관에서 조선어 양성하는 기구인 '조선역학'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새로운 문헌이나 사료의 발굴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청나라의 조선어 교육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명청시대에서는 특히 명나라 시기 조선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四夷館考』 서문에서도 조선관을 두지 않은 이유를 엿볼 수 있다.²³⁶⁾ 그 서문을 통해 조선, 유구국 등에서 조공을 바치러 온 사신들의 대우는 다른 국가에서 온 사신들과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홍려사(鴻臚寺)가 전문적으로 접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사이관에 많은 외국어는 관으로 나누어 교사를 채용하여 가르치게 하였다는 문장으로 보아, 조선은 다른 국가과의 대우가 달랐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명나라는 조선을 번국이라고 여겼고, 예로부터 조선에서 와서 한어 즉 중국어를 배워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한다. 즉 명은 조선을 '이(夷)'로 여기지 않고 동쪽 한반도에 자리를 잡고 있는 번국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관에서 조선어를 배우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조선은 1446년에 독자적으로 창제한 문자인 훈민정음을 공포했는데 명과의 오가는 문서는 여전히 한자 즉 '이문'으로 작성되었다. 이런 경우는 조선왕조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따라서 명과 조선의 교제 과정에서는 조선어 번역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²³⁷⁾ 또한 명의 궁중에서 시중드는 일을 맡은 내시(內侍)의 상당수가 조선 출신이었던 점도 사이관에 굳이 조선관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다.²³⁸⁾

다음으로, 사역원에서는 언제나 한어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있었다는 이유를 서술하고자 한다. 오늘날은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나, 지금의 현실과는 다르게 조선시대 외국과의 의사소통은 역관들이 주로 담당하였다. 그런데 역관의 양성과 배출은 해당 외국과의 외교관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해당 외국과 관계가 긴밀해지면 해당 외국어를 담당하는 역관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 기관이나 담당 부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으며, 해당 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필요가 없어지면 해당 외국어를 담당하는 역관의 배출수가 줄어들거나 역관 양성 기관이 폐쇄되기도 하였다. 명의 사이관도 마찬가지였다.

236) 王宗載, 『四夷館考』. "盛德何以柔遠人若此哉? 獻琛奉贄國, 有專司隶于大鴻臚者爲朝鮮、琉球、安南諸國. 而四夷館之所掌凡三十餘國, 統以八國, 列爲東西, 爰擇師儒分館教習." (任萍, 2007, 앞의 논문, 74쪽에서 재인용).

237) 李忠輝, 2019, 앞의 논문, 35쪽; 李忠輝, 2018, 앞의 논문, 53쪽.

238) 崔桂花, 2012, 앞의 논문, 56쪽.

사대교린이라는 조선의 전통적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교린의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중국어 교육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었다.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최만리(崔萬理)가 올린 상소에서 중국어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다.

㉞우리 조선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大國)을 섬기어 한결 같이 중화(中華)의 제도를 지켰는데, 이제 글을 같이하고 법률을 같이하는 때를 당하여 언문(諺文)을 창작하신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구주(九州)의 안에 풍토는 비록 다르오나 지방의 말에 따라 따로 문자를 만든 것이 없었고, 오직 몽고(蒙古)·서하(西夏)·여진(女眞)·일본(日本)과 서번(西蕃)의 종류가 각기 그 글자가 있다. 이는 모두 이적(夷狄)의 일이므로 죽히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옛글에 말하기를, '화하(華夏)를 써서 이적(夷狄)을 변화시킨다.' 하였고, 화하가 이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역대로 중국에서 모두 우리나라는 기사(箕子)의 남긴 풍속이 있다고 하고, 문물과 예악(禮樂)을 중화에 견주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과 같아지려는 것으로서, 이른바 소합향(蘇合香)을 버리고 당랑환(塘螂丸)을 취한 것입니다.²³⁹⁾

이것은 최만리 등이 언문(諺文)²⁴⁰⁾ 제작의 부당함을 아뢰는 상소이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중국을 섬기고 중화의 제도를 지켜왔기 때문에 글과 법률을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들은 언문 제작을 반대한 것이다. 동시에 한족을 제외한 대륙의 여타 민족과 왜 또는 유구국 등은 모두 '이'에 해당하며, 조선은 이들과 동류가 아니라는 인식이 상소에서 드러난다. 사실 조선인의 자아인식은 문명국인 명과 함께 스스로를 '이'가 아닌 화(華)로 인식하였다. 특히 불교가 억압되고 유교가 조선의 지배이념이 되면서, 중화(中華) 또는 소중화(小中華)의식이 강화된다. 조선은 중국어와는 다른 말을 사용하더라도 한문이라는 문자를 통해 문명국인 명과 동등하다는 인식을 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대명(對明) 외교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대명외교에서 핵심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대명사행이다. 중국으로 보내는 사행에는 정월 초에 맞춰 파견하는 정조사(正朝使), 동지에 맞춰 파견하는 동지사(冬至使), 황제의 생일을 위한 성절사(聖節使) 등 1년 3번의 정기 사행이 있었는데, 종종 26년부터 황태자의 생일을 위한 천추사(千秋使)가 포함

239) 『世宗實錄』 103권, 세종 26년 2월 20일. “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 有駭觀聽.....自古九州之內, 風土雖異, 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 唯蒙古、西夏、女眞、日本、西蕃之類, 各有其字, 是皆夷狄事耳, 無足道者. 『傳』曰: “用夏變夷, 未聞變於夷者也.” 歷代中國皆以我國有箕子遺風, 文物禮樂, 比擬中華. 今別作諺文, 捨中國而自同於夷狄, 是所謂棄蘇合之香, 而取塘螂之丸也.”

240) 언문은 한글을 속되게 이르던 말인데 『세종실록』 권102 세종 25년 12월 30일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다”라고 한 것에 연유하며, 처음에는 한문자(漢文字)에 대한 말로서 한글을 통칭한 것이다.

되어 1년 4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기사행 외에도 조선이 명에 사건을 보고하거나 감사의 뜻을 보낼 때도 사신을 파송하였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 중국어를 통역하는 역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였다. 자연스럽게 조선은 다른 언어보다 중국어 교육을 매우 중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2. 통사와 역관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비교

15~16세기에 국제관계가 다양해지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는 외교의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할 통사와 역관의 역할이 부각되기 마련이다. 그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임무는 통역이나 번역이었으나 실제로 통역 외에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사이관의 경우, 통사는 외교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통사와 사신 간의 교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지 않았다. 합리적인 양성과 진승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 중반 이후 통사와 사신 간의 불법행위가 매우 심하였다. 가정 연간 권신 엄송(嚴嵩)의 상소문을 살펴보자.

㉞ 지금 통사나 서반이 된 사람들 모두는 색목인(色目人)이다. 그래서 항상 자기 민족과 친한데 우리와 친하지 않다. 심지어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람이 나쁜 일을 하게 하였다. 경사(京師)에서 사람들이 본분 밖의 일을 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차를 비롯한 금지품을 매매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민족이 아닌 사람은 색목인이 쓰는 말을 통역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방인들은 중국이 인재가 없다고 여기게 만들었다.²⁴¹⁾

위의 사료를 통해 회회통사가 외교활동 과정에서 차(茶)를 비롯한 교역 금지품을 거리낌 없이 팔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명 정부가 한족이 아닌 색목인(色目人) 즉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을 통사로 임용하였는데 그들은 한족과 친하지 않고 자기 민족과는 매우 친하였다. 게다가 회회어(回回語)를 할 줄 아는 한족인 통사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불법적인 행위들을 자행하였다. 따라서 일부 통사의 밀무역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은 매우 심각하게 되었을 것이다.²⁴²⁾

사이관 통사의 밀무역과는 달리 사역원 역관에게는 특별히 허용된 밀무역의 기회를 주었던 보인다. 조선은 전·후기를 막론하고 사행(使行)을 통해 외국과 무역하였고, 민간차원에서 무역은 거의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국에서 생

241) 陳子龍, 『皇明經世文編』 卷219. “今通事序班人等, 俱系色目人, 往往視彼爲親, 視我爲疏, 甚至多方教唆. 在京師則教其分外求討, 伴回則教其販賣茶斤, 違禁貨物, 肆无忌憚. 且使外夷輕中國無人, 非其同類. 不能譯其語也.”

242) 林杏容, 2006, 앞의 논문, 39쪽.

산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사행을 통해야만 가능했고, 그 실무는 역관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²⁴³⁾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으로 상대국 정세의 탐지와 실무 처리 등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사절단에 수행한 역관이 돌아온 뒤 중국에서 보고 들은 보고를 아뢰고 있었다.²⁴⁴⁾ 이 보고는 문신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역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실 사이관의 통사도 외국의 정세를 알아보는 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²⁴⁵⁾

또한 역관들은 명에 가서 사신과 함께 실질적인 문제도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세종 25년 성절사(聖節使)가 올린 내용에 따르면 관복을 청하는 것에 역관 매우(梅佑)가 중간에 왕래하여 이 일만 관장하였기 때문에 다시 그를 보내 공문을 통해 예부에 알리라고 하였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는 역관 매우(梅佑)가 힘써 중재하면서 그 일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외교 실무인 통역을 담당하는 통사와 역관이 중시되었고, 이 같은 전문가들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그 진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의 인정과는 달리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사든 역관이든 그들을 지배층과 구별하려는 의식도 존재하였던 보인다. 그들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말을 전해 주는 중간역할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배층은 그들의 역할을 단순히 기술적인 것으로 이해하였고, 유교사회에서 2차적인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예를 들면 사헌부 대사헌(司憲府 大司憲)은 말을 통역하는 것을 조그마한 임무라고 여겼다.²⁴⁶⁾ 그리고 흥년이나 전란으로 인해 역학의 자리는 먼저 줄어들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효종시대에 역관들의 상언(上言)은 전란으로 없어지거나 줄어든 역학의 자리를 예전처럼 복구해 달라고 청원하였다는 점을 볼 수 있다.²⁴⁷⁾ 또한 외교나 정치 활동에서 통사와 역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배층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에 도전하게 된 현상을 깊이 우려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적으로 억압당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인식으로 인해, 15~16세기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최

243)白玉敬, 「朝鮮前期 譯官의 性格에 對한 一考察」, 『梨大史苑』 22-23,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88, 440쪽.

244) 『太宗實錄』 33권, 태종 17년 3월 30일. “봉사(奉使)가 경사(京師)로 갈 때는 서장관(書狀官)과 통사(通事)를 각각 기용하소서. 요동(遼東)으로 나가는 사신(使臣) 등 관원은 단지 진언하는 일들만 있으나, 선유(宣諭)한 성지(聖旨)와 예부(禮部)와 요동(遼東)의 성회(省會) 및 연도(沿道)의 문견 사건(聞見事件)도 돌아온 지 10일 이내에 일일이 본원에 개진함으로써 참고에 증거가 되고...”

245) 陳子龍, 『皇明經世文編』, 卷63. “仍敕禮部行令大通事選差善曉夷語之人, 假作館夫名色, 混入館夫之中, 專一密听北虜言語, 察彼心事, 每日報與大通事, 密切具奏, 以凭防閑.”

246) 『成宗實錄』 46권, 태종 5년 8월 19일. “말을 통역하는 조그마한 임무 때문에 단상(短喪)의 폐단을 여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247) 이현주, 『역관상언등록 연구:17세기 조선 외교사를 담당한 역관들의 생생한 기록』, 글항아리, 2016, 429쪽.

종목표로 삼는 학생이 드물었다. 더 나아가 학생의 충원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학습교재와 평가에 대한 비교

전술한 바와 같이 두 기관의 학습교재와 교육내용의 평가를 살펴봄으로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각자가 채택한 교과서를 보면 사이관에서는 『화이역어』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사역원에서는 다양한 교과서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화이역어』는 해당 외국어 어휘와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형식으로 편찬된 교과서인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책이라기보다는 사전과 더 흡사하다고 본다. 즉 그 책은 외국 문서를 번역하도록 주로 외국어 단어와 문장에 치중하여 편찬된 교재였다. 이렇게 실용적인 어휘를 많이 익혔기 때문에 역자생이 졸업하고 나서 바로 문서 번역작업에 잘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역원에서는 회화서, 경서, 운서 및 법전 등 다양한 책들을 교재로 삼고 사용해왔다. 특히 중국어 회화능력을 매우 중시해왔다. 『노걸대』와 『박통사』에는 많은 대화체 형태로 이루어진 문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두 책의 버전도 다양하게 나와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를 공부시키면서도 사서를 비롯한 중국 전통문화를 익히게 한 것을 보니 조선이 중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매우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내용의 평가를 보면 학제와 평가방식이 어느 정도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이관에 교육평가는 과거에 속하지 않은 회고(會考)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의 학제가 9년이였다. 역관이 되기 위해 치르는 역과(譯科)는 조선 시대에 역관을 공식적인 평가시험으로서 과거에 속한 잡과의 하나였으며 그 학제는 과거와 같은 3년이였다. 그리고 평가방식에서 보면 사이관에서는 번역과 통역은 따로 평가를 받았는데 사역원은 통역인재를 위주로 양성하고 평가를 뒤이어 장학, 승진체제가 잘 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상대방 언어, 통사와 역관의 사회적 위상 및 학습교재와 평가에 대한 비교를 통해 15~16세기 명과 조선의 통번역 인재 양성 특징들을 파악하게 될 수 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양국이 상대방 언어에 대한 다른 인식이다. 명은 조선이 '이(夷)'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이관에서 조선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이 오래전부터 한어 교육을 중시했기에 사역원은 계속 한학을 강조하였다. 이런 상황은 19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서양의 정치, 경제 및 문화가 명과 조선 사회에 전파됨에 따라 양국이 외국어 양성 대상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한중 수교 이래로 중국과 한국은 정치, 경제와 문화 분

야에서 교류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나타내 명과는 달리 지금 중국에 한국어 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중점이 한어 또는 중국어에서 영어로 옮겨졌다. 영어는 현재 세계에서 사용범위가 가장 넓은 언어이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본 논문은 15~16세기를 시대배경으로 삼아, 명과 조선의 통사와 역관에 대한 교육양성의 제반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오늘날처럼 약 600경 전에 통번역인재를 양성하려면 공식적인 외국어 학교가 필요하였다. 그것은 바로 명의 사이관과 조선의 사역원이었다. 비록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두 기관의 이름이 다르거기서 양성하는 인재의 호칭도 달랐으나, 외교임무를 처리하고 외교인재를 양성하였다는 점은 비슷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당시 중국과 한반도 두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통번역 인재양성에 관한 몇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사료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사이관 통사와 사역원 역관의 교육양성 상황을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본문에서 서술된 내용들을 통해 몇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두 기관 각자의 설립배경, 설립목적과 설립상황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당시 통치자가 외국어 교육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두 기관 설립 목적은 명과 조선의 외교정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음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조선이 채택하였던 전통적 외교정책의 영향으로 조선은 중국어 교육을 언제나 첫 자리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명은 조선어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는 명나라가 조선이 '이(夷)'가 아니라 번국이라고 여긴 것과, 예로부터 조선에서 와서 중국어를 배운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설립의 역사 연혁에서 보면 사이관은 중국 최초의 언어 교육기구였으나 사역원은 이전 시기의 기관을 계승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이관의 직책과 사역원의 직제에 대해 다룸으로 두 기관의 운영상황을 알아보았다. 사이관과 사역원은 모두 외국어 교육의 직능을 갖고 있으면서 외교의 실제적인 업무도 담당할 것을 알 수 있다. 역자생이나 생도는 두 기관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공부 외에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양한 활동도 하였다. 또한 교육생과 교사의 충원양상을 다룸으로 15~16세기 통번역인재의 사회적 위상을 살펴보았다. 지배층은 그들이 필요하면서도 천한 신분을 이유로 배척한다는 이중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기본문헌사료를 활용함으로 사이관과 사역원의 학습교재와 평가를 소개하고 다루어 보았다. 명나라 통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서인 『화이역어』의 편찬, 내용구성 및 버전 등을 다룸으로, 『화이역어』는 한 종류의 어휘사전이라는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특히 『화이역어』는 고음과 고의를 연구하는 데 가치가 있다. 조선시대에 나타난 다양한 역학서의 종류와 발전을 살펴봄으로, 사역원의 생도는 회화 뿐만 아니라 발음 및 중국 전통 문화도 함께 연마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전기 사역원에서는 『노걸대』가 중심으로 사용된다는 특징도 나타나 있다. 이 교재의 비교를 통해 사이관에

서 번역 교육에 더 치중하였으나 사역원에서는 회화를 위주로 한 통역 교육양성을 많이 시켰음을 볼 수 있다. 게다가 평소에 학생의 학습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고 졸업을 하기까지 상당한 엄격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통사와 역관이 되려면 회고와 역과를 치러야 하였다. 사이관의 회고는 과거에 속하지 않지만 역관이 되기 위해 치르는 역과는 과거에 속한 잡과의 하나였다. 그리고 평가방식에서 보면 사이관에서는 번역과 통역은 따로 평가를 받았는데 사역원은 통역인재를 위주로 양성하였고 평가에 이어 장학, 승진체제가 잘 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몇 가지 측면들을 정리하고 비교함으로써 15~16세기 명의 통사와 조선의 역관 교육양상과 양성기관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명이 조선에 대한 인식과 조선의 '사대교린' 외교 정책의 영향으로 두 나라가 대상 언어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논문 저자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사료

『周禮』
『禮記』, 中庸
『周禮正義』
『翰苑』
『唐六典』
『元史』
『明史』
『皇明祖訓』
『明實錄』
『大明會典』
『四夷館考』
『大學衍義補』
『春明夢餘錄』
『皇明經世文編』
『清史稿』
『四譯館增定館則』
『欽定古今圖書集成』
『欽定大清會典則例』
『續日本紀』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大典通編』
『譯官上言謄錄』
『四聲通解』
『通文館志』

저서

백옥경, 『朝鮮前期譯官研究』, 韓國研究院, 2006.
이현주, 『역관상언등록 연구:17세기 조선 외교사를 담당한 역관들의 생생한 기록』, 글항아리, 2016.
정광,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김영사, 2014.

연구논문

김유리, 「조선시대 사역원(司譯院)의 운영과 시험제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김성주, 「역학서 언해와 조선의 외국어 교육」, 『동악어문학』 58, 동악어문학회, 2012.

- 김남희, 「통역의 역사 개관 II: 조선전기」, 『통번역학연구』 16,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2.
- 金炯秀, 「通事の 職能에 대한 考察」, 『論文集』 6,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1987.
- 강신항, 「한 일 양국역관에 대한 비교연구」, 『人文科學 23』,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 梁伍鎭, 「朝鮮時代 中國語 譯官 선발을 위한 出題書와 評價 方式 = 論朝鮮時期選拔中國語譯官的出題書及評價方式」, 『中國語文論譯叢刊』 19, 중국어문논역학회, 2007.
- 梁伍鎭, 「한국에서의 중국어 역관 양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중국언어연구』 11, 한국중국어언어학, 2000.
- 林東錫, 「朝鮮時代 外國語 教育에 對한 一考」, 『學術誌』 33, 건국대학교, 1989.
- 李觀洙, 「朝鮮朝의 吏文教育」, 『국어국문학회』 82, 국어국문학회, 1980.
- 李建衡, 「朝鮮王朝의 譯學教育」, 『論文集』 16, 대구교육대학교, 1980.
- 박종연, 「조선 초기 귀화 중국어 통역관 연구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73, 영남중국어문학회, 2016.
- 朴成柱, 「朝鮮前期 對明 御前通事」, 『경주사학』 29, 경주사학회, 2009.
- 백옥경, 「여말 선초 설장수의 정치활동과 현실인식」, 『朝鮮時代史學報』 46, 조선시대사학회, 2008.
- 백옥경, 「조선 전기 역관의 충원에 대한 고찰」, 『朝鮮時代史學報』 26, 조선시대사학회, 2003.
- 백옥경, 「朝鮮 前期 譯官의 職制에 대한 考察」, 『梨花史學研究』 1, 이화사학연구소, 2002.
- 백옥경, 「朝鮮前期譯官養成策과 制度의 整備」, 『역사문화연구』 12,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 白玉敬, 「朝鮮前期 譯官의 性格에 對한 一考察」, 『梨大史苑』 22-23,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88.
- 이득춘, 「중세의 한국어교육과 교재 : 朝鮮王朝의 外語教育和 華語學習」, 『이중언어학』 25, 이중언어학회, 2004.
- 정승혜, 「『通文館志』와 司譯院 四學」, 『진단학보』 134, 진단학회, 2020.
- 鄭丞惠, 「한국에서의 한어(漢語) 교육과 교재의 역사적 개관」, 『국어사연구』 4, 국어사학회, 2004.
- 정승혜, 「한국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2002.
- 鄭光, 韓相權, 「司譯院과 司譯院 譯學書의 變遷 研究」, 『德成女大論文集』 14, 德成女子大學校, 1985.
- 장향실,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국제한국어교육』 4,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2018.
- 주성일,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에 나타난 근대한어(近代漢語) 운미(韻尾) 변화 —천문문(天文門)을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54, 한국중문학회, 2014.
- 최형섭, 「사이관(四夷館)을 통해 본 명대 전기 사회의 혼종성」, 『中國文學』 73, 한국중국어문학회, 2012.

- 晁瑞, 「明代外語教育政策研究初探」, 『淮陰師範學院學報』 5, 淮陰師範學院文學院, 2017.
- 付林鵬, 「四夷認知的形成与華夏觀念的确立」, 『北方論叢』 6, 湖北文學理論与批評研究中心, 2020.
- 高京金, 「朝鮮時代培養漢語翻譯官的特点小考」, 『時代教育』 1, 韓國外國語大學, 2015.
- 韓霜, 「管窺明代四夷館中的學生評價体系与考核制度」, 『蘭台世界』 27, 西南財經大學天府學院, 2015.
- 金美玲, 「朝鮮司譯院漢語教學制度考」, 『科學經濟社會』 4, 南開大學文學院, 2019.
- 李忠輝, 「明代中央机构朝鮮通事設置考」,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6, 天津外國語大學高級翻譯學院, 2019.
- 李忠輝, 「『朝鮮館譯語』考論」, 『文獻』 6, 天津外國語大學高級翻譯學院, 2018.
- 廖大珂, 孫魏, 「明代四夷館初探」, 『史林』 4, 廈門大學中國社會科學院, 2016.
- 李紅梅, 「明代四夷館的設立与外語教學活動考辨」, 『蘭台世界』 15, 樂山職業技術學, 2015.
- 劉紅軍, 孫伯君, 「存世“華夷譯語”及其研究」, 『民族研究』 2, 沈陽大學民族古文獻研究室, 2008.
- 劉迎勝, 「宋元至清初我國外語教學史研究」, 『江海學刊』 3, 南京大學民族研究所, 1998.
- Pezilet Tuniyaz, 「『高昌館雜字』之翻譯方法研究」, 伊犁師範學院, 2016.
- 任萍, 「明代四夷館的學生管理模式考証」, 『浙江樹人大學學報』 1, 浙江樹人大學外國語學院, 2014.
- 任萍, 「記我國最早的翻譯學校—明四夷館考察」, 『上海翻譯』 2, 浙江樹人大學語言學院, 2007.
- 任萍, 「明四夷館中日本館譯語編撰考」, 『日本學論壇』 2, 浙江樹人大學語言學院, 2007.
- 烏云高娃, 「明四夷館“女真館”和朝鮮司譯院“女真語學”」, 『中國史研究』 1,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2005.
- 烏云高娃, 「14_18世紀東亞大陸的_譯學_机构」, 『黑龍江民族叢刊』 3, 中國社會科學院歷史所, 2003.
- 烏云高娃, 劉迎勝, 「明四夷館“韃靼館”研究」, 『中央民族大學學報』 4, 南京大學歷史系, 2002.
- 烏云高娃, 「日本學者對明“四夷館”及『華夷譯語』的研究狀況」, 『中國史研究動態』 6, 南京大學歷史系, 2002.
- 王雄, 「明朝的四夷館及其對譯字生的培養」, 『民族研究』 2, 1987.
- 魏英邦, 「『華夷譯語』研究拾零」, 『青海社會科學』 2, 1982.
- 辛全民, 「通事的詞義變遷」, 『濰博師專學報』 2, 山東工商學院外國語學院, 2010.
- 周靜, 「我國最早翻譯館明四夷館組織制度研究」, 『蘭台世界』 12, 山東理工大學圖書館, 2013.
- 韋紅萍, 「明清時期的東南亞語種人才培養」, 『東南亞縱橫』 7, 廣西民族大學國際教育學院越南語教研室, 2012.

- 張美平, 「教習譯寫番字,事雖輕而干系重－明代四夷館翻譯教學述略」, 『中國科技翻譯』 2, 浙江樹人大學語言學院, 2011.
- 張秀燕, 「中國歷史上最早的翻譯學校－明朝四夷館」, 『內蒙古農業大學學報』 6, 泉州師範學院外語學院, 2008.
- 張文德, 「王宗載及其『四夷館考』」, 『中國邊疆史地研究』 3, 南京大學歷史系, 2000.

학위논문

- 高光一, 「朝鮮時代 中國語 教育 研究 : 譯官 養成 및 教材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2006.
- 기수진, 「조선조 사역원의 중국어 교육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4.
- 백옥경, 「朝鮮前期 譯官研究」, 梨花女子大學校, 2000.
- 이호민, 「사역원의 직제와 외교기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2004.
- 崔桂花, 「조선초기 漢語文政策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 潘心荷, 「通譯 養成機關인 朝鮮의 司譯院과 明나라 四夷館의 比較 研究」,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05.
- 胡秋碧, 「明清時期的四夷(譯)館」, 廈門大學, 2008.
- 林杏容, 「明代通事研究」, 暨南大學, 2006.

그림과 표 차례

| | |
|--|----|
| <그림 1> | 33 |
| <그림 2> | 34 |
| <그림 3> | 35 |
| <그림 4> | 62 |
| <그림 5> | 65 |
| <표 1> 『經國大典』에 기록된 사역원의 내직 상황 | 50 |
| <표 2> 조선 초기의 한학서 | 57 |
| <표 3> 『朝鮮王朝實錄』의 역학서 기술(조선 전기) | 58 |
| <표 4> (원간) 『노걸대』와 (산개) 『노걸대』의 차이 | 61 |
| <표 5> 역과 초시·복시 시취역수 | 66 |
| <표 6> 역과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 68 |

<Abstract>

A study on Ming Si Yi House Interpreters and Joseon
Sayogwon Interpreters of the 15th~16th century

Zhang Qi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the Ming dynasty and Joseon placed great importance on nurturing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so at the same time, 'Si Yi House' and 'Sayogwon' were established as organizations for nurturing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respectively. Although the names of these two institutions are different and the titles of the talents nurtured here are different, there is a point of comparison in that they were institutions that handled diplomatic missions and nurtured diplomatic talents. In this thesi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se two institutions, the recruitment of teachers and trainees, and learning materials and evaluations are the focus of this thesis. Therefore, what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 name of Joseon and the foreign policy of Joseon's 'fourth-day kyorin', what was the status of interpreters and interpreters who were considered to be technical positions at the time, what w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xtbooks used in the two institutions, I think it is necessary to once again discuss in detail how the evaluation process was different. Although there is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ucation of Si Yi House and Sayogwon among previous studies, it seems that it did not clearly mention that Ming and Joseon recognized each other's languages differently. Therefore, based on this research consciousness, this thesis will deal specifically with the educational situation of syntactical and historical officers, using the Si Yi House and the ministerial staff as comparison targets.

In Chapter 2,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i Yi House, the recruitment of teachers and trainees, and study materials and evaluation through basic literature data. First, by dealing with the background and operation status of Si Yi

House, the cause of Ming's establishment of Si Yi House can be identified, and the history of Si Yi House will be examined. Second, the social status of Myeongcho Tongsa will be elucidated by dealing with the recruitment of teachers and translators. Third, let's try to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Hwai Translation』, a textbook for nurturing Ming dynasty syntax, through study materials and evaluations, such as compilation, content composition, and edition.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identify a rigorous graduation exam so that students can take tests and final graduations on a regular basis.

Chapter 3 will introduce and deal wit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ministry center, recruitment of teachers and trainees, and study materials and evaluation in a way that references previous research and utilizes basic literature materials. First, by dealing with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organization of Sayogwon, it is possible to find out the situation and historical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Sayogwon in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take a peek at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he two institutions through the description of the job titles of the ministers. Second, by dealing with the recruitment of teachers and cadets, the social statu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will be investigated. Third, we will examine the types and development of various epidemiological books that appeared in the Joseon Dynasty by dealing with study materials and evaluation.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xtbooks used in Sayogwon, focusing on 『(Nogeoldae)』.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identify the examinations for becoming a military officer and the examinations taken to graduate for scholarships and promotions.

In Chapter 4, I would like to compare the status of training between Sai-gwan and ministerial officers in several aspects. Mainly, there are comparison of the language of the other party, comparison of the social status of syntax and parsimony, comparison of the situation of textbooks used, and comparison of the evaluation to become a syntax and parsimony. In this comparison, it will be revealed what the emphasis was on each other's languages according to the foreign policies of Ming and Joseon. In addition, we will

examine what the social status of talented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was, what differences were in the textbooks used, and how the evaluation methods and contents differed.

By arranging and comparing several aspects in this way, it will be possible to find out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15th and 16th century scholars and the educational aspects and training institutions of Joseon officials.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how the perceptions of langua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differed during this period.

Keywords: Interpreters, Si Yi House, Sayogwon.